



ISSN 1011-2073  
발간등록번호 11-1370104-000003-08



통권 제 393 호 2019

전자책,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통권 제 393 호 | 2019

통권 제 393 호 | 2019



전자책,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서관 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 전자책,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서관 서비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출판산업과 도서관 분야에도 전자책이라는 매체가 등장한 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맞춰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5월 25일 디지털도서관 개관을 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기획주제는 '전자책, 시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서관 서비스'로 '전자책'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도서관이 변화의 중심부로서 나아갈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종이책뿐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전자책 서비스는 구독방식의 급격한 변화와,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성 향상, 출판계와의 상생 발전, 디지털자료 또한 국가의 지식문화유산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도서관, 출판사, 관련 기관과 단체들의 협력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고,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와 전자책 관련 기술 및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끝으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의 특징과 제작법,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납본 시행 이후의 변화와 앞으로 전자책과 관련하여 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았습니다. 이번 호가 도서관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총론	
전자책과 도서관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9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과 전자책	33
송재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관리팀장	
이용자 분석	
전자책 이용자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	51
류영호 교보문고 콘텐츠사업단 부장	
국내외 현황	
전자책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제도	77
이중호 한국출판콘텐츠 대표	
기술 동향	
전자책 관련 기술의 흐름	97
맹한민 이타래 대표	
장애인 정보접근권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115
장보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사무관	

전자책 납본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145
홍영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사무관	
저작권	
전자출판과 도서관, 그리고 저작권	161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기획대담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논하다	185
사회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패널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진정훈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주무관	
홍영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사무관	
부록	
디지털도서관, 10년을 돌아보다	195



총론

**전자책과 도서관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과 전자책**

송재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관리팀장

이용자 분석

**전자책 이용자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류영호 교보문고 콘텐츠사업단 부장

국내외 현황

**전자책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제도**

이중호 한국출판콘텐츠 대표

기술 동향

**전자책 관련 기술의 흐름**

맹한민 이타래 대표

장애인 정보접근권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장보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사무관

전자책 납본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홍영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사무관

저작권

**전자출판과 도서관, 그리고 저작권**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총론

# 전자책과 도서관 서비스의 현재와 미래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 1. 국내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전자책 서비스 등장

컴퓨터의 발명으로 촉발된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 양상을 초래하였고, 출판산업과 도서관 분야에도 전자책이라는 매체가 등장한 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출판산업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기술력 기반의 와이즈북과 이에 대응하는 출판계의 북토피아(1999년 설립)라는 전자책 플랫폼이 등장한 이후, 2001년 11월에는 두 플랫폼이 와이즈북토피아로 합병하여 운영되기도 하였다. 당시 출판계에서는 콘텐츠 우위의 북토피아와 솔루션 마케팅 우위의 와이즈북이 양사 통합으로 콘텐츠 10만여 종, 회원 수 80만 명, 제휴 출판사 700여 곳을 갖춘 시장점유율 85%의 선도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장밋빛 미래를 관측하기도 하였다.<sup>1</sup> 2003년에는 와이즈북토피아의 사명을 (주)북토피아로 변경<sup>2</sup> 하고 소비자가 기억하기 쉽도록 단순화하면서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10여 년 만인 2009년 1월에 국내 전자책 1위 업체인 (주)북토피아가 사실상 부도 상태<sup>3</sup> 에 놓이면서 출판계 전체를 충격에 빠지게 한 바 있다. 이처럼 전자책 관련 장밋빛 미래는 2009년 (주)북토피아의 부도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뀌었다. 당시 구글은 저작권 타결 이후 디지털 도서관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아마존은 킨들2를 출시하면서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도서관 분야의 경우, 2000년 2월 1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도서관이

국민의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하여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도서관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건의하였다. 이 건안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하여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의 협의를 거쳐 2000년 3월 <도서관정보화추진 종합계획>을 수립<sup>4</sup> 하여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는 2002년 8월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3~2011)>을 수립하여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정보도서관, 지식과 정보가 함께하는 문화사랑방을 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역점추진 과제로 도서관 간 네트워크 구축 확대로 도서관 협력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확충을 통한 도서관 기능 활성화, 도서관 콘텐츠 확충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내실화, 지역 내 커뮤니티의 구심체로서 도서관의 환경 개선, 시민단체, 언론계 등과 연계한 도서관문화운동 전개를 역점추진 과제로 선정하였다. 또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역할 강화’, ‘환경 개선’, ‘협력체계 활성화’ 부분으로 나누고 11개 주요사업 과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1년부터 2003년 동안 695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였고,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적인 확충과 구축 대상의 다변화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의 고도화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정보 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서비스 기회를 제공하고 기본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욕구 및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 의지를 현실화시키고자 한 바 있다.

출판계의 전자책 서비스와 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에 대한 수요를 교차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 출판계의 전자책 서비스의 시작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전자책은 확산되는 시기였고, 이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힘입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도 ‘전자도서관’, ‘가상도서관’, ‘사이버도서관’ 등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에 따르면, 2007년도에 600개관이었던 전체 도서관 중 253개관(42.2%)이 전자 도서

1 경향신문(2001.11.9). “전자책 양대산맥 북토피아, 와이즈북 통합”, 김민아 기자, [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33039.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33039.html)

2 전자신문(2003.8.7). “와이즈북토피아, ‘북토피아’로 사명 변경”, 정은아 기자, [www.etnews.com/200308060115](http://www.etnews.com/200308060115)

3 한겨레신문(2009.1.13). “국내최대 전자책 출판사 부도위기”, 김일주 기자, [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33039.html](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333039.html)

4 국가기록원(2007.12.1). 도서관정보화기본계획수립, [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804](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804)

관 서비스를 제공한 이래 2018년에는 1,092개관 중 826개관(75.6%)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하고 있다.

출판계에 (주)북토피아 부도가 있었던 2009년에는 703개관 중 384개관(54.6%)에서 전자책 서비스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출판계의 내용은 전자책 회사와 솔루션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종이책과 전자책의 동시 출간을 더욱 꺼리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 등 해외와는 달리 국내 출판사의 종이책과 전자책 동시 출간은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자기잡식이라는 의미로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출간하여 독자가 전자책을 구매하여 볼 경우에 종이책의 판매 저하에 영향을 미침)의 우려 증가로 더욱더 위축되었다. 이는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전자책 서비스가 시작된 지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무엇이 여전히 전자책 서비스를 어렵게 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현재의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전자책과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를 고찰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 2. 전자책과 도서관 서비스의 현재 이슈

### 1) 전자책 서비스의 기술 이슈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하여 늘 등장하는 문제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전자책은 종이책이라는 기존의 서비스와 다른 형태이다. 종이책은 ‘기획-편집-디자인-인쇄-제본’이라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 형태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된다.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책이라는 매체를 종이책의 형태로 소비하고 이용해왔고, 도서관에서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 자료(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 포함))’

의 상당 부분을 종이책이 차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종이책과 다른 매체인 전자책이 등장하였고 초창기 전자책 서비스를 할 때에는 종이책을 PDF 형태로 변환하는 것으로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자책의 EPUB2.0이 등장하였고, 이후 EPUB3.0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왔다. 이때 저장된 파일을 보기 위해서는 뷰어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러한 뷰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마다 다르게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사마다 다른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 적용으로 인해 전자책 서점마다 전용뷰어가 있고, 전자책 서점에서 구매한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는 책을 구매하는 소비자나 도서관 전자책을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의 뷰어를 써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책 표준 혹은 뷰어의 호환성 문제가 늘 화두가 되어 왔으며,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다.

현재 이러한 이용자 경험의 개선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도서관의 경우, 전자책 통합 DRM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영풍문고, OPMS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의 경우 각 유통사 앱(Application)을 1개의 앱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예스24와 북큐브의 전자책 자료도 하나의 앱으로 볼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는 추후 신간 도서에 대해 통합 DRM 서비스 방안 마련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보여준 사례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2) 전자책 서비스의 콘텐츠 이슈

전자책 콘텐츠와 관련하여 도서관과 출판계는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우선, 종이책과 전자책의 출간 시기와 관련한 문제가 늘 제기되어왔다. 앞서 살펴본 출판계에서의 전자책 서비스와 (주)북토피아의 부도에서 비롯된 출판산업에서의 전자책이 주었던 충격과 관련하여 출판사 스스로 전자책 서비스 유통사를 믿지 않는 풍토가 2009년 이후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출판사가 전자책 출간을 최대한 미루는 데 일조하게 된 결과가 나타났다. 출판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종이책을 출간하고 이에 대한 판매로 인하여 기본적인 이윤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야 전자책을 출간하는 비즈니스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신간 자료를 주로 채택하여 장서를 구성하는 도서관의 정보 요구 방향과 어긋나는 방식이 되었다. 이로 인해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전자책이 자료로 선정되기보다 전자책 서비스 유통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전자책 보유 수량과 다양성에서 부족함을 초래하였다. 장기적으로 축적된 통계 자료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카니발라이제이션은 출판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판계는 종이책과 전자책 동시 출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종이책에 비해 전자책 자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종이책과 전자책 이용자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는 인식을 출판계에 확산시켜 서로 다른 독자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넓힐 것을 제안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인식 전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3) 도서관의 전자책 소장 및 통합 이용 이슈

우선 전자책 도서관의 콘텐츠가 확충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전자책의 소장 이슈가 있다. 즉,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장서 구성에 대해 도서관과 출판계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종이책은 도서관에서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시각은 전자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장형’ 전자책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출판사는 불편함을 나타내는 실정인데, 종이책 도서의 경우 실체적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대출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동시 대출이 불가능하고 대여 및 반납에 대해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그로 인해 소장 부수가 회독되는 시기가 조절된다고 판단한다. 또한, 종이책의 경우 파손이나 장기 연체 등으로 인해 폐기되고 재구매가 이뤄질 여지가 있다. 이에 비해 전자책은 그러한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전자책 통합 이용에 대한 이슈도 도서관과 출판업계가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은 해당 도서관을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고 열람용 1부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며, 동시 접속자 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는 원칙하에 서비스되고 있다. 이에 비해,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통합도서관, 평생학습관에서는 해당 도서관에 방문하여 대출증을 발급받은 후 전자도서관을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림 1.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자도서관 전자책 대출 화면



출처 :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자도서관 누리집<sup>5</sup>

이 중 교육청의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는 독자의 도서 대여 편의 강화를 위해 개별도서관보다 전자책 카피 수를 더 많이 구입하여 통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이용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 입장에서 시민의 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참여 도서관 확대를 만길 수 있다.

다만, 출판계 일각에서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 구매하던 방식에 비해 단일화하여 구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판매 수익 감소로 인하여 교육청의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전자책의 디지털화된 상호대차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인식의 나타내 기도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sup>6</sup>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자도서관 누리집 e-lib.sen.go.kr/0\_ebook/detail.php?cont\_no=19630&code=21710050000

6 도서관법 시행령(제 10조 제2호(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4%9C%EA%B4%80%EB%B2%95%EC%8B%9C%ED%96%89%EB%A0%B9

관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 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법조항은 2009년 9월 21일에 개정된 조항으로 상호대차는 이미 도서관에서 오래된 서비스이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는 국립중앙도서관 협력업무에 대한 내용이다. 물론,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도 전자책을 상호대차하는 경우는 없다.

문제는 출판계 입장에서 볼 때,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의 자료 검색 등 정보 접근성이 과거와는 달리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통합 운영으로 인한 회독률 증가로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도서관 납품과 관련한 이윤이 줄어든다는 인식과 우려를 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베스트셀러 작가의 경우 전자책 회독률의 증가는 저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인식이 전자책의 종이책 동시 발간을 지연시키는 요소로도 작동하고 있어, 출판계에서는 소장형 전자책보다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 도서관 중에서 전자책을 구독형으로 하는 경우는 서울도서관, 울산도서관 및 시범운영 중인 충남도서관, 용인도서관과 같이 소수이다.

그림 2. 서울도서관 전자책 누리집의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출처 : 서울도서관 전자책 누리집<sup>7</sup>

7 서울도서관 전자책 누리집 lib.seoul.go.kr/rwww/html/ko/eLibHome.jsp

이 중 서울도서관의 전자책 누리집을 보면, 통합 전자책 누리집과 구독형 전자책, 국외 전자책이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다. 서울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전자책 서비스(소장형, 구독형, 국외 전자책)를 한 화면에서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데, 서울도서관 전자책(소장형)을 대출·반납하고 내서재에서 열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책 이용 가능 도서는 소장형 전자책 4,500여 종, 구독형 전자책 6,100여 종, 국외전자책 620여 종이다. 이중 구독형 전자책은 매년 도서 목록을 갱신하여 연간 단위로 계약해 서비스하는 “임대형 전자책 서비스”라는 설명과 함께 “구독형 전자책으로는 신간, 인기도서 위주로 더 많은 전자책을 서비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문구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모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라이선스 모델은 연간 구독 모델, 대출 당 이용료 지급 모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현재 북미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선호하는 구매 방식은 영구 라이선스 모델(License with perpetual access)이다. 영구 라이선스 모델<sup>8</sup>은 기존의 전자책 납품 방식과 달리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동시접속 없이 ‘도서관 이용자 1명당 전자책 1권 이용’ 조건이며, 도서관은 해당 전자책을 영구적으로 이용(Access)할 수 있지만 디지털 파일을 소장할 수는 없다. 현재 북미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선호하는 구매 방식이며, 2013년 기준으로 미국 중소형 출판사의 58%가 이 방식을 채택했으나, 2014년에는 52%로 감소하였다.

최근 들어 이러한 라이선스 모델과 관련해서 미국 공공도서관과 출판사들 간의 전자책 서비스 방식 관련 논쟁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 6월 아세트 출판그룹이 도서관에 대한 영구 라이선스 모델을 2년 단위의 전자책과 디지털 오디오북 대여모델(Two-Year Ebook and Digital Audiobook Lending Model)로 바꾸려고 하는 사안이 첨예한 대립 갈등 이슈<sup>9</sup>로 떠올랐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은 2년간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라이선스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8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8).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관련 정책개발>.

9 Matt Enis(2019.7.17.) “Publishers Change Ebook and Audiobook Models: Libraries Look for Answers”, Library Journal, www.libraryjournal.com/?detailStory=publishers-change-ebook-and-audiobook-models-libraries-look-for-answers

재구매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재 미국도서관협회(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하여 대 정부 로비를 비롯하여 다양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맥밀란 출판사의 경우에도 2019년 11월부터 신규 도서에 대해 1권만 구매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여 방식을 변화<sup>10</sup>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도서관협회 산하의 공공도서관협회도 맥밀란 출판사가 발표한 새로운 전자책 대여 모델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출판사들과 도서관 간의 논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4) 출판계의 공공대출권 이슈

공공대출권(Public Lending Right)은 도서관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물의 판매수요 감소분만큼 저작자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주장의 요체이다. 도서관이 저작물을 구매한 후 여러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빌려 가며 이용하는 경우, 대출이 독자들의 구매 행위를 대신하게 되고, 그 결과 저작물의 판매가 감소하여 저작자에게 배당되는 인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가정이 그 이유이다. 이는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자의 보상청구권으로 보기도 한다(Stave, 1981; 정현태, 2002).<sup>11</sup>

영국의 경우, 저자들의 적극적 주장에 의해<sup>12</sup> 공공대출권을 규정하는 법(Public Lending Right Act 1979<sup>13</sup>)이 1979년 만들어지고, 공공대출권은 198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1984년 처음으로 저자들에게 대금이 지불되었다. 1884년에 설립되어 개인 작가 회원에게 조언하고 저자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영국작가조합(Society of Authors)<sup>14</sup>에 의해 지속적으로 공공대출권으로 인

한 자금을 받고 있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해당 저자의 책이 대출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2017년 기준으로 영국의 30개 도서관에서만 대출 횟수를 샘플로 집계하며, 이를 영국 전체 도서관 일 년 추정치로 추산하여 지불이 이루어진다. 저작자에게 배당되는 보상금은 최고 6,600파운드에서 최소 1파운드 범위에서 개인 저작물의 대출 권수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배당금 지불방식은 정부에서 제공한 지원금 총액을 공공대출권 관리기수에 등록한 책의 총 대출 수로 나누어서 기준 지급률을 계산하고, 이 기준 지급률을 대출 권수에 곱해서 보상액이 정해진다.

표 1. 영국 PLR 2017-2018년 저자 배당금

구분	2018년 2월	2017년 2월
5,000~6,600파운드	294명	305명
2,500~4,999.99파운드	382명	356명
1,000~2,499.99파운드	760명	792명
500~999.99파운드	829명	863명
100~499.99파운드	3,271명	3,232명
1~99.99파운드	16,572명	16,654명
총 수혜자 수	22,108명	22,202명
대출 없거나, 최소 대출 권수 이하의 수	20,953명	19,548명

출처 : PLR News 2018, Public Lending Right(UK & Ireland), British Library, [www.bl.uk/britishlibrary/~/\\_/media/bl/global/services/plr/pdfs/newsletters/2018newsletter.pdf](http://www.bl.uk/britishlibrary/~/_/media/bl/global/services/plr/pdfs/newsletters/2018newsletter.pdf)

영국의 경우, 저자는 공공대출권에 근거하는 수익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공공대출권 관리소([www.plr.uk.com](http://www.plr.uk.com), [www.bl.uk/plr](http://www.bl.uk/plr))로 등록을 해야 하며, EEA 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공공대출권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 상호 적용되고 있으나 유럽연합의 공공대출권 규정(Rental and Lending Right Directive 1992)

<sup>10</sup> ALA member news(2019. 7. 31.) Public Library Association condemns Macmillan Publishers library lending model. [www.ala.org/news/member-news/2019/07/public-library-association-condemns-macmillan-publishers-library-lending-model](http://www.ala.org/news/member-news/2019/07/public-library-association-condemns-macmillan-publishers-library-lending-model)

<sup>11</sup> Stave, Thomas(1981). Public Lending Right: A History of the idea, Library Trends, 29(4), 569-582.

<sup>12</sup> Hugh Jones and Christopher Benson(2016), 『Publishing Law 5th Edition』, Routledge, 89~90

<sup>13</sup> Legislation.gov.uk, "Public Lending Right Act 1979", [www.legislation.gov.uk/ukpga/1979/10](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79/10)

<sup>14</sup> [www.societyofauthors.org](http://www.societyofauthors.org)

은 그 강제 수위가 낮아 동유럽권 나라들과는 호혜 적용이 다소 어려운 편이다. 지불 기간은 저작권 연한과 동일하여 저자가 사망한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70년이다.

공공대출권은 종이책과 관련하여 만들어졌으나, 2010년에 제정된 디지털 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0) 43조에 의거, 도서관 내에서 열람이 가능한 전자책과 오디오북으로도 그 적용이 확대되었다. 관련 법령(Digital Economy Act 2010, 43)<sup>15</sup> 속에 디지털 도서를 포함하기 위하여 법령 속 ‘도서’ 및 ‘대출’ 등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아울러 ‘저자’에는 ‘프로듀서’와 ‘내레이터’가 포함되었다. 디지털 경제법은 2017년에 개정이 이뤄지는데, ‘대출(Lent out)’에 대한 정의는 더욱 확대된다. 2010년 법에서는 도서관 경내에서의 전자책 대출만 인정한 반면, 2017년 법에서는 디지털 도서 전송이 도서관 건물 밖 원격지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까지<sup>16</sup> 공공대출권 영역을 확장하였다.

EU(유럽공동체연합)의 공공대출권을 살펴보면,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sup>17</sup> 소속 저자들과 삽화가 등이 수혜 대상이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의 경우에는 출판사도 수혜를 받는다. 그 외 국가에서는 출판사에게는 지불되지 않는다.

1992년 유럽공동체연합은 지적재산권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역내시장의 통합에 장애를 제거하고 공정한 경쟁을 제공한다는 명분 하에, 대여권 및 대출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 중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1992년 유럽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92/100/ EEC of 19 November 1992 on Rental and

Lending Right and on Certain Rights related to Copyright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1992년 대여권 지침)이라는 대여권 및 대출권 관련 지침을 제시하였다.<sup>18</sup> 동 지침은 기왕에 공공대출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대출 이용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일부 국가의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유럽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저작권 환경을 유지하여 왔던 EU 회원 국가들은 도서관 공정사용과 공공대출권에 대한 개념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1992년 EU의 대여권 지침이 발표된 이후 공공대출권에 대한 보상시스템이 없던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은 이 제도의 실시와 보상의 범위 및 방식을 두고 관련자들 간 협의기구가 구성되어 시행을 준비한 바 있다. 현재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 모두 공공대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PLR 인터내셔널<sup>19</sup> 은 세계 공공대출권을 위해 각국의 사례를 교환하고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 PLR International에서 제공하고 있는 <Public Lending Right(PLR): An Introductory Guide><sup>20</sup> 에 따르면, 현재 PLR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는 호주(Australia),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캐나다(Canada), 크로아티아(Croatia), 키프로스(Cyprus), 체코(Czech Republic), 덴마크(Denmark), 에스토니아(Estonia), 페로 제도(Faroe Islands),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조지아(Georgia), 독일(Germany), 그린란드(Greenland), 헝가리(Hungary), 아이슬란드(Iceland), 아일랜드(Ireland), 이스라엘(Israel), 이탈리아(Italy), 라트비아(Latvia),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리투아니아(Lithuania), 룩셈부르크(Luxembourg), 몰타(Malta), 네덜란드(Netherlands), 뉴질랜드(New Zealand), 노르웨이(Norway), 폴란드(Poland), 슬로바키아(Slovak Republic), 슬로베니아(Slovenia),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영국(United Kingdom)으로 총

<sup>15</sup> Legislation.gov.uk, “Digital Economy Act 2010 – 43 Public lending right”, www.legislation.gov.uk/ukpga/2010/24/section/43 한주리, 김혜영, 류영호, 최옥균(2017). <영국 출판정책 연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sup>16</sup> Legislation.gov.uk, “Digital Economy Act 2017 – 31 Lending of e-books by public libraries”, www.legislation.gov.uk/ukpga/2017/30/section/31/enacted 한주리, 김혜영, 류영호, 최옥균(2017). <영국 출판정책 연구>. 전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sup>17</sup> 유럽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러시아 및 터키를 포함하여 50여 개국이며, 유럽 연합에는 영국 포함하여 28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으며,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는 유럽연합 28개국 및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까지 포함하여 총 31개국이 있다.

<sup>18</sup> 정현태(2002).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현황과 대응방안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3권 4호, 19~35.

<sup>19</sup> PLR International, plrinternational.com/about

<sup>20</sup> plrinternational.com/public/storage/resources-languages/October2018/rBWbzqQAbxyEM7b2CsM.pdf



34개국이다(PLR International, 2018). 각국의 공공대출권 도입 현황을 살펴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표 2. 각국의 공공대출권 도입 현황(기준 : 2019년 7월 7일)

국가명	도입	수혜 대상	산정 기준
호주	1974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출판사	보유 부수
오스트리아	1977년	저자, 번역가, 출판사	대출 권수
벨기에	1994년	저자, 출판사, 아티스트, 프로듀서	대출 권수, 도서 권수
캐나다	1983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에디터, 번역가(출판사 제외)	도서 타이틀 수
크로아티아	2003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대출 권수
키프로스	2016년	저자	정부 보조
체코	2006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번역가, 번안자	대출 권수
덴마크	1946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아티스트, 사진작가, 작곡가, 기타 기여자(출판사 제외)	보유 부수
에스토니아	2000년	저자, 번역가, 에디터, 번안자, 일러스트레이터	대출 권수
페로 제도	1988년	저자, 번역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에디터, 작곡가	보유 부수
핀란드	1963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디자이너, 작곡가, 기타 저작권자(출판사 제외)	정부 보조
프랑스	2003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출판사	구매 시, 도서관 멤버십 이용자 수
조지아	-	저자	학교 도서관 대출 권수
독일	1972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번역가, 출판사	대출 권수
그린랜드	1993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보유 부수

헝가리	2008년	저자	대출 권수
아이슬란드	1988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작곡가	대출 권수
아일랜드	2007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에디터, 사진작가	대출 권수
이스라엘	1986년	저자	대출 권수
이탈리아	2006년	저자, 출판사, 기타 저작권자	대출 권수
라트비아	2006년	저자, 번역가, 일러스트레이터, 번안자, 작곡가, 영화 프로듀서, 내레이터	대출 권수
리히텐슈타인	1999년	저자, 아티스트	대출 권수
리투아니아	2002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대출 권수
룩셈부르크	2001년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번역가, 번안자	대출 권수
몰타	2015년	저자	대출 권수
네덜란드	1971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사진작가, 에디터, 번역가, 번안자, 출판사, 기타 저작권자	대출 권수
뉴질랜드	1973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보유 부수
노르웨이	1947년	노르웨이에서 책을 출간한 모든 저자	정부 보조
폴란드	1998년	작가, 번역가, 기타 기여자가 75%, 출판사가 25% 수혜	자료 없음
슬로바키아	2015년	저자	대출 권수
슬로베니아	1995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작곡가, 영화 감독, 영화각본 작가	대출 권수
스페인	1994년	저자	대출 권수, 이용자 수
스웨덴	1954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번역가	대출 권수
영국	1979년	저자, 일러스트레이터, 에디터, 번역가, 번안자, 오디오북 프로듀서와 내레이터	대출 권수
총 국가 수	총 34개국		

출처 : PLR International, 2018, Established Schemes, plrinternational.com/established  
2019년 7월 7일 검색 및 <Public Lending Right(PLR): An Introductory Guide>(2018)에 근거하여 재구성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같은 나라의 경우, 대출에 대한 지불(Payment per Loan) 방식으로 도서관에서 대출한 횟수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몇 부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지불(Stock or Title Count) 방식을 활용하는 나라로는 캐나다, 덴마크, 호주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도서 구매 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도서 판매자가 책을 도서관에 판매할 때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 지불하고 나머지 PLR 펀드는 각 도서관에 등록된 도서관 이용자 수에 따라 주예산으로 충당된다. 이때 개인 이용자가 지불하는 비용은 없다(PLR International, 2018).

PLR을 운영하는 방식은 각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도서관의 자금(Budget)이 아닌 국가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지불하는데, 연초에 전자책을 신청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읽을 수 있게 제공한 후, 대출하여 읽힌 책의 사용률을 기준으로 하여 추후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공대출권을 인정하는 국가에서는 공공대출권이 저자와 도서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공대출권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서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으며, 유럽을 제외하면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에서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다. 2018년에는 말라위와 홍콩에서도 공공대출권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자책 대여는 공공도서관 활동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는 캐나다, 덴마크, 영국이 전자책 대여에 대해서도 공공대출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공대출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공공대출권 도입과 관련한 보고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에 반해 아직까지는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입장 차이로 인해, 본격적인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공대출권의 재원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개별 도서관의 예산에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금(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누가 공공대출권의 수혜 대상이 되는지가 다르고, 보유 부수, 대출

권수, 도서 권수 등 어떠한 기준에 의해 공공대출권 지급을 할 것인지 등 논의해야 할 부분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련 연구 및 저작권자, 출판계, 도서관계, 정부 등 관계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협의되어야 할 것이다.

## 5) 도서관계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 이슈

2018년 4월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으로 취임한 정기에 관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전자책에 장애인 접근성 인증제도 도입 시행과 관련하여 법안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2019년 6월 밝혔다.<sup>21</sup> 현재는 대체자료 전환 비율이 너무 적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무한정 예산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중에 나오는 전자책은 발행 시점에서 대체자료 가독 기능을 적용하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장애인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앞으로 전자책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관련 법안 개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2019년 7월 8일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의원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출판하는 전자정보에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9년 7월 밝혔다.<sup>22</sup> 현행법상 장애인·고령자 접근성 보장 대체에 기존 누리집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자책 등 전자출판물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제정, 기술개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정보 접근성 보장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외는 이미 ‘EPUB3.0’이라는 전자출판 형식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만들어 접근성을 보장하는 추세이고 국내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2019년 2월 EPUB3.0 뷰어를 개발·상용화했다. 기존 장애인용 대체자료는 인쇄도서를 스캔해 OCR(광학

21 에이블뉴스(2019.6.25.) “전자책에 장애인 접근성 인증제도 도입 시행” [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90624130148690038](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90624130148690038)

22 경북매일(2019.7.8.) “장애인·고령자, 전자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법안 발의” [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900](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900)

적 문자판독)을 거치거나 출판사 편집 파일을 이용해 제작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정작 장애인이 읽고 들을 수 있는 전자책은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자출판물 제작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논의는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과 도서관법 제45조에 근거한다.

#### 제22조(정보에의 접근)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 ① 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 ②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07년 이후 운영되던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확대하여 2012년 개정 도서관법이 시행될 즈음 설립되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2017년부터 비장애인용 전자책을 이용하여 장애인을 위한 도서에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을 추가하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전자책을 제작하고 이미 서비스 중이며, 2017년에 670건, 2018년에 2,251건을 제작<sup>23</sup> 하여 2018년 12월 31일 현재 총 2,921건의 전자책을 소장하고 있다.

<sup>23</sup> 국립장애인도서관 소장자료 현황, [nld.nl.go.kr/ableFront/intro/resource.jsp](http://nld.nl.go.kr/ableFront/intro/resource.js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sup>24</sup>에 따르면,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하여 출판물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1., 2014. 1. 28., 2017. 12. 19.>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그러나 사실상 출판사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출판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을 만드는 제작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2016년 2월 3일에 개정된 저작권법 제33조제2항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출판사가 아닌 제작업체에서 전자책 제작을 맡아서 장애인을 위한 도서를 만드는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전자책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출판계의 지적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접근성 이슈는 앞으로 더욱 도서관

<sup>24</su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www.law.go.kr/lsInfp.do?lsSeq=199794&efYd=20180620#J21:0](http://www.law.go.kr/lsInfp.do?lsSeq=199794&efYd=20180620#J21:0)

계와 출판계가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3. 전자책과 도서관 서비스의 미래를 위한 상생

#### 1) 매체 변화에 따른 정보전달 방식의 변화

이미 1985년에 종이가 없는 사회(Paperless Society)라는 용어가 등장<sup>25</sup> 한 이래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미래 사회에 종이가 없어질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 이러한 질문은 국내 출판계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회자되었던 내용이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15년 전 도서관계에서도 “혹자는 공공도서관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이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한다”<sup>26</sup> 면서 공공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역할 분석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미래 변화를 제시하는 문제의식과 닮아 있다.

정보 전달방식 및 구성방식은 과거 상의하달(Top-down) 방식에서 하의상달(Bottom-up) 방식으로, 일방향 교류에서 쌍방향 교류로 변화했다. 오랜 기간 인간 이성의 최고봉으로 인식되었던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이 위키피디아에 의해 2012년 3월 마침내 종이책 발행 중단을 선언한 이후로도 오랜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음성인식에 기반하여 사용자의 관심사와 습관에 맞춰 능동적으로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 앱부터 콘텐츠 내의 인터랙티브 요소를 통해 더욱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책이 이미 2011년부터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멀티모달 인터페이스(Multimodal Interface)<sup>27</sup> 는 사용자가 음성, 키보드, 펜 등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음성, 그래픽, 음악 및 멀티미디어나 3차원 영상 등을 통하여 출력을 받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데,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W3C)의 멀티모달 인터랙션 워킹 그룹에서는 이미 멀티모달 인터랙션 프레임워크(Multimodal Interaction Framework), EMMA(Extensible Multimodal Annotation) 및 잉크 마크업 언어(Ink Markup Language) 등의 표준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스마트폰 등장 이후로는 스마트폰 생태계가 급성장하였고 소셜 미디어가 컴퓨팅 시스템의 주류로 발전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자유로운 개인 간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 및 디지털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서관 이용자에게는 종이책, 전자책 외에 접근 가능한 수없이 많은 매체가 눈앞에 놓여있다. 애플리케이션의 등장 및 다양한 IT 기기에서 발생하는 콘텐츠를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림 3. 음성인식 기반 앱과 인터랙티브 요소를 반영한 전자책



Sherpa next(2014) <sup>28</sup>

Mike Matas : Next generation digital book(2011) <sup>29</sup>

출처 : 음성인식 기반 앱과 인터랙티브 전자책 소개 유튜브 영상

<sup>25</sup> F. W. Lancaster, "The Paperless Society Revisited," American Libraries, Vol. 16, No. 8,(Aug. 1985), pp. 553-555.

<sup>26</sup> 광철환(2004). "미래의 공공도서관을 위한 제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권 3호, 65-78.

<sup>27</sup> Multimodal interface : 사용자를 인간과 컴퓨터, 또는 단말기기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음성뿐만 아니라 키보드, 펜, 그래픽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IT 용어 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sup>28</sup> Sherpa next App, [www.youtube.com/watch?v=o\\_Qi7SEdww](http://www.youtube.com/watch?v=o_Qi7SEdww)

<sup>29</sup> Mike Matas: Next generation digital book(2011), [www.youtube.com/watch?v=LV-RvzXGH2Y&t=140s](http://www.youtube.com/watch?v=LV-RvzXGH2Y&t=140s)



## 2) 도서관 이용자인 독자를 위한 상생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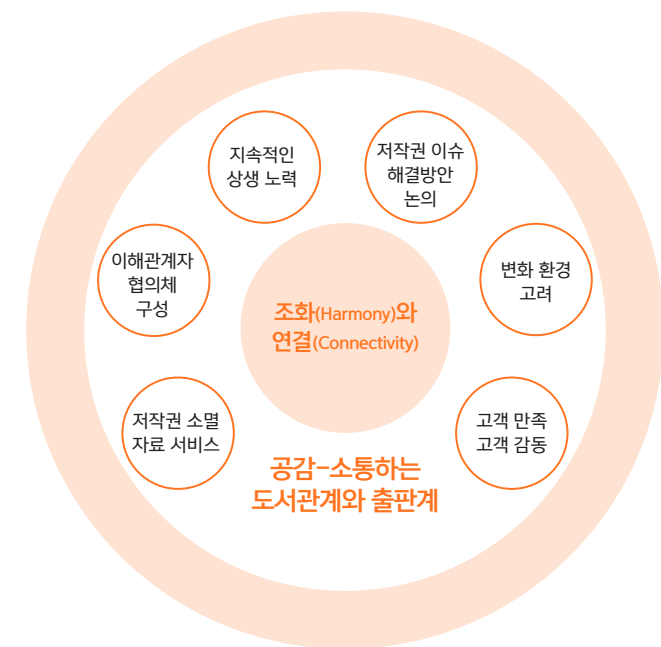
앞서 제시한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와 관련된 현재 이슈는 모두 도서관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통해 종이책과 전자책의 독자로 남아 있을 경우에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이다. 그렇다면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우선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독자층과 더불어 새로운 독자층에 대한 이해를 위한 분석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논의한 전자책과 도서관 서비스의 다양한 이슈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해 도서관과 출판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자를 위해 도서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전자책 콘텐츠 확보 및 국가 디지털자원 보존을 위한 전자책 납본 제도 등에 대한 출판계의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에서의 전자책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물의 판매수요 감소로 인한 저작자의 권리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국가의 지원 및 지급 방식 등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함께 협의해 나갈 사안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 절실하다.

영국의 경우, 2012년 9월에 에드 베이지 문화부 장관(Ed Vaizey, Culture Minister)이 영국 내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대출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발표(2012.9.25.)<sup>30</sup> 하면서 독자,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의 이익을 위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새로운 서비스 형태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독자의 정보 습득 방식과 커뮤니케이션 형태 변화에 대해 연구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콘텐츠 제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

여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고, 창조적 접근 및 공동의 변화 노력을 통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실천되기를 바란다.

그림 4. 도서관계와 출판계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노력



<sup>30</sup> GOV.UK(2012.9.25.) Vaizey launches review of e-books in public libraries, [www.gov.uk/government/news/vaizey-launches-review-of-e-books-in-public-libraries](http://www.gov.uk/government/news/vaizey-launches-review-of-e-books-in-public-libraries)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과 전자책

송재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관리팀장

## 1.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등장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 1,092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은 826개소로 전체 76%에 달한다. 적게는 수백 권에서부터 많게는 5만 권 이상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다.<sup>1</sup> 개별도서관에서 직접 전자책을 서비스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중앙관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나, 광역자치단체 전역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지역 대표 도서관, 또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도서관의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전자책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3월 27일 자 <전자신문>은 전자책 서점 드림북이 국공립 도서관 가운데 처음으로 대구시립남부도서관에 전자책 640종을 납품하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sup>2</sup> 당시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은 격동적인 변화의 시기에 접어든다. 오랜 시간 동안 유용한 검색 도구로 활용되어 왔던 카드 목록함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컴퓨터 검색 단말기가 대신했다. 일일이 대출 도서와 이용자 정보를 손으로 직접 써서 처리하던 도서 대출 반납 업무도 바코드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그 생명력을 다 한 지 오래지만 CD-ROM이 도서관의 장서 소장 공간과 검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새로운 매체로 각광받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전자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가상도서관’, ‘사이버도서관’과 같이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된 새로운 모습의 미래

도서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도서관에서 종이책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건물로서의 도서관 대신 컴퓨터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별 단위의 도서관은 해체되고 지역 간, 국가 간, 범세계적인 도서관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sup>3</sup> 하지만 한편에는 당시 열악한 도서관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희망론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부산대학교 김정근 교수를 비롯한 동료 연구자들은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라는 부제를 단 『디지털 도서관』이라는 책을 통해 1990년대 후반 한국사회의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의 벌어지고 있는 미래도서관 담론의 가벼움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sup>4</sup> 당시 제대로 된 장서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 접근 기술만 강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며 도서관의 기본을 다지고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2000년에 들어서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당시 도서관 정책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정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그해 3월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 계획’을 발표한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여 국민 누구나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 시설로 만들어나가기로 한 것이다.<sup>5</sup> 3개년에 걸쳐 총 695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348개 모든 공공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하였다. 윈도우 기반의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 시스템이 설치되고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KOLIS-NET)을 통해 전국 모든 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도서관에서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다.<sup>6</sup> 국가 차원

3 이수상. 미래도서관, 현실인가 환상인가: 우리 사서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국사서협회소식』, 5(4), 1996, p.6.

4 김정근. 『디지털 도서관 - 꿈인가, 광기인가, 현실인가』, 민음사, 1997.

5 김종율. 도서관정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도서관』, 57(1), pp. 11-13.

6 서여화.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운영실태 분석과 정책대안 모색 - 경남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서관』, 44, 2006, pp.32-93.

1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 www.libsta.go.kr

2 전자신문, '드림북, 대구시립남부도서관에 e북 공급', www.etnews.com/200103260061

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지방 농어촌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도 누구나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종합 문화정보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정책의 무관심 속에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방치되어 왔던 공공도서관이 정부 주도의 도서관 정보화 사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당시로써는 최신 기술을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거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했지만 이후 시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점점 높아져 갔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도서관을 꾸준히 확대해 나갔다. 2003년 말 기준 전국 471개<sup>7</sup> 이던 공공도서관은 이후 10년간 두 배 가까운 865개관으로 늘어났으며, 그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져 2018년에 이르러서는 1,096개관으로 200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sup>8</sup>

## 2.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현황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마다 각종 전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확충해 나가는 시기에 맞춰 국내 전자책 시장도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1999년 말부터 바로북닷컴, 북토피아 등 전자책 전문 서비스 업체가 하나둘씩 등장하고 2000년 말에는 관련 업체가 86개로 확장되었다.<sup>9</sup> 전자책은 종이책 시장을 대체하게 될 새로운 기술로서 디지털 음악, 다운로드 기반 영화 서비스와 함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영역으로 주목받았지만 기대만큼 시장의 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독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아직 미흡한 기술 수준과 콘텐츠 부족, 무엇보다 불법 파일 공유가 근절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시장을 확

7 한국도서관연합, 한국도서관협회, 2004, p.287.

8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 www.libsta.go.kr

9 성동규, 박상호, 유비쿼터스 시대의 전자책 활성화에 관한 연구, 『출판학연구 통권』 48, 2005.

대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서관을 주 타깃으로 한 B2B 시장이 국내 전자책 산업을 견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도서관에 디지털 서비스를 위한 하드웨어를 갖추긴 했지만 그 안에서 서비스할 콘텐츠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새롭게 등장한 전자책은 영상이나 음악 콘텐츠, 이러닝 콘텐츠와 달리 도서관의 고유한 서비스 대상인 종이책의 디지털 버전이라는 점에서 도서관의 요구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평가받았다. 이전까지 연간 10% 내외의 성장률을 보이던 전자책 시장은 전자도서관 수요가 본격화된 2004년 무려 87.3%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기도 했다.<sup>10</sup>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보유 현황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2007년부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1>과 같이 2007년 전체 도서관 600개관 가운데 전자책을 서비스하는 도서관은 전체 42.2%인 253개관으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8년에는 826개관으로 늘어나 전체 도서관 가운데 75.6%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책 보유량도 2007년 약 122만9천 종에서 꾸준히 확대되어 2018년 말 기준 약 974만6천 종으로 약 8배가 증가하였다. 개별 도서관으로 나누어 보면 1관당 평균 8,925종을 보유하고 있다. 종이책 보유량과 비교해서도 2007년 2.4% 수준에서 8.8%로 확대되어 도서관의 중요한 장서유형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별로는 경상북도 경산시립도서관(elib.gbgs.go.kr)이 54,237종으로 가장 많은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시흥시 공공도서관, 서울 성동구립도서관, 경상남도 교육청 창녕도서관 등이 5만 종 이상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다. 시흥시 공공도서관(lib.siheung.go.kr) 공식 누리집의 [도서관서비스] ▶ [전자책]에서 로그인 후 전자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10 2007년도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시장 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8, pp.117-118.

표 1.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보유 현황

연도	전체 도서관	전자 도서관	비율	전체 장서	전자책 장서 수	비율
2007년	600 개관	253 개관	42.2%	50,177,978권	1,229,161종	2.4%
2008년	644 개관	364 개관	56.5%	55,227,083권	1,169,432종	2.1%
2009년	703 개관	384 개관	54.6%	62,561,632권	1,431,106종	2.3%
2010년	759 개관	425 개관	56%	67,487,592권	1,550,090종	2.3%
2011년	786 개관	461 개관	58.7%	72,475,471권	2,399,958종	3.3%
2012년	828 개관	521 개관	62.9%	78,126,501권	3,067,226종	3.9%
2013년	865 개관	566 개관	65.4%	83,969,878권	3,479,680종	4.1%
2014년	930 개관	638 개관	68.6%	89,615,800권	5,053,144종	5.6%
2015년	978 개관	688 개관	70.3%	93,838,190권	5,973,765종	6.4%
2016년	1,010 개관	709 개관	70.2%	98,823,835권	6,399,027종	6.5%
2017년	1,042 개관	749 개관	71.9%	104,965,121권	8,333,639종	7.9%
2018년	1,092 개관	826 개관	75.6%	111,360,408권	9,746,706종	8.8%

출처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그림 1. 경산시립 전자도서관



그림 2. 시흥시 공공도서관



그림 3. 성동구립도서관



그림 4. 경상남도 교육청 전자도서관



출처 : 각 도서관 누리집

전자책은 종이책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첫째, 통상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전자도서관은 개별 도서관별로 서비스하기보다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해당 지역 교육청별로 운영하는데 어떤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전자도서관을 직접 관리하는 중앙관 항목에만 전자책 보유량을 입력하고, 지역 내 다른 도서관은 0권으로 표시한 데 반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내 모든 도서관이 똑같이 동일한 수량의 전자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입력한 경우도 있다. 혼돈이 일지 않으려면 조사하기 전에 입력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량 단위가 종수만 표기하고 있어 동시 이용자 수(카피 수)를 고려한 전체 서비스 수량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A도서관은 5카피 기준으로 10종의 전자책을 구입했고, B도서관은 1카피 기준으로 50종의 전자책을 구입했을 경우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전자책의 수량과 전체 전자책 구입 비용은 동일한 데 반해 현행 통계 산출 방식으로는 B도서관이 A도서관보다 5배 많은 전자책을 보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도서관통계에는 전자책 이용현황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도서관을 통해 얼마만큼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 3.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이용

전자책을 공공도서관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도서관에서 전자책이 장서로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종이책에 비해 이용도는 많이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누리집(www.library.kr)을 통해 국가도서관통계와 별도로 자체 조사한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관련 상세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전자책 대출 통계도 조사항목에 포함하고 있는데 비록 경기도권에 한정하고 있지만 전체 공공도서관의 4분의 1이 위치하고 있고, 지역 특성상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전반적인 공공도서관에서의 전자책 이용 현황을 가늠하는 데 무리가 없다.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연도별 전자책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연간 약 82만 권이 대출된 이후 매년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 2018년 크게 증가하여 127만 권까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본다면 2013년 대비 약 45만 권이 증가하여 5년 사이에 55%가 증가하였다. 전체 도서관 대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8% 수준에서 2014년 1.6%로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여 2018년 기준 2.9%까지 높아졌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장서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8.8%까지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전자책의 이용률은 종이책에 비해 권당 이용률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개별 공공도서관으로 나뉘보면 266개관 한 도서관당 하루 전자책 대출 권수가 13권 수준에 불과하여 전자책을 확충하는 것뿐만이 아닌 이용 확대를 위한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 이용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현상은 대학도서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이다. 지방에 소재한 대학도서관 두 곳의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 실태를 분석한 연구 자료에서도 “조사 대상 도서관이 2010년 전자책 서비스를 처음 시행한 이후 2012년까지 접속자 수

와 다운로드 수가 모두 증가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5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sup>11</sup> 다만 2014년을 정점으로 전체적으로 도서관 대출 권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책은 전반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은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경기도 공공도서관 전자책 이용 통계

연도	도서관 수	전체 대출량	전자책 대출량	비율
2013년	200개관	46,734,836권	820,635권	1.8%
2014년	217개관	47,808,482권	762,440권	1.6%
2015년	228개관	45,313,245권	750,387권	1.7%
2016년	247개관	43,618,116권	960,609권	2.2%
2017년	251개관	43,666,232권	895,706권	2.1%
2018년	266개관	44,610,991권	1,274,871권	2.9%

출처 : 경기도사이버도서관<sup>12</sup>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전자책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2014년 기준 전자책 입수 방법이 앱스토어 56.1%, 인터넷 포털 43.9%, 인터넷 서점 20.6%, 전자책 전문(종합) 사이트 12.6%인데 반해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은 7.7%에 그치고 있다. 증가율도 2012년 조사 결과 6.2%에서 약 1.5%가 늘어나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sup>13</sup> 전자책을 이용하는 독자 가운데서도 공공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무

11 김수정, 이지원, 대학도서관 전자책 관리 및 서비스 실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2016, pp.175-176.

12 <https://www.library.kr/cyber/contents/stats/contents.do>

13 2014년 전자책 독서실태 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5, p.81.

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 4.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한계

전자책이 처음 등장하면서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지난 수백 년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서의 지위를 누려온 종이책을 새롭게 등장한 전자책이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디지털 파일이라는 특성상 복제를 위한 비용이 들지 않으며,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 보존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하이퍼링크를 통해 언제든지 다른 정보원으로 건너뛰며 원하는 지식을 습득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텍스트를 음성 언어로 변환하는 TTS(Text to Speech)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번역 기술의 도움을 받아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도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전자책은 종이책이 갖지 못한 무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자책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전자책이 갖고 있는 이론적 장점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게 된다. 특히 도서관이 일반 시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하는 데에는 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종속성을 들 수 있다. 전자책 서비스는 단순히 정보를 담은 문서 형태의 파일을 구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전자책을 열람하고 저작권을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Digital Rights Management, DRM)과 전자책 콘텐츠 등록과 검색을 위한 관리 시스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전자책을 볼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등이 필요한데 이는 통상적으로 전자책 유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자책 유통업체마다 각기 다른 전자책 뷰어를 사용하고 있어 서로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전자책을 보기 위해서는 해당 전자책에 맞는 여러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통합 뷰어의 필요

성에 대한 요구는 도서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도 하다.<sup>14</sup> 전자책 유통업체에서 지원하는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전자책의 카테고리 구분이나 누리집 화면 구성, 신규 서비스 개발 등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sup>15</sup> 전자책 이용자들은 이미 다른 인터넷 서점이나 전문 전자책 서비스 업체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대 수준은 높아진 반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책 서비스 개선은 늦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전자책 산업 생태계를 둘러싼 이해 관계와 정보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려는 공공도서관의 사명 사이에서 발생하는 충돌로 인한 문제를 들 수 있다.<sup>16</sup> 기본적으로 저작자나 출판사는 저작물을 판매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공도서관에서 일반 시민이 무료로 책을 빌려보고 나면 책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자연히 판매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기존의 종이책 유통 관행을 따라 도서관이 전자책을 ‘자산’으로 취득하고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되면 단순히 판매량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 출판권, 배타적 발행권의 법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전자책의 품질 문제, 창작 의욕 저하, B2C 시장의 악화, 국제 소송의 빌미 제공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자책 산업 및 출판문화 전반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하기도 한다.<sup>17</sup> 도서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억울할 수도 있다. 공공도서관은 어디까지나 전자책 유통사에서 제시한 판매 조건에 맞춰 수동적으로 구입해 왔고, 오랫동안 전자책 시장이 자리를 잡기까지 B2B 시장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더군다나 앞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이나 노력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도서관 측에서 오히려 도서관 전자책 판매에 관한 저

14 송재술, 신정아, 경기도 공공도서관 협력형 전자정보 서비스 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2013, p.217.

15 송재술,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관한 사서의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16.

16 백지원,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쟁점과 대응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2014, p.114.

17 구모니카, 전자도서관 서비스의 쟁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글로벌학의문화연구』, 4(1), 2015, pp.77-78.

작권자의 행태를 문제로 지적하기도 한다. 인기 있는 저자나 출판사에서 발간한 전자책을 도서관에 아예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를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판매율이 떨어지는 시점이 되어서야 도서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의 정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사실상 구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sup>18</sup>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 높은 전자책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결국 전자책 이용자들의 기대 수준을 낮추게 되어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 서울시 내 24개 구립도서관 전자책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책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자책 콘텐츠, 전자책 사용 시스템, 전자책 지원 서비스 등 3개 분야 16개 조사항목 가운데 전자책 수량 부족과 다양성 부족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기도 했다.<sup>19</sup>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갖고 있는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세계도서관협회연맹(IFLA)는 공공도서관의 고유한 사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2012년 이와 관련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2013년 2월 6개 조항으로 구성된 ‘IFLA 도서관 전자책 대출 원칙(IFLA Principles for Library eLending)’을 발표한다.<sup>20</sup> 이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은 유예 기간 없이 어떠한 상업적 전자책도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합리적인 조건과 공정한 가격으로 전자책을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자책을 입수하고 서비스함에 있어 저작권법에서 정한 도서관의 이용 제한과 예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전자책은 도서관에서 중립적이며 표준화된 형태로 개발된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전자책 장서의 장기 보존을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전자책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한다.

18 백지원. 전계논문. 2014. p.119.

19 임광택. 서울시 구립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p.40.

20 IFLA Principles for Library eLending. [www.ifla.org/elending/principles](http://www.ifla.org/elending/principles)

이외에도 미국도서관협회(ALA), 호주도서관정보협회(ALLA), EU도서관·정보·문서협회(EBLIDA) 등 세계 각국의 도서관 전문단체에서 시민들의 전자책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sup>21</sup>

도서관이 홍보나 전자책 확충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전자책 이용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수준 높은 전자책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도서관을 통한 자유롭고 평등한 창작물 이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모든 출판 생태계 주체들이 장기적 전망을 갖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 5. 공공도서관 전자책을 이용하는 사람들

도서관에서 종이책을 대출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 서가를 브라우징하거나, 도서관에서 주최하는 관심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도서관에 건의하기도 한다. 도서관 직원은 도서관에 방문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이용자의 요구와 취향을 파악하고 도서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 반면 전자책 이용자는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책을 빌리면 끝이다. 전자책 이용 통계를 보고 어떤 연령대, 어떤 성별의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며, 어떤 종류의 책을 선호하는가 하는 수준의 정보는 조사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이용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 지역 도서관에 소속감을 느끼기보다는 도서관을 무료로 전자책 이용이 가능한 하나의 누리집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인천광역시 3개 공공도서관 회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105년까지 4년간 대출 기록을 분석한 연구

21 송재술. 전계논문. 2015. pp19-20.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종이책과 전자책을 모두 1회 이상 대출한 이용자가 전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이책만 빌려본 이용자는 50.2%, 전자책만 빌려본 이용자는 46.2%를 차지했다.<sup>22</sup> 즉, 전자책 이용자의 대부분은 오직 전자책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회원으로 가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도서관 공간에서는 만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온라인상에서는 기회가 열려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전자책 커뮤니티 ‘디지털 감성 e북 카페’(cafe.naver.com/ebook)에는 2019년 7월 기준 약 35만 명이 넘는 많은 이용자가 참여하고 있다.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전자도서관 이용 방법에 관한 간단한 궁금증에서부터 우리나라 모든 전자도서관의 리스트와 보유 장서량, 이용방법과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고급 정보까지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심지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자도서관 소장 자료를 통합 검색 할 수 있는 누리집을 직접 만들어 공개하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전자책 전용 기기에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찾아낸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한다. 도서관이나 전자책 유통업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곳에 모인 구성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에도 누리집을 통해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이 아닌 이곳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끌어오려고 노력하기보다 온라인 공간의 이용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으로 도서관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는 것도 전자책 이용자와 교류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의 관계가 아닌 같은 관심 있는 주제를 공유하는 하나의 울타리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다가간다면 서비스 개선 방안을 고민한다거나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전미경, 공공도서관 종이책과 전자책 복합이용자의 이용행태 분석,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7, pp.18-19.

그림 5. 디지털 감성 e북 카페



출처 : 네이버 카페

## 6.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의의

앞서 기술한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전자책 이용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해가고 있다. 다소 불편하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다른 곳과 차별화된 매우 유용한 장점이자 새로운 전자책 이용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임이 분명하다. 똑같이 독자와 전자책을 매개하는 온라인 서비스이긴 하지만 도서관은 인터넷 서점이나 상용 전자책 전문 업체와 비교할 때 무료라는 것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첫째, 도서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매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보고 싶어 하는 책뿐만 아니라 시장성이 낮더라도 가치 있는 자

료를 발굴하여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 단순히 대출 권수를 늘리기 위해 인기 있는 책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장서를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도서관에서도 북 큐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전자책의 경우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자책은 모니터나, 스마트폰 액정 크기의 제약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서가 20권을 넘지 못한다. 서가 사이를 누비며 빠른 시간에 수백 수천 권의 도서를 확인할 수 있는 종이책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주로 신간 도서나 인기도서가 화면 전면을 차지하게 된다. 북 큐레이션 기법을 온라인에도 적용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관심 주제에 따라 관련 전자책을 모아 서비스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서비스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서관이 다양한 영역에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이다. 종이책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자료를 공공영역에서 장서로 구입함으로써 창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고, 자본의 논리에 묻혀 드러나지 않았던 양질의 자료를 찾아 전면에 내세워 시민들이 접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창작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 7.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미래에 가는 기대

공공도서관이 전자책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초기 전자책 서비스와 현재 모습을 비교하면 PC 중심에서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한 것 이외에 기능적으로 특별히 나아진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도서관의 다양한 업무 영역 가운데 전자책 서비스는 항상 우선순위에 벗어나 있었고, 주도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기보다는 주어진 외부 환경에 맞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지는 것

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 1,000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이 있어도 그 가운데 획기적인 우수사례나 새로운 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2019년 초에 발표했다.<sup>23</sup> 종합계획에는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을 비전으로 사람에 대한 포용성, 공간의 혁신성, 정보의 민주성 등 세 가지 핵심가치와 추진 과제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향후 도서관에서 장서나 서비스 측면에서 전자책의 중요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된 공공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가 아직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확대’ 정책이 추진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지만, 무엇보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전자책 서비스를 단순 지원하기보다는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독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먼 미래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20년의 시간은 전자책 역사에서 극히 앞쪽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 종이가 세상에 처음 등장한 이후 현재의 완성된 모습으로 기록 매체로서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해 왔던 것처럼 전자책 또한 미래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습과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발전해 있을지도 모른다. 이번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확대’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전자책을 둘러싼 생태계의 각 주체들의 새로운 도전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23 2019-202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p.40.



이용자 분석  
**전자책 이용자와  
서비스에 대한 이해**

류영호

교보문고 콘텐츠사업단 부장

최근 세계 전자책 시장은 전반적으로 정체기에 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는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아마존과 대형 출판사들의 전자책 판매 가격 인상, 각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의 경쟁 심화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대적으로 유럽, 아시아, 남미의 주요 국가별 전자책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 아마존 킨들 서비스가 시작되었거나 출판사와 콘텐츠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상징하는 디지털과 모바일 비즈니스의 파급력은 전자책 시장에 긍정적인 기반이다. 과거에 전자책이 종이책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거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상호 균형을 잡으면서 공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출판사의 전자책 동시 출간율 증가, 셀프 퍼블리싱(Self Publishing)을 통한 작가들의 전자책 출간 확대 현상도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전자책 시장은 20년이 넘는 업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서 출판 시장 내 점유율은 3% 정도로 추정된다. 다수의 전자책 관련 사업자들이 흥망을 거듭했지만, 서비스 모델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웹 기반에서 모바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장했고, 단권 판매에서 대여제와 정액제 판매까지 운영되고 있다. 전자책 제작, 검색, 구입, 읽기, 공유 등 전자책 기술과 기반 구조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자책 이용 독자들은 2030세대가 중심을 이루면서 세대별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에 웹 뷰어나 이잉크(e-ink)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전용 디바이스를 이용하던 독자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여전히 종이책이 있는 단행본 전자책이 주로 판매되지만, 디지털 온리(Digital Only)형 전자책과 웹소설, 전자 잡지 등 전자출판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도 급성장하고 있다.

## 1. 국내 전자책 서비스 형태

일반적으로 전자책 서비스 모델은 크게 B2C(Business to Consumer), B2B(Business to Business), B2BC(Business to Business-Consumer)로 구분된다. B2C는 이용자가 직접 전자책을 선택하고 결제 후 다운로드하는 방식이고, B2B는 디지털도서관 형태로 해당 도서관에서 특정 전자책 회사와 카피(Copy) 단위로 구입한 전자책을 회원들이 대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B2BC는 B2C 스토어가 다른 플랫폼에 입점하는 형태로, B2C와 유사한 방식이다. 결제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단권 판매와 구독형 정액제(Subscription) 판매로 구분된다. 이미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 시장에서 일반화된 구독형 정액제 판매 모델이 전자책 시장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아마존 킨들 언리미티드(Kindle Unlimited), 넷플릭스(Netflix), 스포티파이(Spotify) 등 구독형 정액제 모델이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서는 교보문고 샘(sam), 리디북스의 리디셀렉트(RIDI Select), 밀리의 서재, YES24 북클럽이 월 회비를 내면 기간 내 무제한으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서비스 방식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보자. B2C 단권 판매는 출판사(또는 저자)가 유통사(플랫폼)에 판매 계약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건별로 판매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자책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은 홀세일(Wholesale) 모델과 에이전시(Agency) 모델이 있다. 홀세일 모델은 출판사에서 콘텐츠 공급가를 정해서 유통사에 전달하면 적정 마진을 붙여서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에이전시 모델은 최종 판매가를 출판사가 직접 결정하고, 유통사는 기본 수수료(통상 판매가의 30%)만 공제하는 방식이다. 구독형 정액제 판매의 경우는 회원의 유료 회비 중 전체 출판사의 몫을 정하고 여기에서 다운로드된 콘텐츠의 비율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외에도 특정 횟수만큼 이용하면 유통사가 재구입을 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하는 방식과 페이지마다 과금해서 이를 출판사의 몫에서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모델도 있다. 구독형 정액제 모델은 이용자들의 회비를 기반으로 수익 배분

의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통사별로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어떤 유통사의 모델이 자사에 유리할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출판사(또는 저자)의 결정에 달려있다.

국내 B2B 서비스 모델은 해외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출판사가 아닌 유통사와 도서관의 계약과 운영 중심으로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도서관의 전자책 계약 방식은 첫째, 도서관에서 전자책 유통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책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Perpetual Access Right)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종이책 장서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한번 구매에 영구적인 접근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이 일정 기간 동안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구매하는 구독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도서관을 구독할 수 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독 갱신 비용을 추가해야 함으로 도서관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방식이다. 셋째, 이용자 후원(Patron Driven Acquisition) 방식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전자책 목록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를 검색해서 필요한 전자책을 볼 수 있다. 이때 도서관은 해당 도서에 대한 접근 비용과 이용된 전자책에 비용을 지불한다. 넷째, 단기 대여(Short-term Loan) 요금제는 전자책을 구매하지 않고 전자책의 대여 횟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예산 등의 문제로 전자책을 구매하기 힘든 도서관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방법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제방식(Pay-per-view)을 들 수 있는데 전자책을 이용한 횟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한다. 2000년대부터 활성화된 디지털도서관의 경우, 유통사와 도서관 간 라이선스(Licence) 계약은 대부분 영구 소유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다. 시스템 구축 비용을 별도로 받거나 콘텐츠 구입 비용에 일정치를 더해서 일괄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도서관이 선택할 수 있는 전자책 구매 옵션은 B2C 시장에 비해 제한적인 구색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예산이 한정적인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전자책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원하고, 출판사나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저작권법상의 문제와 맞물려 다양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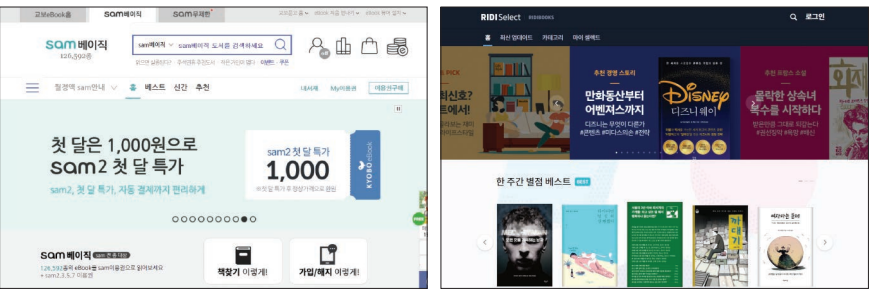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콘텐츠 시장을 좌우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고 저렴한 비용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전자책 과금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음원과 비디오 콘텐츠 시장과 비슷하게 전자책에도 구독형 정액제 서비스가 도입되는 것은 시대 상황의 반영을 의미한다. 국내에도 월 1만 원이 안 되는 회비로 무제한 전자책 독서가 가능해지면서 책을 고르는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독자가 많이 선택하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은 베스트셀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그만큼 좀 더 개인의 취향에 맞는 도서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

2019년 5월, 교보문고의 가세로 전자책 월 구독형 정액제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10여 년 동안 전자책 출판 시장이 연평균 3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의 밀리의 서재, 리디북스, 예스24 등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보문고는 한 달에 9,900원을 결제하면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월정액 서비스 ‘sam무제한’을 출시했다. 교보문고는 13만 권의 전자책 중 이용권 종류에 따라 2권에서 12권까지 이용할 수 있는 ‘sam베이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sam무제한’은 비슷한 같은 금액을 내고도 4만 6,000여 권의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스테디셀러와 최신간을 선보여 선발 주자들에 대한 차별화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sam 회원이 36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시장 판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교보문고의 전자책 구독 서비스 샘(sam) 그림 2. 리디북스가 운영하는 리디셀렉트



출처 : 교보문고

출처 : 리디북스

그림 3. 밀리의 서재

그림 4. YES24가 운영하는 YES24 북클럽



출처 : 밀리의 서재

출처 : YES24

2017년 10월, 업계에서 가장 먼저 월 구독형 정액제 서비스를 선보인 밀리의 서재는 지난해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이병헌과 변요한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효과를 봤다. 2018년 11월 TV 광고 이후 회원 수가 크게 늘면서 70만 명 정도 확보되었다고 발표했다. 독자들은 월 9,900원을 내면 3만 권의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리디북스의 리디셀렉트는 월 6,500원에 평점 4.0 이상을 받아 검증된 양서 3,000여 권을 무제한 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예스24는 2018년 11월, 월 5,500원의 55요금제와 월 7,700원의 77요금제를 선택하면 2만 권을 읽을 수 있는 YES24 북클럽 서비스를 출시했다. 한편, 월 구독형 정액제 무제한 서비스가 저렴하게 다수의 책을 읽게 함으로써 새로운 독자 발굴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저렴한 비용이 독자들에게

전자책을 저가로 오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전자책의 품질 악화, 독서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표 1. 유통사별 전자책 월정액 무제한 서비스 현황

	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YES24
서비스명	sam무제한	리디셀렉트	밀리의 서재	YES24 북클럽
서비스 출시	2019년 2월	2018년 7월	2018년 7월 (무제한 서비스 출시일)	2018년 11월
콘텐츠 종수	42,000권 (19.4 기준)	3,336권 (19.4 기준)	30,000권 (19.3 기준)	20,000권 (19.3 기준)
요금제	9,900원	6,500원	9,900원	55요금제(5,500원) 77요금제(7,700원)
결제 방식	카드 월 자동 결제, 휴대폰 월 자동 결제	카드 월 자동 결제	카드 월 자동 결제, 카카오페이 자동 결제	카드 월 자동 결제
동시 접속 기기 수	5대	5대 (페이퍼 단말기 포함 6대)	3대	5대
프로모션	첫달 무료 후 3개월간 6,500원	첫달 무료	첫달 무료	첫달 무료 / 첫달 무료 + 첫달 1,500원 북클럽 머니, 매달 4,500원 북클럽 머니 증정

출처 : 한국출판인회의

## 2. 국내 전자책 이용자 종합 분석

국내 전자책 이용자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는 〈국민독서실태조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하는 〈출판산업 결산과 전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 유통사별로 반기·연간 해당 회원 분석 데이터를 발표하는 사례까지 더해지면 보다 종합적인 이용자 분석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2월에 발표한 〈2017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전자책 독서율은 성인 14.1%, 학생 29.8%로 성인과 학생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 1년(2016년 10월~2017년 9월) 동안 전자책(교과서, 참고서, 수험서, 잡지, 웹툰을 제외한 일반도서)을 ‘한 권 이상 읽었다’는 성인의 비율은 14.1%로, 전자책 독서인구 비율은 2015년(10.2%) 대비 3.9% 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웹소설의 대중적 확산(특히 포털 사이트의 무료 서비스 이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학생의 전자책 독서율은 29.8%(초 34.1%, 중 30.0%, 고 26.5%)이며, 2015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의 전자책 독서율이 가장 높다. 학생의 전자책 독서율 역시 지난 2015년(27.1%) 대비 2.7% 포인트 증가했다.

연간 전자책 독서량은 성인 1.1권으로 2년 전보다 0.4권 증가, 학생은 5.7권으로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자책 비독서자를 포함한 만 19세 이상 성인의 지난 1년간(2016년 10월~2017년 9월) 전자책 독서량은 연평균 1.1권으로 지난 2015년(0.7권)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준이며, 전자책 독서자를 기준으로 한 독서량 역시 연평균 7.9권으로 2015년(7.2권)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18~29세는 2.7권, 30대는 1.9권, 40대는 0.9권, 50대는 0.4권, 60대 이상은 0.2권의 전자책을 읽었다.

학생의 경우 전자책 비독서자를 포함한 연평균 독서량은 5.7권으로 지난 2015년(5.8권)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전자책 독서량은 초등학교 8.7권, 중학생 5.4권, 고등학생 3.7권으로 종이책 독서량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2019년 교보문고 상반기 전자책 베스트셀러 분석〉에 따르면, 중

이책 시장에 비해 작은 규모지만 전자책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BL(Boy Love), 로맨스(Romance) 분야에서 신규로 유입되는 전자책 독서 인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무제한 구독형 서비스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젊은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유통사가 직접 저자나 에이전시와 독점 계약을 하고 연재나 출간을 하면서 독점 작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로맨스·판타지·무협이 중심인 장르소설 분야는 전자책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교보문고 2019 상반기 전자책 베스트셀러 분야별 동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일반 분야는 아마구치 슈의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아마구치 슈 지음)』가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전자책 분야에서도 인문 분야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인문 분야가 종합 100위에 22종이나 차지했다. 단행본 대여 기간이 최장 90일로 줄어들면서 대여보다는 소장 가치가 높고 깊이 있는 독서를 위해 인문 분야가 각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전 한정판으로 유명한 올재 클래식스 도서도 저렴한 가격과 희소성이 더해져 소장 가치를 높였다. 종이책에서 리커버, 기념 에디션 출간으로 독자들에게 새롭게 관심을 받는데, 전자책 부문에서도 그 영향이 전해져서 다시 순위에 진입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의 리커버가 단순히 외형 변화뿐만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야나두 영어회화(원예나 지음)』가 분야 11위에 오르며 외국어 분야에서 원어민 발음, 문제 풀이, 강의 등 여러 내용을 수록할 수 있는 멀티 전자책에 효과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하는 멀티미디어 전자책 출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극화, 발췌, 요약 등을 활용해서 직접 성우가 읽어주는 오디오북 시장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유통사마다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외에도 유통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미 출간된 책을 전자책 환경에 맞게 편집, 기획을 재편하면서 독자들의 독서 편의성을 높이기도 했다. 출판된 책을 유통하는 서점의 역할에 전자책 시장에서는 편집 역량까지 더해지고 있다.

표2. 교보문고 2019 상반기 전자책 베스트셀러 일반 분야 Top 25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아마구치 슈	다산초당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헤민 스님	수오서재
3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비즈니스북스
4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홍춘욱	로크미디어
5	아가씨와 밤	기욤 뮈소	밝은세상
6	12가지 인생의 법칙	조던 B. 피터슨	메이븐
7	말센스	셀레스트 헤들리	스몰빅라이프
8	봉제인형 살인사건	다니엘 콜	북플라자
9	올재클래식스 문사철 필독서 세트	증선지 외	올재클래식스
10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웨일북
11	야나두 영어회화(멀티eBook)	원예나	라곰
12	팩트폴니스	한스 로슬링	김영사
13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민음사
14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합니다	박소연	더퀘스트
15	돌이킬 수 없는 약속	아쿠마루 가쿠	북플라자
16	나는 습관을 조금 바꾸기로 했다	사사키 후미오	쌤앤파커스
17	걷는 사람, 하정우	하정우	문학동네
18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마음의숲
19	트렌드 코리아 2019	김난도	미래의창
20	주역	미상	올재클래식스
21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김영사
22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	로버트 기요사키	민음인
23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류쉬안	다연

24	당신이 옳다	정혜신	해냄출판사
25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출처 : <교보문고 2019 상반기 전자책 베스트셀러 분야별 동향>

둘째, 로맨스·BL 분야는 전년 대비 56.6% 상승하며 매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다. 베스트셀러를 살펴보면 시리즈보다는 단권 작품의 인기가 눈에 띄었는데, 빠른 전개와 흡입력이 강한 이야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도를 갖춘 베스트셀러 작가의 작품이 인기몰이가 고착화 되면서 베스트셀러 순위의 움직임도 둔한 편이다. 단독 선(先) 출간과 프로모션에 따라 독자의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유통사별 경쟁이 치열하다. BL 분야는 성장세가 뚜렷하고, 소비하는 독자들의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막강하여 타 분야에 비해 입소문이 빠르고 영향력이 큰 편이다. 독점 제공하는 유통사에 대한쏠림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표 3. 교보문고 2019 상반기 전자책 베스트셀러 로맨스 분야 Top 10

순위	작품명	작가명	출판사
1	선생님, 여자친구 예쁘네요	츄츄	가하
2	분홍색	7월	로망로즈
3	서방님	마농	힙
4	씹어 먹다	은밀	로망로즈
5	받아들이는 체질	계바비	체온
6	밤손님	마농	텐북
7	냉궁 황후	마농	라떼북
8	늑대가 짖다	마농	러브홀릭
9	강탈당한 초야	마농	힙
10	특별한 의뢰인 1	오수진	R

출처 : <교보문고 2019 상반기 전자책 베스트셀러 분야별 동향>



표 4. 교보문고 2019 상반기 전자책 베스트셀러 BL 분야 Top 10

순위	작품명	작가명	출판사
1	Bad Bluff(배드 블러프)	키에	W-Beast
2	맨해튼 로맨스	칠밤	시크노블
3	HUA	쇼시랑	블루코드
4	도둑들	장목단	비하인드
5	슬립워커(Sleepwalker)	체리사이다	시크노블
6	손쉽게 소드마스터가 되는 방법	JaneM	필연매니지먼트
7	섹시 산타 카리스마(Sexy Santa Charisma)	장목단	비온드
8	확정적 고의에 의한 연애사	우주토깽	비온드
9	Nights	someone	프리즘
10	스틸 어웨이(Steal away)	해이라	블루코드

출처 : <교보문고 2019 상반기 전자책 베스트셀러 분야별 동향>

셋째, 만화·판타지·무협 분야는 미디어셀러(Media Seller)가 인기를 얻었고,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에디션이 눈길을 끌었다. 만화 분야의 판매 권수는 전년 대비 2.1배 상승하며 판매 상승이 가장 눈에 띈 분야였다. 이용 독자 수도 23.1% 신장하며 전자책에서도 주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단독 프로모션 효과로 인기 콘텐츠 『오! 나의 여신님(Kosuke Fujishima 지음)』, 『열혈강호(전국진, 양재현 지음)』가 판매를 견인했고, BL만화의 성장세가 돋보였다.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며 큰 인기를 끈 『약속의 네버랜드(Kaiu Shirai, Posuka Demizu 지음)』가 스테디셀러 만화를 제치고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완전판, 신장판, 애장판이 연이어 전자책으로 출시되면서 사랑을 받았다. 판타지·무협 분야는 기존 베스트셀러의 연결되는 시리즈를 선호하는 40~50대 독자와 신간으로 완결되는 도서를 선호하는 20~30대 독자들로 양극화됐다. 라

이트노벨과 판타지의 경계를 허문 콘텐츠 출간이 줄을 잇고, 일러스트 위주 혹은 애니메이션 방영작을 위주로 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5. 교보문고 2019 상반기 전자책 베스트셀러 판타지·무협 분야 Top 10

순위	작품명	작가명	출판사
1	나 혼자만 레벨 업	추공	파피루스
2	달빛조각사	남희성	인타임
3	묵향	전동조	스카이미디어
4	무적호위	장담	라인북스(주)
5	무한의 마법사	김치우	로크미디어
6	나노 마신(喇勞 魔神)	한중월야	문피아(주)
7	8서클 마법사의 환생	자리	로크미디어
8	학사신공	왕위	케이오씨엠(주)
9	그레이트 써전	설화객잔-수수림	마야마루출판사(주)
10	만렙 플레이어	비쭈	케이더블유크스(주)

출처 : <교보문고 2019 상반기 전자책 베스트셀러 분야별 동향>

리디북스는 2018년 하반기 <리디셀렉트를 통해 본 대한민국 독서 트렌드>를 발표했다. 리디셀렉트는 『공포(밥 우드워드 지음)』, 『골든아워(이국종 지음)』 등 화제 신간을 확보하고 사용자 경험을 꾸준히 향상시켰다. 매달 일정액만을 결제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점은 독서량 증진에 기여했으며, 그것을 통해 사용자들의 솔직한 선호도를 잘 알 수 있다. 리디셀렉트 도서 일수 Top 10 도서 목록은 일반적인 베스트셀러 목록과는 다르게, 리디셀렉트 유료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도서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2018년 하반기에는 리디셀렉트가 확보한 화제 신간인 『골든아워』, 『비커밍(미셸 오바마 지음)』, 『12가

지 인생의 법칙(조던 B. 피터슨 지음), 『검사내전(김웅 지음)』 등 유익한 교양 지식 또는 자기계발 인사이트를 흥미롭게 풀어낸 도서가 인기를 끌었다. 리디선택트에서 가장 자주 검색된 키워드 톱10도 20~40대 직장인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실용적인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글쓰기, 트렌드 등 자기계발 관련 키워드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키워드(주식, 부동산, 경매)가 눈에 띈다. 2018년 하반기 리디선택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작가는 일본 추리소설가 히가시노 게이고였다. 『브루투스'의 심장』, 『게임의 이름은 유괴』 등의 작품이 상당한 관심을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히가시노 게이고 외에도 해외 작가들로는 무라카미 하루키, 베르나르 베르베르, 기욤 뫼소 등 유명 소설가들이 가장 많이 검색된 작가들로 이름을 올렸다.

표 6. 리디선택트 독서일수 Top 10

순위	도서명	카테고리
1	골든아워1	에세이, 시
2	죽여 마땅한 사람들	소설
3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에세이, 시
4	비커밍	인문, 사회, 역사
5	검사내전	인문, 사회, 역사
6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	소설
7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인문, 사회, 역사
8	12가지 인생의 법칙	인문, 사회, 역사
9	타인은 지옥이다	소설
10	골든아워2	에세이, 시

출처 : <리디선택트를 통해 본 2018년 하반기 대한민국 독서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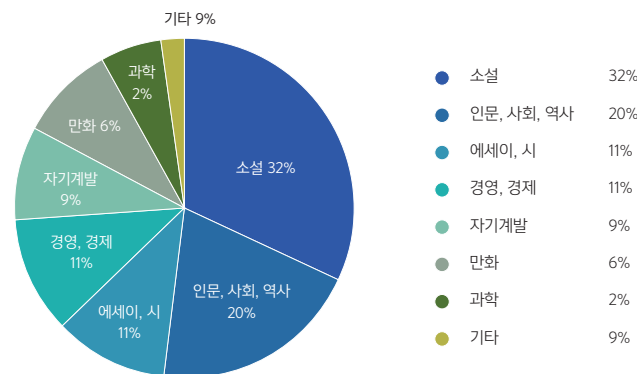
2018년 하반기 리디선택트 장르별 이용 비중 분석에 따르면, 소설의 비중이 32%로 가장 높다. 이어서 인문·사회·역사 분야가 20%를 차지했으며,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에세이·시와 자기계발서 및 경영·경제 서적 이용 비중도 각각 10% 내외로 기록됐다. 장르별 독서일수 톱5 도서 분석에 따르면 소설 분야 상위 3개 도서는 모두 추리·미스터리·스릴러 장르로, 탄탄한 줄거리를 갖춘 소설에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죽여 마땅한 사람들(피터 스완슨 지음)』,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데이비드 발다치 지음)』, 『타인은 지옥이다(비프 케 로렌츠 지음)』는 모두 리디북스의 콘텐츠 마케팅 채널인 ‘책 끝을 접다’를 통해 알려진 도서다. 인문·사회·역사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 최대 화제작인 미셸 오바마의 자서전 『비커밍』, 에세이·시 분야에서는 『골든아워』가 1위에 올랐다. 에세이·시 분야에서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트렌드가 맞물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백세희 지음)』도 높은 인기를 얻었으며, 경영·경제 및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직장인들의 꾸준한 관심사인 재테크와 직장 내 인간관계 등을 다룬 도서들이 많이 읽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도서 이용 분석에 따르면, 2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까지의 점유율이 총합 73%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서도 25세에서 39세까지의 독자층 점유율은 58%에 달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사이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를 중심으로 한 직장인들이 디지털 플랫폼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우, 연령대와 관계없이 선호하는 도서 장르가 소설, 인문·사회·역사, 에세이·시 순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도서 장르 순서가 다르게 분석된다. 30세 이상의 경우 인문·사회·역사 및 경영·경제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고, 30세 미만 남성들은 소설, 에세이·시에 대한 선호가 더 높다.

연령대별 가장 많이 읽힌 도서를 분석한 결과 『골든아워』가 2018년 최대 화제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커밍』, 『죽여 마땅한 사람들』, 『검사내전』도 전 연령대를 아울러 가장 많이 읽힌 도서로 분류됐다. 다만, 일상과 공감을 주제로 쓰인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가 20~30대 사이에서 주로 읽힌 도서였지만,

『12가지 인생의 법칙』은 40대 독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인기가 높았다. 리디셀렉트에 가입한 리디북스 고객들의 1개월간 독서량을 가입 전 1개월간 독서량과 비교 분석한 결과, 리디셀렉트에 가입한 고객들의 독서량이 약 2.4배(11월 기준 약 2.3배)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력적인 화제작을 무제한 제공하는 월 구독형 정액제 플랫폼에서 부담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리디셀렉트 도서 장르별 이용 비중



출처 : <리디셀렉트를 통해 본 2018년 하반기 대한민국 독서 트렌드>

2019년 4월 밀리의 서재가 발표한 서비스 이용 회원 현황 조사 결과, 가입 회원의 77%가 2030세대이며 62%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원 중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30대까지 포함한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리의 서재는 이를 토대로 주 이용층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평가했다. 밀리의 서재는 다수 이용자가 리딩북을 통해 먼저 책을 접하고, 내용이 마음에 들면 전자책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리딩북은 리더(Reader)가 책 한 권을 30분 내외로 요약해 읽어주는 서비스다. 현재 밀리의 서재 회원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리딩북은 배우 이병헌이 리더로 참여한 『이기적 유전자(리처드 도킨스 지음)』이다. 이어서 『사피엔스 사피엔스(유

발 하라리 지음)』, 『역사의 역사(유시민 지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하완 지음)』, 『트렌드 코리아 2019(김난도 지음)』 등이 차지했다. 최근 밀리의 서재는 오리지널 콘텐츠 ‘밀리 오리지널’을 출시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밀리 오리지널은 밀리의 서재에서 직접 기획, 제작, 서비스하는 독점 콘텐츠로 지난 2월 조남주 작가의 『봄날아빠를 아세요』를 첫 작품으로 선보였다.

### 3. 국내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국내에서 전자책이 산업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연결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출판기술이 접목되면서 수백여 개의 전자책 사업체가 등장했고, 전자책 도서관도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확산되었다. 2000년대 전자책 시장을 주도하던 북토피아의 파산, 교보문고와 YES24 등 기존 서점의 전자책 사업 추진, 포털사·통신사의 전자책 사업 추진 등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모바일 네트워크 발전 등 기존의 전자책 생태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아마존이 주도하는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전체 출판 시장에서 20~25%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국내 전자책 시장은 여전히 출판 시장의 3% 내외의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 전체 출판 시장의 정체·감소 현상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단행본 중심의 전자책 시장의 성장세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물론, 시장을 주도하는 사업자는 매년 10~20%대의 성장률을 보이지만, 전자책 전문 스타트업이 많이 사라지는 등 시장은 조용한 분위기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전자책 판매에 따른 종이책 판매 감소를 우려하는 출판사의 전자책 출간 방식, 플랫폼 사업자들의 중장기적인 사업 투자와 기술 개발 역량 미흡,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도서정가제)의 유연한 개선, 전자책 도서관 설립 및 지원 강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과 함께 해외 전자책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 여부에 따라 큰 변

화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저자와 출판사의 적극적인 태도와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 친화적인 기술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면, 국내 전자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종이책과 전자책의 동시 출간을 확대가 필요하다. 여전히 다수의 전자책 독자들은 단행본으로 출간된 콘텐츠를 선호한다. 출판사에서 생각하는 종이책과 전자책의 카니발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 자기잠식)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고 있지만, 종이책 출간 후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난 후에 전자책이 나오면 독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매년 5~6만 종 이상 신간이 출간되고 있는 국내 출판 시장의 현실을 감안하면, 신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 출간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전자책을 출간하는 것은 신간 마케팅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동시 출간율이 높으면, 단권 판매와 구독형 정액제 서비스 등 다양한 판매 모델을 활용할 수 있어서 신규 수익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둘째, 전자책 플랫폼의 기술적 고도화와 큐레이션(Curation) 강화가 필요하다. 국내 전자책 이용자들의 불만 요소 중에 뷰어와 각종 독서 지원 기능의 개선 사항이 있다. 아마존, 코보, 구글 등 글로벌 대형 플랫폼과의 기술 경쟁에서 간극이 많이 좁혀졌지만,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 투자는 필수적이다. 아마존은 전자책 뷰어에 전용 폰트를 지원하고, 조명 상태에 따라 최적화된 화면 조정 기능 등으로 독자들이 전자책 독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독자의 취향과 독서 이력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선별한 큐레이션은 전자책 서비스의 매력도를 증진시킨다. 국내 전자책 유통사는 베스트셀러와 마케터의 추천이 스토어의 중심을 차지한다. 일률적으로 보이는 이런 방식보다는 독자가 스토어에 들어올 때마다 추천되는 맞춤형 콘텐츠에 소구력(Appealing Power)이 더 높다. 소셜 미디어의 발전에 따라 ‘굿리즈(Goodreads)’와 같은 온라인 북클럽과 각종 커뮤니티의 책 추천을 전자책 스토어와 마케팅에 활용하는 아마존의 사례는 모범적이다.

그림 5. 세계 최대 온라인 북 커뮤니티 ‘굿리즈’



출처 : Goodreads

셋째,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확장을 위한 정책 개선과 예산 충원이 필요하다. 콘텐츠 산업이 온전하게 성장하려면 B2C와 B2B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국내 B2C 시장은 성장과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B2B 채널은 예산 규모에 따라 당해 연도의 사업 범위가 결정되는 만큼 예산 충원은 중요한 사안이다. 디지털도서관의 활성화는 전자책 이용자층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식문화의 공유 가치를 우선하는 도서관의 역할에 전자책은 시공간을 넘는 가치를 더하고 있다. 각종 엔터테인먼트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는 시대지만, 출판 시장에서는 다독하는 독자들이 더 많은 출판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그들이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편하게 경험한다면,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접점을 만들고 계기를 만드는 장소로 도서관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자책 도서관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의 확대 수급을 위한 예산 충원은 선결 과제다. 현행 전자책 계약 방식에 따른 소유권과 관외 서비스 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출판사와 유통사, 도서관 간에 합리적인 대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넷째, 출판 콘텐츠 확장과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종이책에서 전자책으로 출판 콘텐츠의 1차 변화는 이미 보편화되었다. 단순히 종이책을 디지



털화한 전자책에 머무르지 않고, 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st) 방식으로 출간되는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다. 콘텐츠를 보다 빠르게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전자책 관련 기술도 많이 발전했다. 대표적인 전자책 포맷인 EPUB도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기반의 전자책을 편리하게 제작하고, 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매력적인 출간 기획이 뒷받침된다면 전자책은 재고와 장서 공간, 유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 아마존 매치 서비스처럼 전자책은 종이책과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고, 종이책 페이지에 QR(Quick Response) 코드를 찍어 멀티미디어 독서로 확장시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오디오북도 전자책 뷰어의 TTS(Text To Speech) 기능을 활용해서 제작하거나 즉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출판 콘텐츠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세계 출판계는 북테크(BookTech) 시대에 접어들었다. 콘텐츠 관련 기술이 종이책 기획과 제작 기술에 결합되면서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스낵 컬처(Snack Culture)로 불리는 웹소설과 웹툰은 또 하나의 출판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 자유롭고 즉시적이며 무한 공유가 가능한 웹의 특성을 맞게 소설과 만화를 결합했기 때문에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친숙한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 시대에 맞게 전자책 시장에서 구독형 정액제 모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자책은 보다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이 요구된다. 도서정가제 적용에 따라 할인율이 제한되어 있지만, 구독형 정액제 모델 외에 종이책 또는 오디오북과 결합된 콘텐츠 마케팅과 북클럽 운영 등 전자책 서비스의 파격적인 도전이 필요하다.

#### 4. 전자책 시장을 통해서 본 도서관의 변화 방향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국내·외 전자책 이용자층은 밀레니얼 세대라고 불리는 20~30대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해외에도 큰 차이가 없는 현상으로 전

자책 이용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도서관의 주 이용자층이 주로 아동과 청소년, 노년층이 많은 편임을 감안하면, 전자책 도서관 활성화는 세대 전반에 걸쳐 도서관 이용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지면 실제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종이책 장서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 하지만, 도서관을 통해 전자책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해와 경험은 도서관에 대한 충성도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자책 시장을 통해서 본 도서관의 변화에 참고할 만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모델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과연 우리 도서관을 찾는 회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분야의 책을 원하는지 전자책 이용 데이터를 통하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서관에서 준비하는 각종 이벤트에 관심을 가질만한 회원들을 선별하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분야의 전자책을 월 2~3회 이상 이용한 회원이라면 구연동화 행사, 동화 작가 강연회 등에 관심이 더 많을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서 오프라인 방문을 유도하는 강력한 접점을 도서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전자책 유통사들의 베스트셀러 집계처럼 전자책 대출과 완독율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도서관에서도 집계와 발표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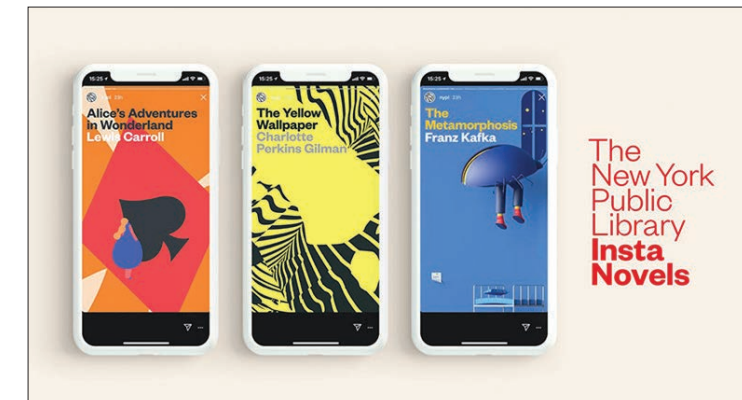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모델은 이용자들의 세대와 관심사별로 맞춤형 큐레이션에 든든한 기반이 된다. 사용자 관점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취향, 이용 내역 등을 근거로 한 콘텐츠를 보여준다면 지속적으로 찾게 된다. 따라서, 종이책에서 전자책, 오디오북 등 포맷을 확장해서 도서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알고리즘화할 것인지 등 큰 그림이 필요하다. 이는 단일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 또는 전국 단위로 정책 수립과 실행 방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마존, 오버드라이브, 교보문고, 리디북스 등 국내·외 주요 전자책 사업자들의 전략을 벤치마킹하면 의미 있는 대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둘째, 소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스마트 디바이스에 친숙한 전자책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

선을 선호한다. 전자책을 전용 이리더(E-Reader)로 사용하는 독자들이 많지만, 대부분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는 전자책 관련 정보와 도서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력적인 채널이다. 최근 국내·외 전자책 이용자들이 출간 소식을 접하거나 구매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채널로 소셜 미디어와 지인을 통한 추천을 선택했다. 출판사와 서점의 광고와 추천 방식에 의존하던 도서 선택은 갈수록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도서관도 보다 적극적인 도서 추천을 위해서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에 관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미 많은 도서관에서 소셜 미디어 계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설 자체에 의미를 두고, 미숙하게 운영하거나 지속성이 떨어지는 곳도 다수 확인된다. 신간과 양서 추천, 도서관 홍보를 중심으로 하되, 가볍고 통통 튀는 메시지를 글과 사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도서관이 주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개선하고 이용자와의 끈끈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소셜 미디어는 가성비 높은 채널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공공도서관(The New York Public Library)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스타노블(Insta Novels)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첫 작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루이스 캐럴 지음)』를 선보인 인스타노블은 광고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 '머더 뉴욕(Mother New York)'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뉴욕공공도서관의 인스타그램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인스타노블은 기술적으로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활용했다.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전체 화면을 이용할 수 있고, 스토리 텍스트와 사운드가 함께 재생되어 몰입도가 높은 방식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서비스 초기 이용자가 4만 명이 넘었고, 인스타노블로 인해 뉴욕공공도서관의 인스타그램은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겼을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고전 소설과 소셜 미디어가 결합한 인스타노블은 도서관이 선보이는 전자책의 전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림 6. 뉴욕공공도서관의 인스타노블



출처 : 뉴욕공공도서관 누리집

셋째, 도서관은 전자책과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했다. 텍스트 중심의 전자책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및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과 연결되어 AR북과 VR북으로 확장되고 있다. 셀프 퍼블리싱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글을 쓰고,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드물고, 일정 수준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지역 사회에서 지식 교육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은 최적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다. 전자책 유통사 또는 북테크 기업, 관련 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도서관 내 공간을 마련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이다.

그리고, 창작 교육 프로그램 공간으로 도서관은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다. 책을 쓰고 싶은 창작자들을 위해 분야별 글쓰기 교육, 웹소설과 웹툰 창작 교육 등 전문가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창작자들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삼아 책을 읽고 창작 활동을 병행하면 질적·양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일정 수준 작품성이 있는지 여부를 도서관 이용자

들에게 미리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도 좋은 방법이다. 창작물 제작에 비용이 부족하다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금하고, 완성된 콘텐츠는 도서관이 홍보 채널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면, 도서관에서만 볼 수 있는 출판 콘텐츠를 만들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전자책 시장은 성장 잠재력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수의 전자책과 콘텐츠 관련 회사는 계속해서 외부 투자를 받는 중이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곳도 있다. 단권 판매 방식에서 구독형 정액제 판매 방식으로 이용자의 선택지를 확장하고 있다. 웹소설과 웹툰의 급성장은 출판 콘텐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있다.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플랫폼의 기술 발전은 창작자와 이용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콘텐츠의 검색과 이용, 공유 기능을 종합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전자책 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기에 있다.

그러나, 시장의 발전과는 다른 측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계속 나오고 있다. 세계 전자책 시장을 주도하는 북미지역은 전자책 성장률이 감소되고 있고, 유럽은 과도한 전자책 부가세율의 조정이 화두에 올라있다. 국내도 전자책 도서정가제와 장기 대여 모델의 적법성, 도서관의 전자책 계약 시 콘텐츠 소유권 관련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단번에 정리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풀리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현장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창작자와 이용자, 유통사가 합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가 전자책 이용자의 주류로 등장한 만큼 도서관도 이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대다. 밀레니얼 세대는 이미 전 세계 인구 30%를 넘었고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모바일과 스마트 디바이스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다.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세대로 인식되지만, 접근을 다르게 한다면 충분한 반등이 가능한 세대일 수도 있다. 이들은 구독 경제 모델에 익숙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입소문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추천에 빠르게 반응한다.

민간의 전자책 관련 사업자들은 도서관과 보다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추진해야 한다. 공간적 가치로서의 도서관의 강점을 활용하고, 이용자들을 자사의 고객이라는 마음으로 콘텐츠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도서관도 전자책 대출 반납 시스템 구축에 만족하지 말고, 기존의 도서관 이용자층을 폭넓게 만들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서관마다 인적 자원과 사용 가능한 예산 등 여러 제한 요소가 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멀리 보고 움직인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전자책을 중심으로 한 출판 콘텐츠 시장의 동향에 주목하고, 다양한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도서관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국내외 현황  
**전자책 산업의**  
**국내외 현황과 제도**

이중호

한국출판콘텐츠 대표



산업화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은 출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벌어진 출판 시장의 변화와 혼란으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러한 변화는 출판 산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논의와 토론의 장을 형성시켰다. 전 세계 출판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단순히 기존 출판 콘텐츠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출판 공정, 유통 채널, 콘텐츠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등을 크게 바꿔놓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에게 위기와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열어주고 있다.

전자책을 주제로 한 『도서관』 393호에서 필자는 최근 국내외 전자책 산업 현황과 이슈를 설명하고 해외 각국의 전자책 도서관제와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모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1. 국내 전자책 산업 현황과 제도

### 1) 국내 전자책 시장 현황

최근 5년간 국내 전자책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해 왔으며 디지털 독서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자 경험(UX)도 크게 개선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리디북스가 전자책서점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 메이저 온라인 서점도 전자책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대여 및 세트 판매 등을 활성화하면서 리디북스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전자책에도 도서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가격 할인 외에 다른 서비스로 경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책 장기대여(10년~50년) 서비스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정가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여겨지면서 업계의 자율 협약에 따라 서비스가 중

지된 상태이다.

2018년부터 도서관제하에서 전자책 서비스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고, 디지털 콘텐츠의 구독 경제(Subscription Economy) 트렌드가 맞아떨어지면서 ‘밀리의 서재’가 등장했다. 리디 셀렉트, 예스24 북클럽 등 무제한 구독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헤비리더(Heavy Reader)의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아마존 킨들(Kindle)의 구독 서비스 회원 수는 현재 수백만 명에 달하고 최근 스크리브드(Scribd)라는 전자책 구독 플랫폼은 회원 수가 1백만 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50만 종 이상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해외 유통사와 달리 현재 약 6천 종~2만 종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국내 전자책 구독 서비스가 해외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2)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

국내에는 전자출판 시장과 관련한 통계 및 데이터 분석 자료를 산출하고 발표하는 기관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분석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출판산업실태조사’와 전자책 서점과 유통사의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2015년~2017년 국내 전자책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2016 출판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30% 이상 성장하면서 2015년 전자책 시장 규모는 1,5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장르문학(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의 비중이 40%대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일반 분야(27.9%), 웹소설(26.5%)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장르문학 대신 웹소설이 가파른 성장세(72.9%)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국내 약 700여 출판사 전자책 유통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출판콘텐츠(KPC)가 2016년~2017년 국내 전자책서점과 유통사의 공시자료와 각 유통사의 점유율을 계산하여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일반 단행본 전자책 시장 규모는 약 1,400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여기에 2017년 전자책 유통사의 평균 성장률 약 30%를 반영하여 2017년 시장 규모를 1,820억 원으로 추정했다.

또한 한국출판콘텐츠는 카카오, 문피아, 조아라 등 메이저 웹소설 플랫폼의 공시자료와 자체 보도자료, 그리고 주요 웹소설 출판사 및 에이전시를 통해 확인한 네이버, 윈스토어, 북팔 등의 매출 점유율을 근거로 2016년 웹소설 시장 규모를 1,550억 원으로 추정했으며, 2017년 매출 증가율 약 50%로 계산하여 2017년 웹소설 시장 규모를 약 2,325억 원으로 산정했다.

### 3) 국내 전자출판유통 선진화 과제

국내 출판계와 여러 전자출판 전문가들은 독자 중심 전자책 생태계 조성 및 수요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① 전자책 유통 질서 확립과 함께 디지털 독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도서정가제 등 법제도 개선, ② 전자책 이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 호환성 확보, ③ 전자책 발견성과 유통 선진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화 등을 국내 전자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제시해 왔다.

#### 가) 전자책 도서정가제

전 세계적으로 도서정가제는 출판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공정한 가격 경쟁을 위해 도서유통사(서점)에 출판사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이 법률로 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자책이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에 노출되어 있던 소비자들은 전자책의 가격이 인상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유통사는 도서정가제로 인해 할인 프로모션이 불가능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기 대여 등의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기존 소비자들과 신규 소비자들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물론 국내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종이책 판매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책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면도 있겠지만, 도서정가제가 전자책에도 적용되는 국내 독자 입장에서는 전자책이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많은 국내 전자책 서점들은 디지털 독자 확보를 위해 정가제를 피해 할인 판

매할 수 있는 ‘10년 이상 장기 대여’라는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판매 방식을 채택했던 적이 있으며, 출판사로부터 장기 대여 명목으로 전자책 매절구매까지 요구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따라서 국내 전자책 유통 질서 확립과 유통 환경을 고려할 때 전자책 도서정가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자책은 종이책보다는 좀 더 유연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자책은 한계비용(재생산비용)이 ‘0’인 상품이며, 종이책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중고책으로 판매할 수 없다. 즉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도서정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처럼 출판사가 원하면 신간과 구간 모두 기간(18개월) 한정 없이 언제든지 재정가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 전자책 공용 DRM 필요성(B2C or B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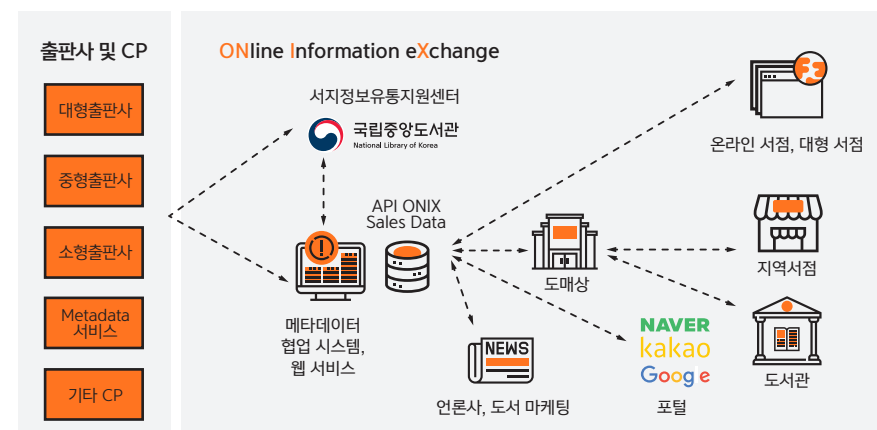
전자책 DRM 솔루션은 국내 전자책 산업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이슈이지만 아직도 유통사마다 자체적인 DRM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유통사의 전자책 뷰어에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용 DRM을 개발하여 적용하거나 기존 DRM을 호환시켜야 된다. 하지만 필자 견해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별 독자에게 판매하는 B2C 판매에 있어서는 DRM 공용화나 호환성 확보의 요구가 점점 명분을 잃어가고 있다. 다만 도서관이나 기업에서 서비스하는 전자책의 경우는 DRM 공용화의 필요성과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B2B(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경우, 도서관에 공급 되는 전자책 목록이 각 공급사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별 DRM을 적용한다면,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4~6개 유통사의 전자도서관시스템이 설치되어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은 독자도 4~6개의 뷰어를 설치하고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책을 대출해 주는 국내 도서관은 DRM 공용화와 통합 전자책 뷰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작권위원회 지원으로 개발된 국가표준

(KS) DRM을 활용하여, 우선 국가표준을 적용할 수 있는 국공립 도서관부터 전자책 DRM을 통합하자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운영 효율화는 물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성도 향상시키고 유통사와 출판사의 도서관 전자책 공급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다) 전자책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공유화

전 세계적으로 출판산업계는 책의 발견성이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면서 콘텐츠와 함께 콘텍스트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메타데이터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출판사, 유통사, 서점이 모두 메타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공유하고 동시에 독자들에게 다양한 도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표준 및 협업시스템)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래 <그림1>과 같이 2년 전에 정부 지원으로 출판사, 서점, 국립중앙도서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국제표준 기반의 메타데이터 표준화와 전자책 유통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9년 말까지 구축되는 ‘출판유통통합시스템’으로 통할될 예정이다. 출판사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해 전자책 ISBN 신청과 CIP 작업을 위해 메타데이터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요 전자책유통사의 CMS에 전달되어 독자들에게 전자책에 대한 다양한 서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등은 이미 메타데이터 공유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림 1. 전자책 메타데이터 협업시스템 개념도



## 4) 전자책에 관련된 국내 법제도

### 가) 전자출판물(전자책) 도서정가제

국내 현행 법률 중에서 ‘전자책’을 별도로 정의한 법률은 찾아보기 어렵다. 몇몇 법률에서는 ‘전자출판물’을 정의하거나 언급하고 있는바, ‘전자책’은 이 ‘전자출판물’에 속하는 여러 유형 중의 하나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는 ‘전자출판물’을 정의하면서 대표적으로 ‘전자책’을 예시하고 있다. 또한 ‘전자출판물’은 제3호에서 정의한 ‘간행물’의 특수한 형태임을 명시하고 있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전자출판물(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는 도서정가제가 법제화된 2003년 2월 27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를 제1기, 전자출판물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 7월 27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를 제2기, 도서정가제의 적용 범위가 확대 강화된 2014년 11월 21일부터 현재까지를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 나) 종이책과 전자책 도서정가제의 비교

우리나라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므로, 내용 범위, 재정가 대상, 할인 범위, 위반 시 과태료에서 차이가 없지만, 그밖의 분야에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출판사가 발행한 전자책만 전자출판물로 인정하여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출판사 이외의 사업체가 발행한 전자책은 도서정가

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둘째, 종이책의 경우에 출판사가 표지에 정가를 표시해야 하지만, 전자책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정가를 명기하고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 정가를 판매 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셋째, 재판매의 목적이 아닌 독서,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서 다시 판매하는 중고책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전자책을 중고로 재판매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sup>1</sup>

### 다) 부가가치세법과 전자책의 부가세 면세

문화체육관광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표1>과 같이 개정 고시했다.

표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구 분	내 용
가. 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단, 외국 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3항(외국 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 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 다만, 외국 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sup>1</sup> 우리나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다. 독일 함부르크 고등법원은 다운로드한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재판매 금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5.3.24.). 한국저작권위원회(2015.04.30.), 「저작권 동향」 제2015-6호 참조

### 라) 전자책과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2조(정의) 중 전자책, 전자출판과 관련된 핵심 용어는 ‘복제’와 ‘전송’이다. 출판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저작권자의 7가지 저작권 가운데 주로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이 관계된다. 종이 출판물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복제·배포에 대한 권리를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로부터 단순히 복제·배포권 이용 허락을 받는 방법과 출판권 설정을 받는 방법이 주로 쓰이며, 복제·배포권(또는 그 이상의 권리를 포함하여)을 양도받는 방법도 있다. 전자출판물의 출판은 유형의 전자출판물(CD, DVD, USB 등 전자적 매체에 기록한 패키지 출판물)과 무형의 출판물(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중에게 전송하는 것)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형의 전자출판물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복제·배포에 대한 권리를 얻어야 하고, 무형의 전자출판물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복제·전송에 대한 권리를 얻어야 한다. 출판계에서 널리 쓰이는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을 하면, 유형의 전자출판물과 무형의 전자출판물 모두를 발행할 수 있다.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에 배포권과 함께 대여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저작자에게 저작권법상의 ‘대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2. 해외 전자책 산업 현황과 제도

### 1) 해외 주요 국가별 전자책 시장 현황

#### 가) 미국의 전자책 시장 현황

미국출판협회(AAP)가 매월 발표하는 출판 시장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1.7% 상승한 124억 4,000만 달러로 이 중 단행본은 1.6% 상승한 61억 3,150억 달러로 발표되었다. 도서 형태별 매출 규모를 살펴보면 성장을 주도한 도서 형태는 양장본(Hardback)과 다운로드 방식의 오디오북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2%와 27.9% 상승했고, 오디오북



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자책은 전년 동기 대비 5.5% 하락해 9억 7,890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2016년 16.2% 점유율에서 2017년 15.1% 점유율로 하락했다. 2007년 아마존이 킨들을 출시한 이후, 급성장한 미국의 전자책 시장은 아마존이 약 80% 내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로 애플의 아이북스(iBooks), 코보(Kobo), 반즈앤노블의 누크(Nook), 구글플레이북스(Google Playbooks) 등의 순서로 소비자 유통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의 전자책 시장 점유율은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자책 시장인 미국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독점한 아마존 킨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는 다른 국가의 전자책 시장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나) 영국의 전자책 시장 현황

영국출판협회(PA)가 발행하는 출판통계연감(PA Statistics Yearbook)에 따르면 저널을 포함한 전체 출판 시장 중 디지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5%로 전년 대비 6% 상승하여 17억 파운드를 차지했다. 하지만 저널을 제외한 도서 분야의 디지털 매출만 별도로 보면 5억 3,8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3% 하락하였다. 여기서 디지털 매출이란 전자책,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 기타 디지털 형태의 모든 콘텐츠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한다. 국내 시장과 비교하여 일반 단행본 시장과 유사한 개념의 소비자 전자책 시장은 2억 400만 파운드로 전년 대비 17%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영국의 더북셀러(The Bookseller)가 영국 빅5 출판사의 판매 실적 발표 자료 등을 종합하여 2017년 영국의 전자책 시장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매출 규모가 전년 대비 약 0.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글로벌 출판사이면서 영국과 미국에서 빅5로 통칭되는 주요 출판사의 분기별 실적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디지털 판매 실적은 4,620만 부로 전년 대비 1.2% 상승하여 3년 연속 지속된 하락세가 멈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더북셀러는 영국의 자가출판 시

장 규모는 전체 출판 시장의 약 4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sup>2</sup> 했다.

## 다) 독일 전자책 시장 현황

독일 출판서점협회가 전문 조사기관인 GfK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sup>3</sup> 2017년 전자책 판매 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 상승하였으나 매출 규모는 1.4% 하락하였다. 전체 출판 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율은 4.6%로 전년과 동일한 점유율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책 구매자 수는 3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7% 하락했으나 1인당 전자책 평균 구매량은 12.6% 상승한 8.3권에 연간 평균 53.13유로를 지출하여 6.8% 상승률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전자책 구매 인구가 줄어든 반면 구매자의 전자책 구매 강도는 높아지는 양상이다. 다만 권수 증가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낮아 권당 평균 지출 비용은 6.38유로로 전년 대비 5.1% 하락하여 전자책 구매자의 저가 전자책 구매양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책 시장 매출 규모 하락을 가져왔다.

전체 출판 시장에서 전자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에 이어 4.6%로 성장률은 정체된 상태다. 독일 전자책 유통 시장은 독일 주요 서점과 코보(Kobo) 연합인 톨리노 연합(Tolino Alliance), 그리고 아마존이 이끌고 있으며 전자책 판매 뿐만 아니라 무제한 구독 서비스 등 대안적 서비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다.

## 라) 프랑스 전자책 시장 현황

프랑스 출판협회(SNE)에 따르면 2016년 프랑스 디지털 출판 시장 규모는 2억 3,400만 유로로 전년 대비 29.7% 상승한 수치다. 성장을 주도한 분야는 법학

<sup>2</sup> 출처 : Kiera O'Brien(2018.02.05.) E-book sales bounce back for Big Five in 2017, The Bookseller accessed on 2018.03.10. at <https://www.thebookseller.com/news/e-book-sales-bounce-back-big-five-2017-723761>

<sup>3</sup> 출처 : Börsenverein(2018.02.22.), "Das E-Book 2017: Absatz von E-Books steigt, Umsatz geht zurück accessed on 2018.02.26. at [https://www.boersenverein.de/de/portal/Presse/158382?presse\\_id=1433995](https://www.boersenverein.de/de/portal/Presse/158382?presse_id=1433995)



등 대학 교재 및 학술서와 교육 분야였다. 단행본의 경우 소설 분야는 전년 대비 6.3% 성장하였다.

2016년 프랑스의 매출 규모는 27억 500만 유로였으며 이 중 디지털 도서 매출은 2억 3,400만 유로로 출판사 매출의 8.65%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나뉘보면 대학 교재 및 학술서 출판사의 경우 출판사 매출의 41.7%가 디지털 매출이었고, 단행본 소설 분야의 경우 출판사 매출의 4.09%를 차지했으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밖에 예술, 종교 분야 등의 비소설 분야는 아직까지 디지털 매출이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시장 조사 전문 기관인 KPMG가 프랑스 전자책 시장 현황을 조사<sup>4</sup> 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출판사 10곳 중 7곳이 디지털 콘텐츠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신간의 80%는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간은 신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전환 속도가 느렸다. 그리고 프랑스 출판사의 71%는 유통사(전자책 서점 등)와 직거래하기보다는 유통 중개사<sup>5</sup>를 통해 거래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9%보다 증가한 수치이다.

## 마) 일본 전자책 시장 현황

일본 전국출판협회가 발표한 자료<sup>6</sup>에 따르면 2017년 일본 출판 시장 규모(잡지 포함)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1조 5,916억 엔으로 종이책 시장은 6.9% 감소했으며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16% 성장하여 2017년 추정 규모는 2,215억 엔이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만화가 1,71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7.2% 상승했으며 일반 도서가 290억 엔으로 12.4% 성장했고 잡지 역시 214억 엔으로 12.0% 증

가하여 디지털은 모든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디지털 만화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만화 시장은 특히 가격 할인 행사나 무료 이용 등의 서비스가 시장에 만연되어 있고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불법 해적판 사이트도 디지털 만화 시장 성장의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잡지 시장의 경우는 일본의 대표적 무제한 구독 서비스인 ‘디매거진’의 회원 수 감소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 2) 해외 전자책 도서정가제

### 가) 독일 전자책 도서정가제

독일은 도서정가제가 법으로 확립되기 전까지 1964년부터 출판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공동협약(Sammerlrevers) 시스템에 의해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어 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결국 2002년 독일 도서정가법(Buchpreisbindungsgesetz, BuchPrG)<sup>7</sup>이 제정되었고 2002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도서정가제가 시행<sup>8</sup>되었다. 이후 2006년 7월 교과서 할인 관련 조항 개정을 포함하여 일부 법의 미비 등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1차 개정이 이뤄졌다. 2016년 4월 독일 연방정부는 도서정가제 개정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개정 내용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금의 유럽법(EU Law, 자유경쟁) 체계 내에서 독일 도서정가제의 목표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전자책의 도서정가제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독일의 도서정가법은 모든 유통사 혹은 플랫폼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지켜지는 한 출판사는 언제라도 재량으로 정가를 하향

4 출처 : KPMG(2017) The 4th Fr Barometre Offre Livres Numeriques France

5 프랑스의 유통 중개사는 Eden Livres가 Gallimard, Flammarion, Seuil, Actes Sud 등 프랑스 약 422개 출판 브랜드를 대표하여 36.5%의 디지털 콘텐츠를 유통 중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Hachette Livre가 21.8%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고 다음으로 L'Harmattan가 20.2% 순이다. 이 밖에 코믹의 경우 주로 Izeo를 통해 유통된다. (출처 : 프랑스서점협회(SLF)(2017.12.22.)

6 출처 : 公益社団法人全国出版協会(2018.01.25.), 2017年の出版市場発表, 紙+電子で4.2%減の1兆5,916億円、紙は6.9%減、電子は16.0%増

7 독일 도서정가법은 Gesetz über die Preisbindung für Bücher로 Buchpreisbindungsgesetz 혹은 줄여서 BuchPrG로 부른다. 2002년 법이 최초 시행된 후 지금까지 2006년 2016년 2차례 법 개정이 있었다.

8 출처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15) 「독일 출판정책 연구」 p.87

혹은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가 변경이 가능하다. 즉 도서정가제가 의무 적용되는 출간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은 특정 유통사에게만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이론상 모든 유통사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한 매일 정가 변경도 가능하다.

국내의 경우 재정이 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18개월이 지난 도서에 한해 변경 2주 전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해당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 알려야 하지만 독일은 유통사에게 고지(혹은 파우엘비 정가고시시스템에 등록) 의무만 지킨다면 출판사 재량(신간, 구간 모두 가능)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다. 더구나 18개월이 지나면 역시 출판사 재량으로 정가 자체를 폐기(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은 국내와 크게 다르다.

## 나) 프랑스 전자책 도서정가제

1982년부터 법제화된 프랑스의 도서정가제는 그동안 지역 서점을 보호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서점 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전자책과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1년 전자책 도서정가법(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sup>9</sup> 제2011-770호, 2011.05.26)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11월부터 발효시켰다. 온라인 서점의 증가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시장의 균형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에는 종이책에만 적용되는 도서정가제를 전자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프랑스의 모든 출판사(독립 저자 포함)는 디지털 도서에 도서 정가를 확정 고지하고 이러한 도서를 판매하는 유통사는 프랑스가 아닌 해외 사업자일지라도 해당 출판사가 정한 도서 정가대로 판매해야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디지털 도서 가격에 관한 법이 제정<sup>10</sup> 되었다.

9 디지털 서적의 가격에 관한 법(Loi n° 2011-590 du 26 mai 2011 relative au prix du livre numérique)

10 Syndicat national de l'édition(SNE), 'Prix du livre numérique' accessed on 2018.01.06. at <https://www.sne.fr/prix-unique-du-livre/prix-du-livre-numerique/>

이 법에 따라 프랑스에서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책을 출간한 자는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제2조 제1항). 그리고 프랑스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이 법에서 정의한 디지털 도서를 제공하는 자는 제2조에 따라 확정 고지된 도서 정가를 준수해야 한다(제3조). 여기서 '출간한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독립저자도 도서정가 확정 고지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프랑스 도서정가법의 핵심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정가 결정의 주체가 출판사로 바뀐 점이다. 프랑스가 아닌 해외 사업자인 유통사도 프랑스 출판사가 정한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

## 3) 해외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 가) 북미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북미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약 3만여 개 이상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디지털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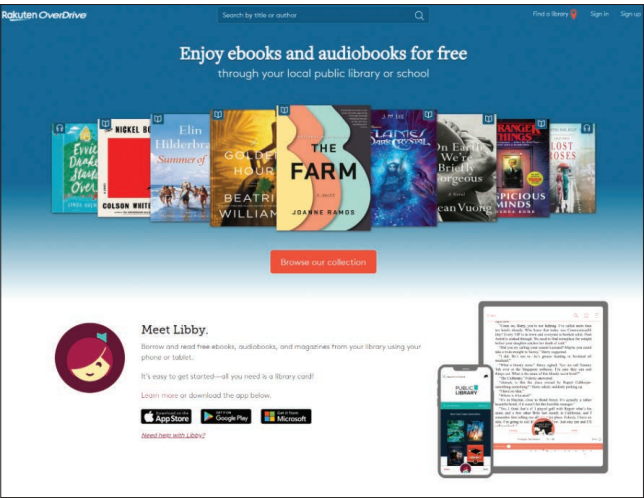
전 세계 약 4만 개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 전자책 공급업체 오버드라이브(Overdrive, [www.overdrive.com](http://www.overdrive.com))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거래 도서관 중 디지털 콘텐츠(전자책, 오디오북 등) 대여 실적이 100만 건을 넘는 도서관은 58개이다. 2016년 49개 도서관에서 14% 성장하여 오버드라이브를 통한 총 대여 실적은 2억 2,500만 건을 넘어섰다. 이 중 토론토 공공도서관(캐나다)과 위스콘신 공공도서관 컨소시엄은 각각 대출 권수가 400만 건을 넘어섰다.<sup>11</sup> 물론 그에 따라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예산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1 출처 : OverDrive(2018.01.15.) PUBLIC LIBRARIES REACH 225 MILLION DIGITAL CHECKOUTS IN RECORD-BREAKING 2017 accessed on 2018.03.04. at <http://blogs.overdrive.com/front-page-library-news/2018/01/15/2017-digital-reading-stats/>

표 2. 오버드라이브가 발표한 디지털 콘텐츠 체크아웃 밀리언 클럽 상위 10위 도서관

순 위	지역 공공도서관	2017년 대출 권수 건수	2016년 대비 성장률
1	토론토 공공도서관(캐나다)	400만 이상	19%
2	킹 카운티 도서관(워싱턴주)	400만 이상	13%
3	로스엔젤레스 공공도서관	300만 이상	23%
4	뉴욕 공공도서관	300만 이상	20%
5	시애틀 공공도서관	300만 이상	12%
6	헤네핀 카운티 도서관	300만 이상	15%
7	클리블랜드 공공도서관	300만 이상	11%
8	신시내티 및 해밀턴 카운티 공공도서관	300만 이상	12%
9	멀트노마 카운티 도서관	300만 이상	28%
10	쿠야호가 카운티 도서관	200만 이상	10%

그림 2. 북미 전자책 공급업체 ‘오버드라이브’



출처 : 오버드라이브 누리집

## 나) 독일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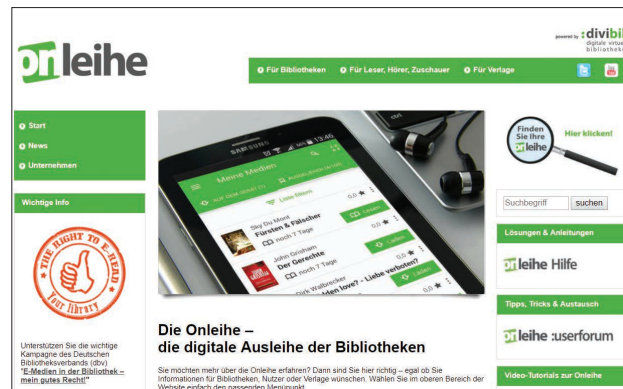
전자책을 비롯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률은 영미권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도 전자책, 디지털 신문, 매거진 등의 시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과학, 의학, 법률 분야 전문 콘텐츠의 디지털 서비스가 일찍부터 시작됐으며 점차 전자책 대여를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도 늘고 있다.

독일 도서관 시장의 주요 전자책 공급사는 디비빔(DiviBib GmbH)사로 온라인(onleihe, [www.onleihe.net](http://www.onleihe.net))라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출판사 등 저작권자로부터 디지털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도서관에 전자책 서비스를 위한 솔루션과 함께 전자책을 공급한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약 3,000개 이상의 도서관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50만 명 정도가 이용<sup>12</sup>하고 있다. 전자책의 도서관 납품 가격과 관련하여 독일은 전자책에 대한 도서 정가제가 적용되지만 도서관 납품의 경우는 일반 B2C 시장용으로 출판사가 결정한 정가가 적용되지 않고 계약에 의해 좀 더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다. 보통 전자책 정가의 2~3배로 계약되고 있다.

독일의 공공도서관 입장에서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는 생존의 의미를 담고 있다. 종이책 위주의 서비스만 제공할 경우 점점 도서관 이용자층 확장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독일 출판사가 만든 전자책 구독 서비스 플랫폼인 스쿠비(Skoobe), 아마존이 운영하는 킨들 언리미티드(Kindle Unlimited, KU) 등 무제한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 입장에서는 서비스하는 전자책 목록이나 사용자 경험 향상 등에서 B2C 서비스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12 내용 출처 : [www.onleihe.net](http://www.onleihe.net)

그림 3. 독일 도서관 시장의 주요 전자책 공급사 ‘디비비’이 운영하는 플랫폼 ‘온라이어’



출처 : 온라이어 누리집

## 다) 프랑스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프랑스는 1992년 유럽 이사회 지침에 따라 2003년 관련 법률 제정<sup>13</sup> 으로 도서관 대출과 이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리적 형태의 콘텐츠인 종이책에 대한 도서관 대출 및 보상에 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이 법 제1조에 의해 책(livre)이라고 규정<sup>14</sup>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이 등 특정한 형태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하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출판사 혹은 저작권자가 전자책을 도서관에 유통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도서의 거래 조건(기간 및 대여 횟수, 가격, 동시접속 허용여부 등)을 결정하여 도서관과 거래하고 있다. 다시 말해 프랑스 역시 공공 대출권 개념을 전자책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도서관 전자책 대출 시스템(Prêt numérique en bibliothèque, PNB)을 통해 출판사가 허락한 도서와 거래 조건을 계약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sup>13</sup> 도서관 대출 및 작가의 사회적 보호 강화에 관한 법(Loi n° 2003-517 du 18 juin 2003 relative à la rémunération au titre du prêt en bibliothèque et renforçant la protection sociale des auteurs), <https://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JORFTEXT000000411828>

<sup>14</sup> Loi n° 2003-517, Article 1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art. L133-1 (V) Lorsqu'une oeuvre a fait l'objet d'un contrat d'édition en vue de sa publication et de sa diffusion sous forme de livre, l'auteur ne peut s'opposer au prêt d'exemplaires de cette édition par une bibliothèque accueillant du public.

PNB 시스템은 이미 딜리콤(Dilicom)이 구축한 프랑스 내 B2C 전자책 거래 시스템인 허브딜리콤(Hub Dilicom)의 확장판이다. 작동 방식은 일종의 도서관 유통의 포털 역할로 도서관 공급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출판사, 도서관 공급사, 도서관 등)은 PNB 시스템이 제공하는 표준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상호 호환 가능한 솔루션(화이트라벨로 플랫폼 구축 등)과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다.

프랑스 문화부가 2017년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판사가 허용한 대출 허용 횟수는 20회가 31.0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회가 26.4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무제한 허용도 25.72%나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영미권의 영향으로 2017년 자료에는 25회가 새롭게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2016년에는 없었던 60회 허용 조건도 새롭게 등장했다.

## 라) 해외 도서관의 전자책 서비스 모델(라이선스 모델)

국내에는 아직도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 방식이 종이책처럼 도서관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납품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출판 선진국의 도서관 전자책 공급은 저자와 출판사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오래전부터 납품방식이 아닌 라이선스(이용 허락)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 다음은 출판 선진국의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매하는 라이선스 모델이다.

### ● 기간제 라이선스 모델(License with fixed term access)

대출 횟수 제한 없이 one copy/one user 조건이지만 특정한 기간(예를 들어 1년, 2년, 3년)을 정해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도서관은 라이선스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구매해야 한다. 다만 공급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 **정해진 대출 횟수 라이선스 모델(License with set # of circulation)**  
최근 출판사가 가장 선호하는 공급 방식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전자책 대출 (Check-out) 횟수를 정하여 라이선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빅5 출판사 중에는 하퍼콜린스가 26회 대출 횟수를 정한 라이선스 공급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 공공도서관의 약 24%만 채택했으나 최근(2014년) 조사에서 68%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구독 모델(Subscription)**  
전자책 구독에 대한 연간 이용료를 지불하고 대여 횟수나 이용자 수에 상관 없이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동시 접속도 가능하다. 과거 어린이 전자책이나 학술/전문 전자책 서비스에서 많이 활용했으나 현재는 일반 단행본 출판사의 참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 **대출 당 이용료 지급 모델(Pay per checkout)**  
최근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후플라(Hoopla)’에서 시작된 라이선스 방식으로 도서관 전자책 이용자가 대출할 때 일정한 금액을 출판사에 정산해 주는 새로운 서비스로 Pay per checkout을 도입하는 도서관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용 횟수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이다. 대출이 잘 안 되는 전자책은 이용료(로열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는 저자나 출판사보다는 도서관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 **영구 접속 라이선스 모델(License with perpetual access)**  
기존의 전자책 납품 방식과 달리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동시 접속 없이 one copy/one user 조건이며, 도서관은 해당 전자책을 영구적으로 이용(Access)할 수 있지만 디지털 파일을 소장할 수 없다.



## 기술 동향 전자책 관련 기술의 흐름

맹한민  
이타래 대표



## 1.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마케팅 기술 전략, 저작권 보호의 핵심 기술 세 분야의 변화

###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의 변화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IDPF)에서 2007년 국제 전자책 표준 포맷인 EPUB을 발표하고, 2008년경 EPUB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에 국내에 전자책 서비스 형태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이전까지의 전자책 서비스는 특정 서비스 업체들 중심의 전자책 포맷으로 해당 업체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자책 뷰어도 개발하여 서비스하였다. 이때 출판사는 전자책 서비스 회사에 도서 원본을 제공하고 서비스 수익의 일부를 정산받는 방식이었다. 당시의 전자책은 표준 포맷이 아니라 서비스 회사에 종속된 포맷이었기 때문에 출판사가 전자책을 제작하지 않고 전자책 서비스 회사에서 제작하고 유통까지 하는 형태였다. 전자책 서비스 회사들마다 다른 형태의 전자책 포맷을 사용했던 이유로 전자책 제작에 대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전자책 서비스 회사 또한 전자책 원본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2008년 이후 국내에 EPUB의 도입과 함께 전자책 시장에서 생태계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출판사나 저자가 직접 전자책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전자책 서비스 회사에서는 뷰어나 플랫폼 서비스 쪽으로 좀 더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경되기 시작했으며, 전자책 제작업체, 콘텐츠 수집업체(Content Aggregator, CA), 뷰어 개발업체,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이하 DRM) 시스템 개발업체 등이 전자책 생태계에 나타나게 되었다.

현재는 출판사가 직접 전자책을 만들어 다수의 전자책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유

통할 수 있으며, EPUB 전자책이 국제 표준 포맷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외 유통도 가능해졌다. 서비스 회사들은 더 이상 전자책을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전자책 수급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안정화되었다. 출판사는 전자책 출판에 집중하여 그 품질을 높였고, 서비스 회사는 플랫폼 서비스에 집중하여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인 전자책 시장의 성장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들어 전자책 시장에서는 구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이 나왔다. 이것은 사용자가 매월 고정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음악이나 동영상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구독 형태의 서비스가 전자책 시장에서도 시작되었다. 구독 서비스의 성공은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정책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생산자, 소비자가 만족하는 모델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시장이 한 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마케팅 기술의 변화

#### 애자일 출판, 디지털 퍼스트 출판

전자책은 디지털 파일로 되어 있으며, 일부 포맷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다른 포맷으로의 변환, 수정이 용이하며, 보관과 배포에 대한 비용이 저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책 출판은 종이책 출판에 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독자에게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애자일 출판, 디지털 퍼스트 출판은 전자출판의 특징을 잘 살린 새로운 출판 방식이다.

애자일(Agile)은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중의 하나이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오랜 시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후에 사용자에게 출시했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사항과는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 이후에는 그 피해를 복구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발방법론이 애자일이다.

애자일 출판은 애자일 개발방법론을 출판에 적용한 것으로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빠르게 여러 번 출판하면서 독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디지털 퍼스트 출판(Digital-First Publishing)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전자책으로 먼저 출간하고, 독자들의 반응을 살펴본 후에 종이책 출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통해서 전자책에서 수렴된 독자들의 의견과 분석된 결과를 출판사가 종이책 출간 시에 반영하여 더 좋은 품질의 책을 만들 수 있으며, 출간 부수를 결정하거나 다양한 마케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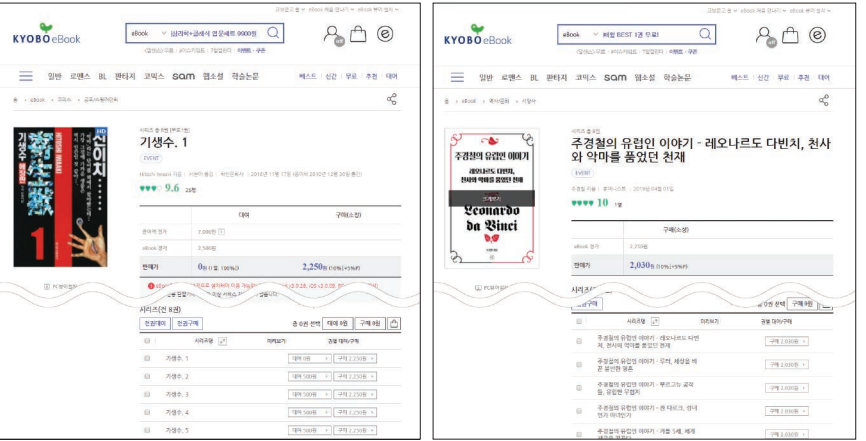
### 책의 발견성

책의 발견성(Discoverability)을 높이기 위해서 출판사들은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광고 등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전자책은 책의 발견성을 높이기에는 적합한 재료다. 전자책을 분권하거나 미리보기를 만드는 등의 작업은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인쇄비용이나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셜네트워크나 블로그, 기타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독자들에게 전자책을 노출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장르 소설 등에서는 <그림1>과 같이 책을 분권하고 1~2 권 정도는 무료로 독자들에게 제공하여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보고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자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로 홍보하거나 일부 분권 등의 비용을 낮추어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모두 발견성을 높이는 행위이다.

또한 발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기본에 속하는 것으로 메타데이터 구축이 있다. 책의 내용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책에 대한 소개, 분야 등의 정보를 잘 정리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EPUB 전자책은 책의 내용뿐 아니라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제목, 저자, 언어, 주제, 설명 등을 EPUB 전자책 내부에 내장할 수 있는 구조이다. 국제적으로 주로 사용 중인 메타데이터 포맷은 오닉스(ONIX), 더블린 코어(Dublin Core), 마크(MARC) 등이다. EPUB 전자책은 더블린 코어 메타데이터

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EPUB3에서는 오닉스나 마크 데이터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출판 산업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닉스 기반의 출판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그림 1. 전자책 분권 판매



출처 : 교보문고 누리집

### 저작권 보호 기술의 변화

필자가 2000년도 초 전자책 시장에서 경험했던 저작권 보호 기술은 전자책 파일에 대한 단순 암호화였다.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자책 파일을 미리 암호화하고 전자책 뷰어에서 독자가 전자책을 보려고 할 때에 암호화된 파일을 복호화하여 서비스하였다. 상용으로 판매되는 전자책에 1990년대부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하였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는 PDF 포맷은 1996년부터 암호화 보호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근래에 저작권 보호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 보호 장치에 해당하는 DRM 기술과 사후 처리를 위해 저작권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에 삽입하는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기술이다.

‘디지털 권리 관리’라는 용어보다 DRM이 더 익숙하므로 이 글에서는 DRM 용어를 사용하겠다. DRM은 단순히 디지털 파일의 암호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암호화는 DRM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일부이며, DRM은 디지털 파일의 복사, 인쇄 등의 권한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전자책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파일의 복사, 인쇄 등의 권한을 설정하면 사용자는 전자책 파일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복사, 인쇄 등의 기능에 제약을 받게 된다.

전자책 포맷들 중에서 EPUB의 경우에는 국제 디지털 출판 포럼(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IDPF)에서는 ‘META-INF’ 폴더에 ‘rights.xml’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세한 형식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다. ‘rights.xml’ 파일은 암호화하지 말 것을 기술하고 있다.

IDPF는 2012년 ‘EPUB Lightweight Content Protection’ 문서를 게시하였다. 이 문서는 EPUB이 일반적인 DRM 솔루션(이 문서에서는 ‘Heavyweight’ DRM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다는 약식의 콘텐츠 보호(Lightweight Content Protection, LCP)를 제안하는 유즈케이스(Use case)와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 이뤄져있다. 2017년 ‘Radium LCP DRM’에 대한 시연이 이루어졌다, ‘Radium LCP DRM’에서 사용자는 PDF 문서와 같이 암호문을 이용하여 EPUB 전자책을 볼 수 있으며, 시간제한, TTS 변환 등의 권한을 파일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Radium LCP DRM’은 깃허브(Github) 저장소를 통해서 오픈소스 형태로 배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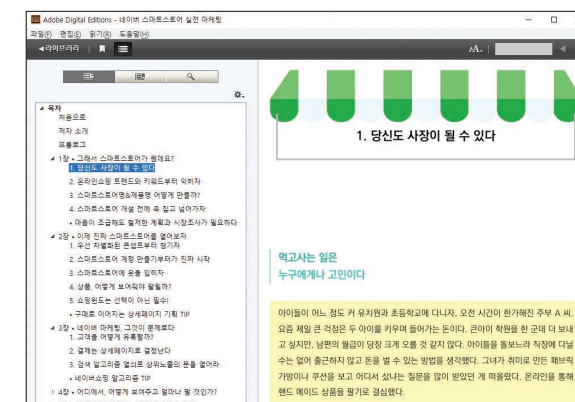
현재 국내외 대부분의 전자책 유통사는 DRM을 적용한 전자책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장르 소설이나 콘텐츠의 유통기한이 짧은 전자책의 경우에는 DRM이 없거나, 워터마킹 기술만을 적용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

## 2. 전자책 뷰어, 관련 소프트웨어 역사, 현재 가장 사랑받는 기기와 소프트웨어 소개

### 전자책 뷰어

최근 전자책 뷰어는 EPUB과 PDF를 지원하거나 둘 중 하나를 지원한다. PDF는 많이 사용하는 뷰어들이 있기 때문에 EPUB 기준에서 뷰어를 소개한다. EPUB 뷰어는 공통적으로 글자 크기, 배경 색상, 줄 간격 등을 사용자 기준에 맞추어 설정할 수 있다. 뷰어에 따라서 EPUB 내장 폰트 또는 뷰어가 제공하는 폰트로 설정해 볼 수 있으며, 본문 검색, 북마크, 메모, 노트 등의 기능들이 제공된다. 대부분 EPUB 뷰어들은 저작권 문제로 인쇄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림 2.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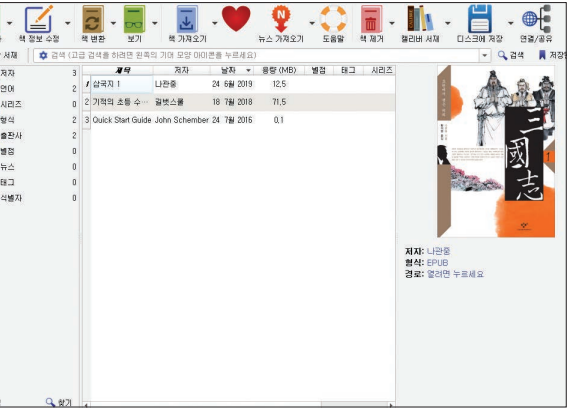


출처 : Adobe

전자책 뷰어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전자책 전용 뷰어이다. 전자책 파일을 직접 가지고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뷰어이다. 뷰어 내의 서재로 불러오기 한 다음에 전자책을 볼 수 있다. 어도비사에서 제공하는 어도비 디지털 에디션(Adobe Digital Edition)은 초기에 나온 EPUB, PDF 뷰어로 어도비 DRM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기능에 충실한 뷰어이며, 윈도우,

맥, Android, iOS를 지원한다. 그 외에 ‘깃든 리더’, ‘Aldiko’, ‘Moon+Reader’, ‘Freda’, ‘Icecream Epub Reader’ 등 다양한 전자책 뷰어들이 존재한다. 캘리버(Calibre)는 전자책 관리 도구로 다양한 포맷들의 변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뷰어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

그림 3. 캘리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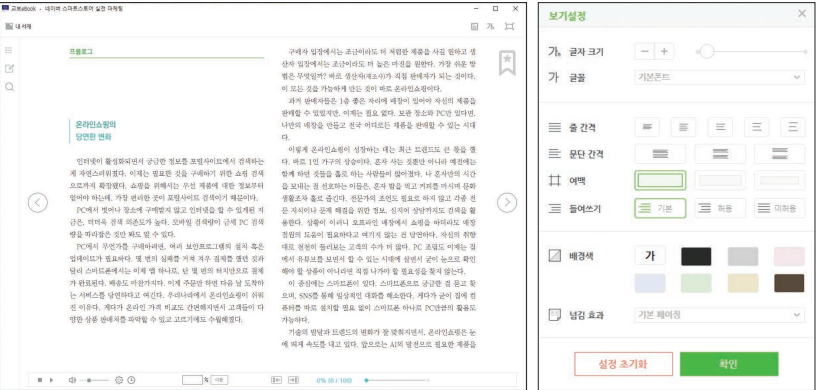
출처 : Calibre

둘째, 전자책 서점에서 제공하는 뷰어이다. 전자책 서점의 전자책 뷰어는 기본적으로 전자책 서점과 연계되어 서점에서 구매한 전자책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다. 책갈피, 메모 등 독자가 등록한 데이터들이 단말기 간에 동기화되므로, PC와 스마트폰을 같이 사용할 때에 편리하다. 전자책 서점에 따라 서점에서 구매한 도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뷰어들도 있지만, 많은 서점 뷰어들이 PC나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책을 불러와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전자책 서점은 리디북스,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밀리의 서재 등이며,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사용 가능하며, 서점에 따라 PC 뷰어도 지원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도 각각 아이북스(iBooks)와 구글 플레이 북(Google Play Book) 뷰어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웹브라우저에서도 전자책을 지원하고 있다. 크롬(Chrome) 웹브라우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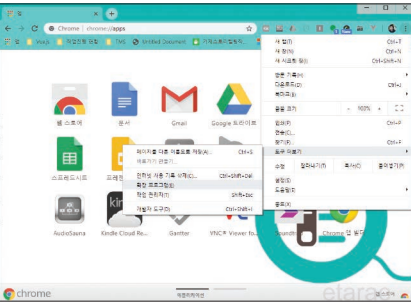
PDF 파일은 바로 열어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EPUB 파일은 확장 기능에 있는 리디엄(Readium) 뷰어를 사용할 수 있다. 크롬 브라우저의 오른쪽 위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에 [도구 더보기] 아래 [확장 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하여 확장 프로그램 관리 창으로 이동하고 [확장 프로그램 검색]에서 ‘Readium’을 입력한 후에 설치하면 된다.

그림 4. 교보eBook



출처 : 교보문고

그림 5. 크롬 확장 프로그램 메뉴



출처 : Chrome

그림 6. 리디엄 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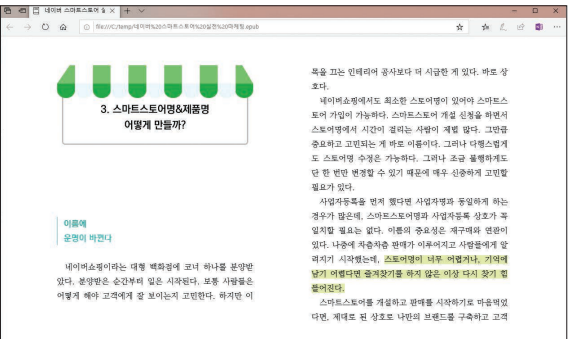
출처 : Readium

크롬에서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서 윈도우 10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엣지(Edge) 브



라우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EPUB 전자책을 열 수 있으며, 멀티미디어, 인터랙션 기능이 포함된 EPUB 3.0 전자책도 작동된다. 성우 내레이션과 문장을 싱크 시켜주는 미디어 오버레이 기능과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Text To Speech) 기능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필자는 옛지 브라우저가 완성도 높은 EPUB 뷰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림 7. 옛지 브라우저



출처 : 마이크로소프트 Edge

### 전자책 관련 소프트웨어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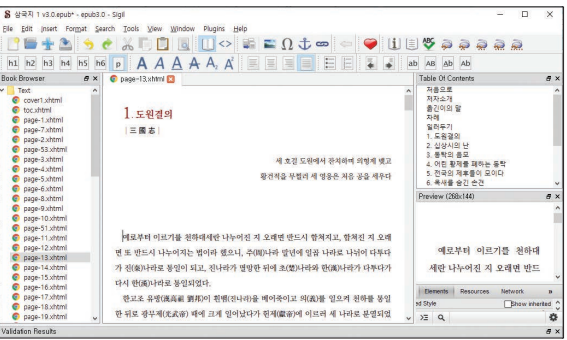
전자책 서비스를 위해서는 뷰어 이외에도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 변환도구, 전자책 포맷 검수도구(Epub Validation Tool, epubcheck)와 전자책 서비스에 필요한 DRM, 콘텐츠 관리 시스템(Content Management System, 이하 CMS) 등이 있다. DRM과 CMS는 서비스 회사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EPUB 전자책 제작과 관련된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 저작도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 중인 EPUB 저작도구는 시길(Sigil)이다. 개발자는 ‘시질’로 불러 달라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시길’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2009년 발표되어 현재까지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저작도구이다. 오픈소스로

GPLv3(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3.0) 라이선스를 따른다. 시길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은 무료이지만, 공개된 소스를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배포할 때에는 GPLv3 라이선스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길은 위지윅(What You See Is What You Get, WYSIWYG) 방식과 소스코드 편집방식 모두를 지원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 목차 관리 등 전자책을 완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반드시 [도구] 메뉴 아래에 [Well-Formed Check EPUB] 메뉴를 클릭하여 포맷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글, 애플 등 해외에도 전자책을 유통할 계획이라면, EPUB 검수도구인 [epubcheck]를 추가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내 전자책 서점들은 EPUB 포맷 오류에 대해서 관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 전자책 서점들은 EPUB 파일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전자책 등록 자체를 허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검수도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은 독자가 전자책을 볼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포맷 오류를 해결하고 배포해야 한다.

그림 8. 시길 편집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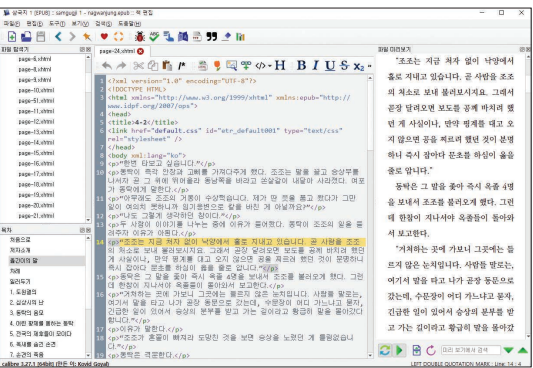
출처 : Sigil Ebook

전자책 뷰어에서 소개했던 캘리버는 EPUB 편집 기능도 지원하고 있다. 도서 목록에서 편집할 도서를 선택하고 화면 위쪽의 도구 버튼들 중에서 [책 편집]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 편집기 기반의 EPUB 편집기 화면을 볼 수 있다. 편집 중인



페이지를 미리보기 할 수 있으며, 소스코드와 미리보기 화면 간의 동기화 기능, 라이브 CSS, 내장 글꼴 관리와 같은 편의 기능들이 있다. 그 외에도 국내 업체 중에서는 펜립에서 배포 중인 이북 스타일리스트 등이 있으며, 해외에서는 유료 버전이기는 하지만 블루그리펀(BlueGriffon) 웹 편집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블루그리펀 EPUB 편집기 등이 있다.

그림 9. 캘리버 EPUB 편집 화면



출처 : Calibre

### 변환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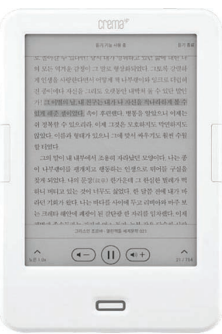
자체적으로 EPUB을 편집할 수는 없지만 EPUB으로 내보내기 기능을 지원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다. 변환도구들이 만들어낸 EPUB은 그 완성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길과 같은 전용 저작도구를 사용하여 편집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EPUB으로 내보내기를 지원하는 도구로는 어도비 인디자인(Adobe Indesign), 퀵스프레스(QuarkXpress), 캘리버(Calibre), iBooks Author, Pages 등이 있다.

### 전자책 단말기

전자잉크(e-ink)는 광원을 사용하는 전통적인 디스플레이와 달리 캡슐 형태의 화소에 전하를 가해 배열시키는 방식이다. 한 번 표현된 화상은 별도의 전원이 없어도 배열된 형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면을 갖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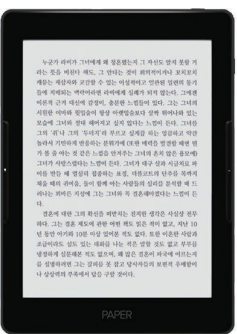
단말기들에서 가장 많은 전력이 소모되는 곳이 디스플레이 장치이다. 전자잉크는 광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전력 상태에서 전력 소모가 매우 작으며, 의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용자들은 눈의 피로도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비해 적다고 이야기한다. 전자잉크는 화면을 그리는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지만, 책이기 때문에 화면을 다시 그려야 하는 빈도가 낮아서 큰 불편함이 없고, 전력 소모가 작아서 배터리가 오래가기 때문에 전자책 전용 단말기의 디스플레이로 사용되고 있다. 해외의 전자책 전용 단말기로는 소니 리더, 아마존 킨들, 반스 앤 노블(Barnes & Noble)의 누크(Nook)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이퍼브의 '크레마', 리더북스의 '페이퍼', 인터파크의 '비스킷' 단말기 등이 있다. 전자책 단말기는 PDF, EPUB 전자책을 볼 수 있으며, MP3 플레이 기능이나 사전 기능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10. 크레마 사운드



출처 : 한국이퍼브

그림 11. 페이퍼 프로



출처 : 리더북스

## 3. 전자책 서비스의 발전 방향성

### 구매한 전자책의 저작권

전자책 서점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서점에서 전자책을 구매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전자책을 보기가 힘들어진다. 서점에서 구매한 전자책들은

DRM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책 파일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뷰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없다. 전자책 구매자에게 DRM을 해제하고 전자책 파일을 전달한다면 이용자는 만족할 수 있으나 출판사나 저자와의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다.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유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1~2년 이내에 작동하지 않게 된다. 어도비 DRM이 적용된 경우에는 전자책 서점이 서비스를 중단하더라도 구매한 전자책 파일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도비 DRM이 지원되는 뷰어에서 해당 전자책 파일을 열어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 어도비 DRM을 사용 중인 전자책 서점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이책과 비슷한 금액을 주고 전자책을 구매했는데 서점의 서비스가 중단되어서 책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용자들 입장에서 납득이 힘든 부분이다. 이는 전자책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과거에 전자책 서점이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에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았거나, 다른 서비스로의 이관을 지원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전자책 사용자들도 많아지고 그 규모도 많이 커졌기 때문에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규모가 되는 전자책 서점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구매한 전자책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이는 전자책 산업의 쇠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자책 서점들과 출판사들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협의하여 어도비 DRM과 같이 독립적으로 구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전자책 구매가 확인된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인터넷 서점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자책 접근성 지침

2016년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제정되었다. 전자책 접근성은 시각 장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접근성이 적용된 전자책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책을 제작할 때에 접근성을 가급적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독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데이지(Daisy) 포맷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 전자책 접근성을 준수하는 EPUB3.0 전자책을 서비스하려 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자책을 전자책 서점, 서비스 운영자들이 제작하였으나, 과거 10년 동안 전자책을 직접 제작하는 출판사들이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전자책 접근성까지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자책 서점들의 뷰어 또한 접근성을 지원하는 기능이 미약하다. 독서를 원하는 최대한 많은 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사와 전자책 서점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자책에서의 증강현실, 가상현실

2018년부터 교육부는 디지털 교과서 보급을 시작하였으며 EPUB3 고정 레이아웃(EPUB3 Fixed layout)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EPUB3 교과서에는 교과 내용 이외에도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평가문항, 보충심화 학습자료, 실감형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는 교과서에 수록된 교과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3D 모델링 그래픽과 입체 시각 효과 기술을 활용하여 풍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정의하고 있으며,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360° 사진 및 영상 등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12. 증강현실 실감형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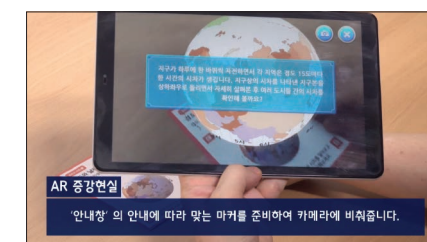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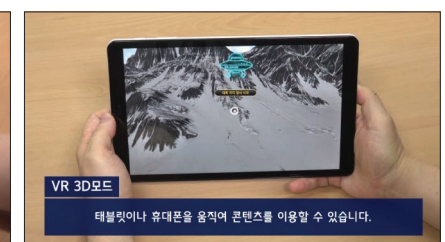


그림 13. 가상현실 실감형 콘텐츠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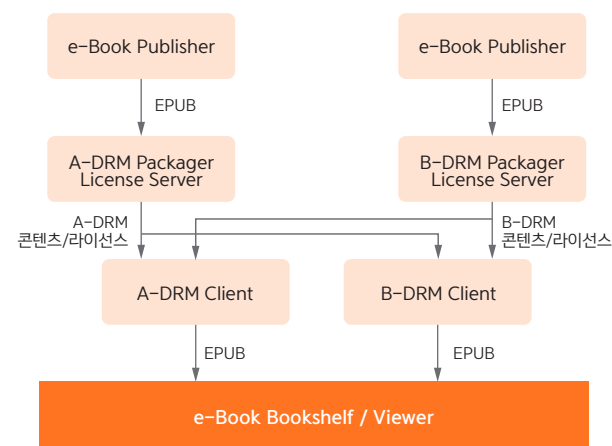
## 4. 전자책 기술의 도서관 적용 제안

### 사용자 편의성 증대

전자도서관은 전자책을 납품하는 업체에 따라서 내부에 여러 개의 전자도서관이 존재한다. 도서 검색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도서를 찾고 대출받는 것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도서관들의 전자도서관 시스템들은 전자책 납품 업체들이 제공한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원하는 도서에 따라서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현재 전자도서관은 표준 포맷인 PDF나 EPUB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DRM 때문에 과거의 전자도서관에서 사용하던 특정 업체에 종속적인 포맷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도서관 시스템에 종속적인 콘텐츠가 되어 버린다. 전자도서관을 제공하는 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전자책은 보유하고 있더라도 전자책 시스템을 사용 못 하게 되면 결국 전자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표 1. 전자책 DRM 상호 운영성 평가 흐름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EPUB이나 PDF는 이미 국제표준 포맷이기 때문에 DRM 문제만 해결된다면, 한 개의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국내 전자책 DRM 호환을 위한 ‘전자책 DRM 상호 운영성 기술’ 평가를 실행하고 있다. 해당 평가를 통과한 DRM이 적용된 전자책과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전자책 도서관 시스템 사용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

### 구독형 전자도서관의 확대

서울도서관에서는 소장형 전자책 이외에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책 도서관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수의 대중에게 서비스된다. 소장형 전자책의 경우, 한 번 납품한 이후에 재구매되는 경우가 없으며, 도서관 통합 서비스 등을 통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 진다. 저작권자나 출판사들로부터 전자책 B2B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받고 있으며, 소장형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출판사들은 소장형 전자책 납품을 하지 않고 있다.

그림 14.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전자도서관



출처 : 서울전자도서관

이러한 출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나온 것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이다. 기존 소장형 전자책과 달리 구독형 전자책에서는 소장형 전자책에서 볼 수 없었던 신

간 도서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들의 반응 또한 좋다. 전자출판 생태계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사용자들도 만족하는 구독형 전자도서관의 확대를 기대해 본다.

### 가상도서관 서비스

기존 종이책은 대출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지만, 전자책 도서관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함 때문에 사용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아직까지도 전자도서관의 존재를 모르는 사용자들이 많으며, 그 사용 방법 또한 익숙하지 않아서 늘어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세계 최초의 지하철 전자도서관으로 불리는 루마니아의 부쿠레슈티 지하철 도서관은 지하철 벽면을 도서 사진들로 꾸미고, QR코드를 통하여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한 이 서비스는 인테리어 측면이나 서비스 활용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공공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적용한다면, 사용자는 QR코드를 통해서 해당 도서에 대한 검색 타이핑 없이, 해당 도서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 후 바로 대여해서 전자책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장소 또한 지하철로 한정될 필요는 없으며, 도서관 시설의 빈 벽면이나 기타 공공시설들과 협의하여 QR코드, NFC, 증강현실 기반의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전자책 서비스를 널리 홍보하고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장애인 정보접근권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장보성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사무관



## 1. 서론

장애인, 노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sup>1</sup>을 위한 사회적인 기술 요구와 시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누리집에 대한 「웹 접근성」 표준이 있으며, 현재 국가나 기업 등의 누리집에서 권고사항으로 준수하고 있다. 웹 접근성 인증마크 제도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누리집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서면심사와 전문가와 장애인이 참여한 2단계 전문가 심사 등에서 준수율이 95% 이상 되어야 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3단계 사용자 심사에서는 준수율이 100%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향후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자책은 일반적인 종이 형태로서의 책이 아닌, 디지털로 변환되어 전자기기 등으로 읽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책(콘텐츠)과 그를 보여주는 전자기기 단말(디바이스)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전자책(Electronic Book, E-Book)은 전자출판, 전자책 단말기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본 장에서는 전자기기를 통해 멀티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로 포함해 동적인 정보로 구성된 책의 내용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와 포맷으로 만들어진 전자 문서 파일, 즉 콘텐츠의 의미로 사용한다.

전자책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PDA의 등장부터이며, 이후 핸드폰이 고사

양화되고 범용 OS를 탑재함에 따라(이른바 스마트폰) 일반 대중들도 전자책이라는 개념에 손쉽게 접근하게 되었다.<sup>2</sup>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발급받은 전자책은 약 14만 2천여 권으로 종이책 약 12만 8천여 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도서출판 시장에서 전자책의 비중은 5% 수준이다. 미국 역시 시장점유율은 20% 미만으로 전자책 시장 활성화 정책과 제도 정비, 기술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도서관은 모든 국민에게 신체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2012년 '장벽 없는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목표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속으로 설립되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 제45조 제2항 제3호」와 「장애인복지법 22조(정보에의 접근)」에 의거하여 대체자료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자료 제작은 장애인에게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정보격차를 줄여주는 사회문화적 중요한 업무이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의 관점에서 전자책의 기술적 발전은 특히 시각장애인 사용자에게 기존 점자도서와 음성도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전자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전자책은 PDF 또는 EPUB(Electronic Publication) 2.0 포맷이다. 이러한 전자책들은 장애인에게 또 다른 정보 접근의 장벽을 제공한다. 전자책 분야에서도 웹 접근성과 유사한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전자책을 제작한다면 장애인이 쉽게 전자책을 이용하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의 특징과 제작 방법, 검증 도구 그리고 국내 유일의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 대상이 되는 전자책은 EPUB3.0 이상 포맷으로 제한한다.

<sup>1</sup>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0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의 주민이 포함된다.

<sup>2</sup> 나무위키(namu.wiki)(인용 : '19.7.1.)



## 2.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인 출판(Inclusive Publishing)

### 가. 장애인의 정보 평등권과 접근권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서비스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보 평등권과 접근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인 접근성과 유니버설 디자인, 대체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① 접근성

접근성(接近性) 또는 액세스빌리티(Accessibility)는 산업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건축, 시스템 공학, 인간공학 등의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로, 사용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 나이, 지식 수준, 기술, 체험과 같은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평가 할 때 쓰이는 말이다.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가진 사용자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접근성이 낮다는 것은 어떠한 제한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

특히 웹 디자인 분야에서 월드 와이드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 리는 “웹의 힘은 그 광범위함에 있다.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적인 장점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사용자는 시각, 지각, 청각 등에 장애가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탐색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수 마우스/키보드/스위치/조이스틱, 음성 인식, 눈동자 인식 등의 장치 및 기술을 사용하기도 하며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명암 대비를 크게 하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방법도 함께 사용한다.<sup>3</sup>

3 위키피디아 ko.wikipedia.org/wiki/%EC%A0%91%EA%B7%BC%EC%84%B1(인용 : '19.7.1.)

#### ② 유니버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하나의 디자인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하나의 디자인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할 때 보존이나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분야의 법규와 상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선에서 절충을 해야 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 디자인 및 설계, 시공 및 감리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 그룹의 참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sup>4</sup>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준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7원칙(the 7 Principles of Universal Design)’이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7원칙은 로널드 메이슨(Ronald L. Mace)가 건축가, 산업 디자이너, 엔지니어, 환경 디자이너 등과 협력하여 만든 것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을 판단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 7가지 기본 원리와 내용은 <표1>과 같다.<sup>5</sup>

표 1.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기본 원리와 내용

원리 1. 공평한 사용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공간이나 물건 등을 이용할 때 동등하게 이용하고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원리 2. 사용의 용통성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문화체육관광부. 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서울:문화체육관광부. pp.21-22  
5 김호다, 주애란. 2018. 노인 감염관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가이드라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1-9

원리 3.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순쉬운 이용)	불필요하게 복잡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이해력이나 언어능력의 차이로 인해 사용을 어렵게 하지 않고 중요성에 따라 정보를 배열하도록 한다
원리 4.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필요한 정보들이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수단으로 충분히 제공되고, 필수적인 정보를 최대한 읽기 쉽게 한다
원리 5. 오류에 대한 포용력(안정성)	위험이나 오작동을 최소화하도록 요소들을 배열하며, 위험한 요소들은 제거하거나 격리하는 등의 차단조치가 필요하다
원리 6. 적은 물리적 노력	사용자가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용하고, 무리하게 작동해야 하거나 반복적인 작동을 해야 하는 등의 신체적 활동을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원리 7. 접근과 이용 가능한 크기와 공간	사용자의 신체크기, 자세, 이동과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게 손이 닿고, 조작하기 적합한 크기와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단순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신체기능 저하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용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니버설 디자인은 21세기 들어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며 그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내 전자출판 분야에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연구와 적용 방안에 대해서 활발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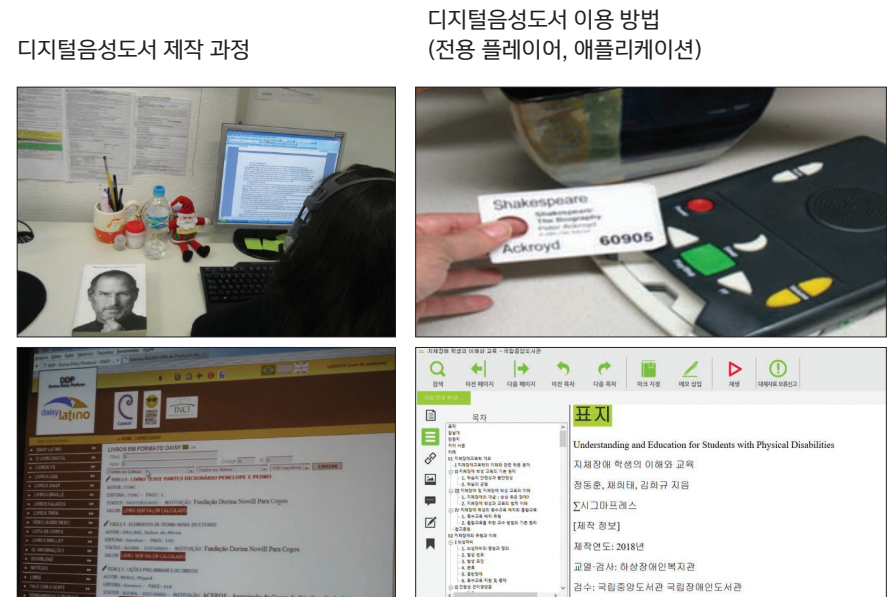
### ③ 대체자료

대체자료의 정의는 일반 공공도서관 등과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읽기장애인을 위한 자료, 지체장애인을 위한 자료, 인식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자료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의 총칭으로 ‘대체자료(Alternative Material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Irvall and Nielsen 2005, 백록담, 김유승 2016 재인용).

대체자료 제작과 제공 등 학습지원에 관련된 항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

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보장을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가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과 「도서관법」을 통해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과 제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책과 유사한 형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음성도서 표준은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가 있다. DAISY는 디지털화된 음성 녹음물과 기타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XML을 기반으로 하여 텍스트, MP3 형태의 오디오, 점자, 이미지 등을 담을 수 있다.

그림 1. 디지털음성도서(DAISY) 제작 과정 및 이용 방법



DAISY의 장점은 장, 절, 페이지 등의 검색이 가능하여 시각장애인과 독서장애 인도 문서의 원하는 부분을 마음대로 찾아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구간 반복 읽기, 낭독 속도 조절, 책갈피 기능 등도 지원되고, 텍스트나 이미지, 도표 등 도 함께 수록이 가능하다. 국제데이지컨소시엄(www.daisy.org)은 표준 제정,

저작·변환 도구 개발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DAISY 포맷을 지원하는 플랫폼은 DAISY 전용 재생 단말기, PC용 DAISY 리더, 모바일용 DAISY 리더가 있다. 최근 국제데이터컨소시엄은 DAISY 포맷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음성 도서 변환·제작보다 효율성 및 정보 제공의 확대 측면에서 접근성이 지원되는 EPUB3.0 이상의 포맷을 권장하는 추세이다. 또한, 콘텐츠 및 시스템의 장애인 접근성 지원과 시각장애인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전자책 인터랙션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 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출판(Accessible Publishing)과 포괄적인 출판(Inclusive Publishing)

‘접근성(Accessibility)’이라는 용어는 국내 출판업계에서 아직까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외국의 경우에는 인쇄장애(Print Disability), 접근 가능한 출판(Accessible Publication), 포괄적인 출판(Inclusive Publishing) 등의 개념으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출판에 대한 연구 및 제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Accessible’과 ‘Inclusive’라는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하곤 한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된 개념이지만,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디자인 측면에서 ‘Accessible’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Inclusive’는 설계 단계부터 모든 장벽을 제거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설계 방법론이다. 출판된 전자책에 대한 수정 또는 변환 없이 처음부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획, 설계되고 발간되었을 때 ‘접근 가능한(Born Accessible)’ 전자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출판(Accessible Publishing)이란 <표2>와 같은 기능이 구현된 전자출판물을 의미한다.<sup>6</sup>

<sup>6</sup> inclusivepublishing.org/publisher

표 2.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출판물의 주요 기능

-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ies)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텍스트는 모든 화면 크기에 적합해야 한다.
- 텍스트 글꼴, 색상, 글꼴 크기 및 줄 간격의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 챕터, 섹션, 페이지, 문장 등을 기준으로 탐색(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 텍스트 음성 변환(TTS, Text To Speech)으로 읽을 때 각주, 사이드바, 제작자 노트 및 페이지 번호를 건너뛰는(skip) 옵션을 지원해야 한다.
- 키보드, 마우스, 터치 등 다양한 입력 방법을 지원해야 한다.
- 차트 및 그래프에 대한 이미지 캡션 및 텍스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디오는 자막을 추가하거나 텍스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점자정보단말기 및 전자책 리더기 등 다양한 플랫폼과 장치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페이지 번호는 동일한 책의 인쇄 버전과 일치해야 한다.

접근 가능한 출판의 목적은 독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등에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근 가능한 출판은 사용자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형식을 제공하거나 더 나은 방법을 통해 정보를 흡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포괄적인 출판(Inclusive Publishing)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일반 및 전자출판물에 접근 할 수 있는 출판 환경을 의미한다.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형식으로 동시에, 동일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있는 전자책(콘텐츠)을 제작, 제공 및 읽는 최상의 접근법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괄적인 출판은 EPUB 3의 구조화된 텍스트 기반 문서의 경우 매우 간단하고 다양한 접근성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다.

포괄적인 출판을 통해서 일반 전자책 출판사(제작사)와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접근의 즉시성이다. 출판과 동시에 장애인이 접근 및 활용 가능하므로 기존의 대체자료 제작 기간과 같은 시간 비용의 낭비가 줄어들고 장애인의 학습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 둘째, 추가 비용 감소이다. 포괄적인 출판을 통해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

여 전자책을 구매한다. 기존의 장애인단체 또는 자선단체는 대체자료 제작 비용을 다른 복지사업에 활용하고 집중할 수 있다.

향후 포괄적인 출판은 계속 진화할 것이며 표준 및 이를 지원하는 리딩시스템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호주출판협회(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는 AIPI(Australian Inclusive Publishing Initiative)의 일환으로 2019년 5월에 2편의 단행본을 발행하였다. 제1편 『호주에서의 포괄적인 출판 : 안내서』와 『콘텐츠 접근성 만들기 : 장애인 접근을 위한 호주 저작권법 안내서』이다.<sup>7</sup> AIPI는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출판된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는 법률을 소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디자인에 따라 포괄적인 접근 가능한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도록 출판업계의 인식 개선과 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출판단체 또는 협회에서도 유사한 안내서와 법률적 해설서를 출판하여 출판사들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 3.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의 제작 기준 및 검증 도구

최근 전자책 단말 시장의 형성과 함께 업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EPUB 포맷이 유통되면서 전자책의 확장성, 호환성, 휴대성 및 다양성의 장점이 더욱 드러나게 되었다. EPUB은 국제디지털출판포럼(International Digital Publishing Forum, 이하 IDPF)에서 제정한 XML 기반의 개방형 전자출판물 표준 포맷으로 대부분의 전자책 단말기가 EPUB 포맷을 지원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PUB은 Open Container Format, Open Packaging Format, Open

Publication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sup>8</sup>

IDPF는 기본적인 EPUB 포맷에 대한 기능적 적합성에 대해서 표준과 검증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근 버전의 EPUBCheck은 v4.2.1이며 2019년 5월에 출시하였다.<sup>9</sup> EPUBCheck v4.2.1의 특징은 모든 HTML 요소에 대한 epub:type 지원하고 ARIA role 요소 지원을 확대하였다.

#### 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제작 기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에 대한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은 IDPF와 국제데이지컨소시엄에서 주도하고 있다. 국내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PUB의 접근성은 W3C의 웹 접근성 표준인 WCAG(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을 준수하고 있다. 따라서 EPUB의 접근성 가이드라인 역시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의 4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그 밖에 사용자 네비게이션이나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콘텐츠의 경우 WAI-ARIA(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전자책 접근성과 관련된 국제기구와 단체의 표준 및 가이드라인 현황은 <표3>과 같다.

국내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에 대한 표준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독서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가이드 제1부 저작지침, 제2부 인증기준」이 있다. 표준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전자책에 접근할 수 있는 EPUB 3.0기반의 전자책을 제작하는 방법과 이것에 대한 인증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sup>7</sup> Inclusive Publishing in Australia : An Introductory Guide, Making Content Accessible : A Guide to Navigating Australian Copyright Law for Disability Access

<sup>8</sup> IDPF는 2017년 1월 전자책 표준인 EPUB의 새로운 버전인 'EPUB 3.1'을 표준규격으로 할 것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음을 발표했다. EPUB 3.1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10월, 오픈 웹플랫폼에 보다 친화적이며 간소화된 규격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3.1 버전은 눈에 띄는 새로운 기능은 없지만 매우 중요한 개정판으로, 주요 엔트리포인트(entry point)로서의 역할을 하는 일반 요구 적합성(conformance requirements) 부분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는 등 재구성되었다.

<sup>9</sup> [github.com/w3c/epubcheck](https://github.com/w3c/epubcheck)



표 3.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관련 국제표준 및 가이드라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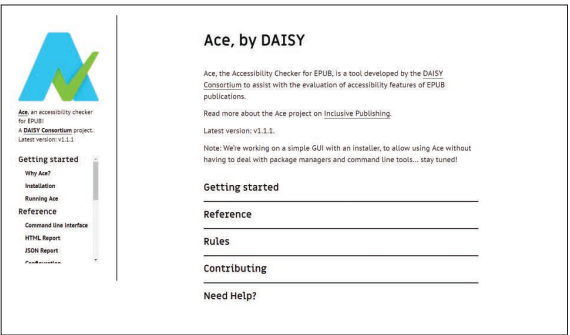
단체명	표준 및 가이드라인 명칭
idpf	EPUB 3.0 Accessibility Guidelines Accessible EPUB 3 EPUB Accessibility Specification EPUB Accessibility Techniques EPUB 3.1, Recommended Specification 2017
W3C	EPUB Accessibility 1.0, 2017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WCAG) 2.1, 2018 Accessible Rich Internet Applications(WAI-ARIA) 1.1, 2017
BISG (Book Industry study Group)	Quick Start Guide to Accessible Publishing, 2016
EDITEUR	Accessible Publishing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Publishers, 2011
DIAGRAM	Top Tips for Creating Accessible EPUB 3 Files DIAGRAM Production Standards Image description guidelines, 2011

표준의 주요 내용으로 제1부 저작지침은 전자책 저작자 및 개발자들이 EPUB 3.0기반의 전자책을 제작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근성 요소와 해당 사항에 따른 예제 코드로 구성되어 전자책 제작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현재의 저작지침에 대해서 2019년에 개정판을 준비 중에 있다. 제2부 인증 기준은 제1부 저작지침에 근거하여 접근성이 높은 전자책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과 인증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4개의 원칙, 8개의 지침, 35개 하위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지침 아래 139개의 상세 기준 및 기준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응용 가능한 샘플 코드가 추가되어 있다. 전자책 제작자는 제작 중에 앞서 언급한 표준 등을 참고해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EPUB 3.0 파일을 제작할 수 있다.

## 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검증 도구

W3C는 IDPF와 함께 전자책 접근성(EPUB Accessibility 1.0)을 2017년 발표하였으며, IDPF는 EPUB 3 Accessibility Guidelines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데이지컨소시엄은 EPUB 포맷에 대한 자동화된 접근성 검증 도구인 ACE(Accessibility Checker for EPUB)를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오픈소스 전자책 제작 도구인 Sigil을 통해 ACE는 플러그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및 국외의 다양한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림 2. ACE(Accessibility Checker for EPUB) 1.1.0



출처 : [daisy.github.io/ace](https://daisy.github.io/ace)

최신 버전인 ACE 1.1.0([daisy.github.io/ace](https://daisy.github.io/ace))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EPUB 콘텐츠에 대한 자동화된 접근성 테스트 실행 기능, 둘째, 문서의 메타데이터를 추출하고 접근성 관련 메타데이터 확인 기능, 셋째, 비교 대상의 다양한 문서 개요(목차, 제목 및 HTML 구조) 추출 기능, 넷째, 통합 테이블에서 EPUB 내 이미지와 그래픽 및 관련 대체텍스트 추출 기능, 다섯째, 시각장애인 중심의 접근성 감수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추출 기능, 여섯째, 명령 줄 도구(Command Line Tool)로 실행하거나 Javascript 노드 모듈로 통합하거나 HTTP API로 구동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 접근 전자책 제작사업」 추진 시 EPUB 3.0포





## ① 의미적 내용 명시 : 논리적 읽기 순서

출판물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해하려면 내용에 대한 읽기 순서가 중요하다. 장애인 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제작을 위해서도 원본 출판물의 읽기 순서대로 진행하 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자출판물은 각주, 미주, 참조, 표, 그림, 도표, 코 드 예제, 알림, 경고 등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정보를 포함한다. 이런 정보들이 본 문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XML 마크업 또한 본문 콘텐츠에 패턴 없 이 분포되어있다. 만일 콘텐츠가 명확하게 마크업되지 않고 부가 정보로 구분하 지 않는다면, 리딩시스템(Reading System)이 부가 정보 콘텐츠를 강제 재생하 게 되므로 독자는 문서를 읽는 데 방해 받게 된다.

〈그림 3〉과 같이 모든 전자책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이 되기 위해서는 출판 시 도서의 다양한 레이아웃 에 대하여 의미적 중요도를 해석하고 블록 단위 선형화가 필요하다.

그림 3. 의미적 내용 명시 : 논리적 읽기 순서



## ② 의미적 내용 명시 : 책의 구조화(표지, 서문)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EPUB 포맷은 ‘EPUB Type to ARIA Role Authoring Guide, 15 March 2019’, ‘EPUB 3 Structural Semantics Vocabulary, 5

January 2016’에 따라 각각의 도서 요소에 epub:type 정의식을 활용하여 책의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표 5〉와 같이 전자책에 대한 구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2016년 표준에 따 라 epub:type 사용을 추천하며 epub 3.1부터는 W3C WAI-ARIA role 혼용을 추천하고 있다. 〈그림 4〉는 책의 서문에 대한 구조화 표현의 예시이다.

표 5. 책의 구조화

Document Portions	Epub:type values	ARIA Roles
Cover	Cover	doc-cover
Preface	Preface	doc-preface
Chapter	Chapter	doc-chapter
Table of Contents	Toc	doc-toc
List of Images	Loi	
Page Breaks	Pagebreak	doc-pagebreak
End Notes	Rearnotes	doc-endnote
Page List	Page-list	

그림 4. 책의 서문에 대한 구조화



③ 의미적 내용 명시 : 내비게이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은 반드시 내비게이션 기능의 지원이 풍부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전자책을 탐색하는 방법은 제목(Headings)을 기준으로 탐색하는 것과 EPUB 내비게이션 문서(Navigation Document)를 이용하는 것이다. <표 6>과 같이 탐색을 지원하는 EPUB 내비게이션 문서를 통하여 전자책의 완전한 구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목차, 표 목차, 페이지 목차, 그림 목차 등을 명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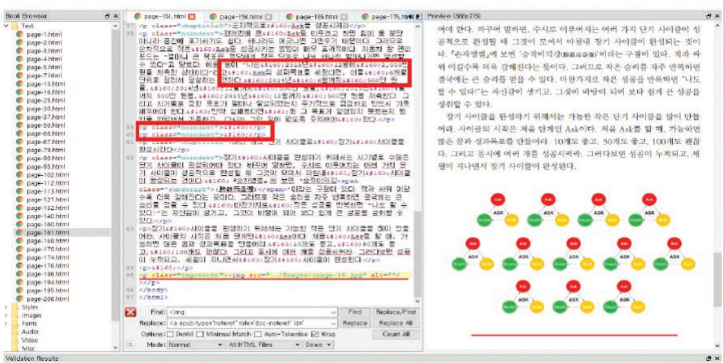
표 6. EPUB 내비게이션

구분	예제
목차 (Table of Contents)	<code>&lt;nav role="doc-toc" epub:type="toc" id="toc"&gt; &lt;h1&gt;Table of Contents&lt;/h1&gt;</code>
표 목차 (List of Table)	<code>&lt;nav epub:type="lot" id="lot"&gt; &lt;h2&gt;표 목차 &lt;/h2&gt;</code>
페이지 목차 (Page Navigation)	<code>&lt;section role="doc-preface"&gt; &lt;span epub:type="pagebreak" role="doc-pagebreak" title="1" id="page1"&gt;1&lt;/span&gt; &lt;h1&gt;서론&lt;/h1&gt;</code>
그림 목차 (List of Images)	<code>&lt;nav epub:type="loi" id="loi"&gt; &lt;h2&gt;이미지 목차&lt;/h2&gt;</code>

④ 스타일 구분 : 스타일 파일 분리 및 포매팅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은 태그와 스타일을 분리하여 시각적으로 내용을 유용하게 전달한다. <그림 6>과 같이 인라인 스타일 사용을 자제하고 주요 스타일은 CSS 파일로 분리한다. 그리고 전자책은 색과 관계없이 인식되어야 한다. 배경색과 이미지는 확실히 구분되어야 하며, 숨겨진 콘텐츠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고정 레이아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 스타일 파일 분리 및 포매팅



⑤ 스타일 구분 : WCAG 2.1 준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의 줄 간격(Line height, 인라인 요소의 높이를 설정하는 값), 단락 간격(Spacing Following Paragraphs), 문자 간격(Letter Spacing,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설정하는 속성), 단어 간격(Word Spacing, 공백으로 구분되는 하나의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설정하는 속성)은 <표 7>과 같이 WCAG 2.1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sup>10</sup> 을 준용하여야 한다.

표 7. WCAG 2.1의 Text Spacing(Level AA)

**Success Criterion 1.4.12 Text Spacing(Level AA)**

In content implemented using markup languages that support the following **text style properties**, no loss of content or functionality occurs by setting all of the following and by changing no other style prop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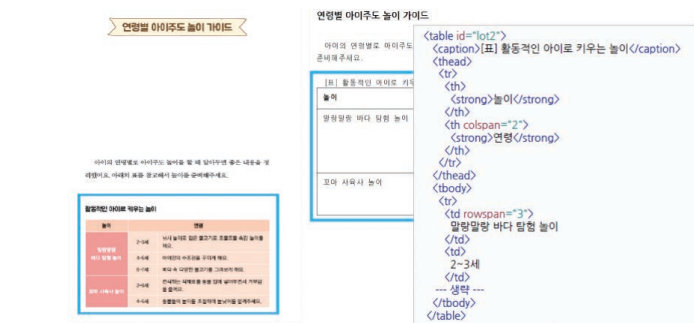
- Line height(line spacing) to at least 1.5 times the font size;
- Spacing following paragraphs to at least 2 times the font size;
- Letter spacing(tracking) to at least 0.12 times the font size;
- Word spacing to at least 0.16 times the font size.

10 www.w3.org/WAI/WCAG21/Understanding/text-spacing.html

⑥ 본문 구조화 : 본문 구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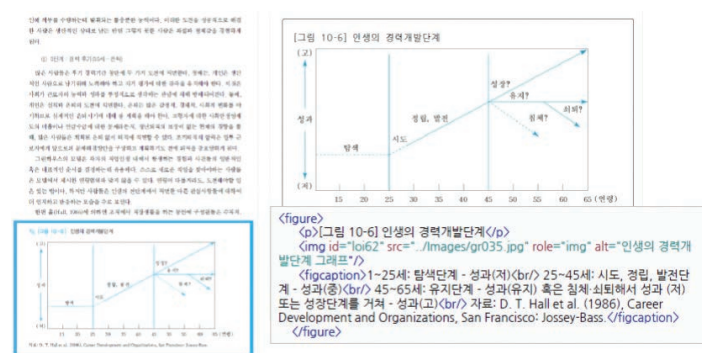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책의 본문에 있는 표, 그림, 각주와 미주, 수식 등이 장애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각각의 구조에 따라 목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7. 본문 구조화 : 표



〈그림 7〉과 같이 전자책 내의 ‘표’는 TTS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표의 내용은 이미지가 아닌 table로 처리해야 하며 ol, ul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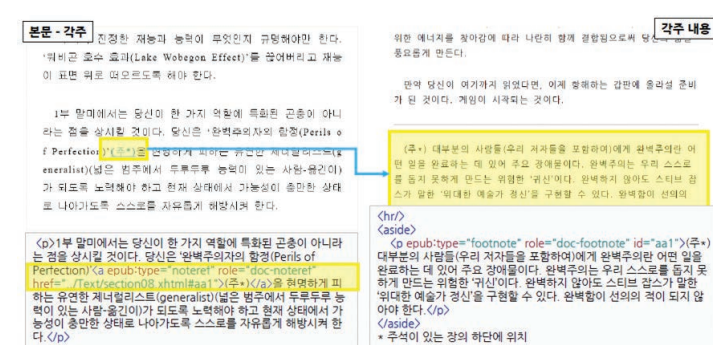
### 그림 8. 본문 구조화 : 그림



〈그림 8〉과 같이 전자책 내의 ‘그림’은 본문의 보조적인 요소로만 정의한다. 주

요 이미지는 반드시 대체텍스트(Alt Text)를 입력하여야 한다. 텍스트 중심의 이미지는 재-텍스트화하여 입력하고 의미 없는 장식 이미지는 제거한다. “아래 그림 참조” 등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해서는 안 되며 대체텍스트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림 9. 본문 구조화: 각주·미주



〈그림 9〉와 같이 전자책 내의 ‘각주’와 ‘미주’는 TTS 또는 스크린리더로 읽어주는 상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각주는 링크 처리, 미주는 링크-백링크 처리가 필요하다. 전자책 내의 의미적인 ‘수식’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그림 10〉과 같이 mathml 및 대체텍스트로 처리한다. 전자책 내의 문맥을 나눌 때는 혼란을 주어서도 안 되며, 의미적 연결 단락을 나누지 않는다.

그림 10. 본문 구조화 : mathml · 대체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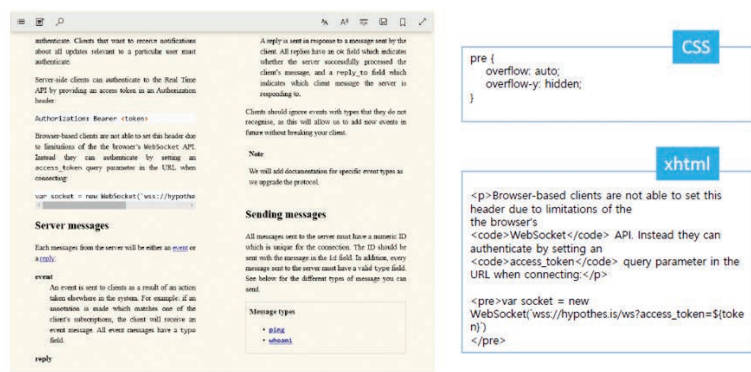




## ⑦ 본문 구조화 : 상호작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은 전자책 본문에 있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기능을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전자책 본문에 기술되어져 있는 언어는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출판물과 연결된 오버레이 소스를 가져와야 하며 SVG, Canvas도 이 미지와 동일한 접근성 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 텍스트 및 SVG 내부 텍스트에 대해서도 언어의 식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프로그램 코드와 시집 등의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미디어 오버레이는 EPUB Media Overlays 3.2 2019 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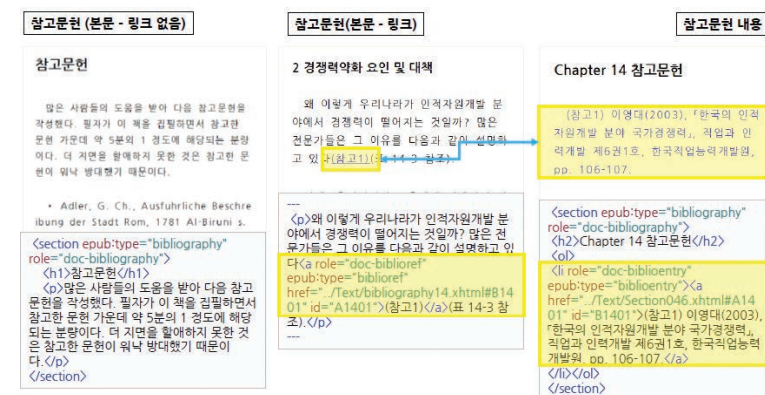
그림 11. 본문 구조화 : 상호작용



## ⑧ 전문과 부속문의 구조적 정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은 전문과 부속문에 대한 구조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중/소 목차의 자세한 하위 목차도 제공해야 한다. <그림 12>와 같이 참고문헌은 절로 구분하여 목록을 제공하고 ol로 목록화하여 링크와 백링크를 지원한다. 색인은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를 사용하고 ul로 목록화하여 링크와 백링크를 지원한다.

그림 12. 전문과 부속문의 구조적 정보



## 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서비스 사례(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디지털 포맷으로 생성된(Born Digital) 전자책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장애인 접근성을 지원하는 전자책 변환·제작사업과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뷰어 개발 및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 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뷰어 기능

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서비스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이란 대표적으로 전자책 뷰어<sup>11)</sup>를 의미한다. 해외 전자책 서점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이 잘 갖추어진 애플 iBooks, 아마존 Kindle, 구글 PlayBook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전자책 유통사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전자책

<sup>11)</sup> 전자책을 재생하고 볼 수 있는 도구로 리더기(Reader)라는 표현이 있지만, 본 원고에서는 웹 또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구동되는 뷰어(viewer)로 제한한다.





자책 뷰어’를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sup>12</sup> 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전자책 국제 표준 포맷(EPUB 3.0)을 활용한 전자책 서비스로 약 2,250여 권의 자료가 제공되며,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다. 매년 2~3천여 권씩 증가할 예정이다. 장애인 접근 가능한 전자책 서비스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대체 포맷 또는 매체가 아닌 일반 전자책 파일을 활용해 서비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써 기존 대체자료 제작 기간보다 절반 정도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정보접근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애인 접근 전자책 뷰어’의 주요 기능 및 PC와 스마트기기의 화면 구성은 <표10>와 같다.

표 10.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뷰어’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상세 기능
뷰어엔진	TTS 음성 엔진	음성 읽기 문장 단위 구성
	TTS 접근성 객체 읽기	이미지, 표, 주석, 수식, 링크, 종이책 페이지 번호 읽기
	TTS 후처리(상세 읽기 기능)	숫자 읽기, 반복문자 읽기, 리턴문자 읽기, 영단어 어퍼스트로피 읽기, 대소문자 구분 읽기, 한자 읽기, 포네틱 읽기, 유니코드 읽기
	이동 단위	글자, 단어, 문장, 문단, 페이지 등 이동
	객체 이동	목차, 이미지, 표, 수식, 링크 이동
	Annotation 이동	북마크 이동, 메모 이동
	객체 파싱	목차, 이미지, 표, 수식, 링크
	검색 및 이동	본문 검색 및 이동
기타	DRM 연동	상용 DRM 도입 및 연동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 연계	독서정보자료 연동, 메모, 북마크 읽은 위치 연동 등 내 서재 기능 연동

12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dream.nl.go.kr)은 전용 누리집과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및 아이폰 앱스토어에서도 무료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13.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뷰어



<그림 13>과 같이 장애인은 전자책의 유형에 관계없이 필요한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서관 또는 복지관은 점자도서를 제외한 디지털음성도서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아도 되고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출판사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제작 규정을 준수하여 글로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표준 기반의 전자책을 출판할 수 있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서비스는 전자출판 분야의 미래이며, 향후 장애인을 배제한 전자출판은 미래의 잠재적 이용자를 제한하고 디지털 자원의 수명을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감할 때 피곤한 눈을 가진 퇴근자가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 크기(폰트)를 확대할 수 있고, 서체와 색을 조정해야 하는 실독증 환자 또는 음성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사용자 맞춤형 기능을 통해 전자책에 접근하여, 독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과 콘텐츠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지원 향상과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전자책 인터랙션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5. 결론

텍스트가 PDF의 이미지에 인코딩된 경우 스크린리더(화면낭독프로그램)가 텍스트를 인식하지 못해서 시각장애인에게 텍스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르면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2018년도 국내 전자출판물의 ISBN 부여 건수 대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접근 전자책 제작 비율은 1%도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실명이나 시력 저하와 같은 인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인쇄된 서적 또는 이미지 형태의 전자책은 정보 접근의 장벽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디지털 세상이 장애인의 독서 환경을 변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혁신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장애인에게 스마트기기의 편리한 터치 및 음성지원 인터페이스 환경을 통해 전자책에 대한 독서 경험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최근 iOS와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으로 VoiceOver와 Talkback을 지원하며 이 기능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책의 본문을 읽을 수 있다. 국제단체 및 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접근 가능한 전자출판 기준을 준수하여 전자출판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스크린리더와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여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전자책 변환 사업과 뷰어 기능의 고도화 그리고 이와 관련한 표준 정책 수립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국립장애인도서관뿐만 아니라 국내 전자책 출판사, 유통사도 해외 전자책 서점처럼 접근성이 잘 갖추어져 모두가 장애 등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서울:문화체육관광부. pp.21-22
- 김호다, 주애란(2018). 노인 감염관리를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가이드라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4), 1-9
- 나무위키 : namu.wiki
- 위키피디아 : ko.wikipedia.org
- inclusivepublishing : inclusivepublishing.org/publisher
- github : github.com/w3c/epubcheck
- DAISYconsortium : daisy.github.io/ace
- W3C : www.w3.org/WAI/WCAG21/Understanding/text-spacing.html



전자책 납본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홍영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사무관

## 시작하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명시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내에서 발행·제작된 자료를 납본 수집하고 있으며, 구입, 기증, 교환, 자체생산(영인 및 디지털화), 자체수집 등을 통하여 온·오프라인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18년 12월 말 국립중앙도서관 오프라인 자료는 11,788,597책(점)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자료는 16,233,182건을 수집하여 오프라인 소장 자료 수를 추월하였다. 각국의 국립도서관은 자국에서 발행·제작된 자료를 수집하여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납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의 국립도서관들은 오프라인 자료뿐만 아니라 온라인 자료도 납본받아 보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오프라인 자료에 대한 납본제도를 시행하였고, 온라인 자료는 도서관법 개정(‘16.2.3.)에 따라 2016년 8월 4일부터 납본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시행 3년을 맞아 온라인 자료 납본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판매용 전자책 납본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 온라인 자료 수집

국립중앙도서관은 2009년 3월 도서관법 제20조2(온라인 자료의 수집)가 신설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였다. 또한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였다.

2010년 1월에는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를 제정·공포

하여, 온라인 자료의 종류를 웹사이트와 웹자료로 나누고, 웹자료는 다시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로 구분하였다. 또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온라인 자료 수집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자세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와 형태는 <표1>과 같다.

표 1.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

###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1. 웹사이트
2. 웹자료
  - 1) 문자자료(전자책, 전자저널, 학위논문, 보고서, 전자신문 등)
  - 2) 음성·음향자료(음악자료, 음성자료, 음향자료 등)
  - 3) 영상자료(방송, 영화, 공연, 이러닝자료 등)
  - 4) 이미지자료(사진, 회화 등)

###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형태

1. ISO(국제표준화기구), KS(한국산업규격) 및 국내외 표준 기구를 통해 공표된 표준 규격에 해당하는 모든 파일 형태
2. 그 밖에 현재 각종 프로그램에서 활용되고 있는 파일 형태
3. 그 밖에 정보기술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파일 형태

2012년에는 국제ISBN관리기구, ISSN국제센터의 지침에 따라 인쇄 자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자료에 대해서도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출판계, 유통계 등이 모여 전자책 납본에 대한 업무협의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2013년에 발의된 김희정 의원의 「도서관법」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 통과되었고, 2016년 2월 3일부터는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온라인 자료에 대한 납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온라인 자료 납본 시행

2016년 2월 3일부터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온라인 자료를 납본할 수 있었지만 준비 과정을 거쳐 실제 시행은 6개월 뒤인 2016년 8월 4일부터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전자책, 전자저널)를 납본 수집하게 되었다.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른 온라인 자료 납본에 관한 주요 내용은 <표2>와 같다.

표 2. 개정된 온라인 자료 납본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납본대상자료	1. 국제표준자료번호(ISBN, 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2. 공공간행물 디지털파일
납본의무자	1.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국내에서 발행·제작한 개인 또는 단체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납본부수	2부(공공간행물의 경우 3부)
납본방법	1. 해당 자료와 서지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 2. 해당 자료와 서지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
납본보상	판매용 자료로서 열람용 납본 부수에 대해 정가 보상
제출기한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 세계 주요국의 납본 제도

자국(自國)에서 발간되는 자료를 납본받아 영구 보존하는 것은 국가대표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며, 각국의 국립도서관은 납본 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인쇄자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자료도 납본 수집하고 있으며,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무상으로 납본받고 있다. 일본은 판매용 온라인 자료는 납본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주로 비매품을 납본 수집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 납본의 주요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표3>과 같다.

표 3.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주요 내용

국가별	근거법령	납본대상자료	납본부수	납본보상금
독일 국립도서관	독일국가 도서관법	· 인쇄물, 전자출판물, 네트워크 디지털자료, 외국발행 독일 관련자료	· 인쇄자료 : 2부 · 외국발행 : 1부	무보상
미국 의회도서관	저작권법	· 단행본, 온라인자료, 녹음자료, 영화자료, 기계가독 포맷, 연속간행물 등	· 도서, 비도서 : 2부 · 온라인자료 : 1부	무보상
영국 국립도서관	납본도서관법	· 단행본, 잡지, 신문, 활판인쇄자료, 도표, 온라인출판물 등	· 6부(국립도서관 1부, 납본도서관 5부)	무보상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	국립국회 도서관법	· 도서 : 단행본, 사진자료, 지도 · 비도서 : CD-ROM, DVD 등 · 온라인자료 : 무상자료만 해당	· 정부간행물 : 30부 · 행정, 지자체 : 5부	보상(온라인자료 무보상)
중국 국가도서관	국가정부 행정조례	· 인쇄자료, 디지털(온라인)자료	· 인쇄자료 : 3부 · 디지털, 시청각자료 : 1부	무보상 (귀중본 보상)
프랑스 국립도서관	문화재 법전	· 인쇄물, 온라인출판물, 도표, 사진, 포스터, 시청각물, 멀티미디어자료 등	· 단행본, 신문, 잡지 : 1부 · 시청각 자료, 전자자료 : 2부	무보상

## 온라인 자료 납본 시스템 구축

### ①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온라인 자료의 납본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seoji.nl.go.kr)에 디지털파일을 전송받을 수 있는 온라인 자료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온라인 자료 전송을 위하여 2012년에 개발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디지털파일 납본자료의 업로드 기능을 2014년에 추가하였고, 2016년 8월에는 온라인 자료의 납본 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출판사는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해 ISBN, ISSN, CIP, 납본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출처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누리집

### ② 통합자료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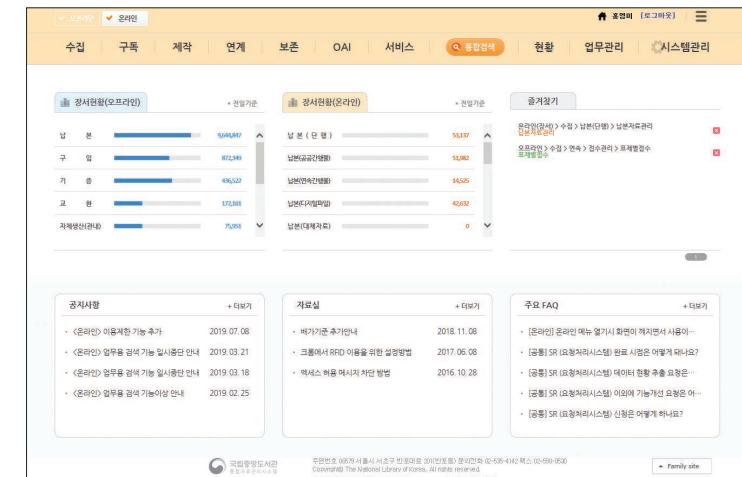
「도서관법」개정에 따라 온라인 자료 납본이 시행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

년 10월 11일 온·오프라인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rea Library Information System II, KOLIS II, kolis.nl.go.kr)을 정식으 로 개통하였다. 이전에는 오프라인 자료는 C/S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KOLIS, 1998년)에서, 온라인 자료는 웹 기반의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Digital Contents Management System, DCMS, 2008년)으로 정보구조 및 업무기능 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었다.

통합자료관리시스템(KOLIS II)은 웹기반 인터페이스의 온라인 자료 납본시스템을 신설하고, 운영 중인 통합정보시스템과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의 업무기능을 통합 및 개선하였으며,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등 도서관 관내 자료관리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자료관리기능으로 설계·구축하였다.

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가대표도서관의 국가문화유산과 지식정보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온라인 자료 납본시스템 및 온라인 자료 서비스 환경 구축으로 진화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 전자책 납본의 현재

### ① 온라인 자료 납본 시행 이전

온라인 자료에 대한 납본법 시행 이전에는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존 가치가 있는 전자책을 수집하였다. 전자책 선정은 온라인 자료 관련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온라인 자료 선정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전자책은 교보문고, YES 24, 누리미디어, Y2BOOKS, 북큐브, 웅진오피엠에스, 한국학술정보,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등 유통사를 통해 구입하였으며, 출판사는 유일하게 커뮤니케이션북스가 직접 국립중앙도서관에 전자책을 납품하였다. 전자책은 B2B로 1책(copy) 구입하였으며, 전자책의 원본 파일은 영구 보존하고 있다. 구입한 전자책의 서비스는 유통사 뷰어를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자료 납본법 시행 이전인 2016년 7월까지 수집한 전자책은 총 172,120책이다.

### ② 온라인 자료 납본 시행 이후

2016년 8월 4일부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 받은 전자책에 대한 납본을 받고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판매용 온라인 자료의 경우 보존용과 열람용 파일 2부를 납본받고 있다. 판매용 자료에 대한 납본 보상금은 「도서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의 부수(1부)에 대해서 시가(정가)를 보상하고 있다.

2018년도 중 전자책에 대한 ISBN 부여 건수는 135,101건인 반면, 납본받은 전자책은 16,998책에 불과하여 ISBN 부여건수 대비 전자책 납본율은 겨우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쇄책의 경우 납본제도의 역사가 50년 이상 경과하여 제도적으로 안착되었으나, 전자책 납본은 납본 시행 초기로서 제도적으로 안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납본 전자책 규모, 분류, 이용법

### ① 전자책 납본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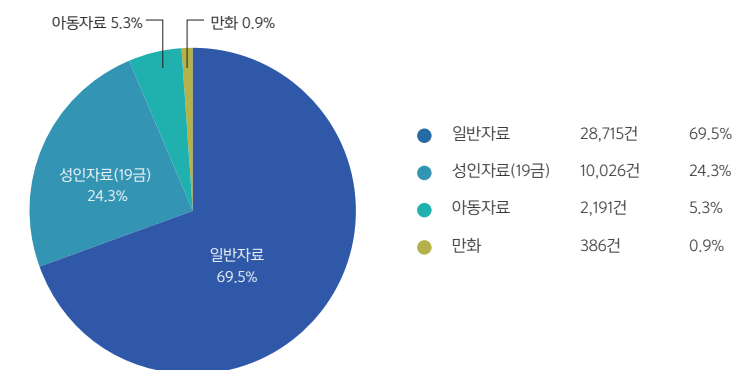
전자책 납본 첫해인 2016년에는 1,818책이 납본되었으며,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41,318책이 납본되었다.

표 4. 연도별 전자책 납본현황

구분	2016.8.4.	2017	2018	2019.6.30	계
전자책	1,818책	16,785책	16,998책	5,717책	41,318책

납본된 전자책 중 일반자료는 6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표지에 ‘19금’이라고 표시된 성인자료가 24.3%, 아동자료는 5.3%, 만화 0.9% 순이다. 이중 만화는 단행본 형식의 만화책을 만화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에서 보상을 통해 납본한 전자책은 37,628건(91.1%)이며, 무보상을 통해 납본한 전자책은 3,690건(8.9%)이다.

표 5. 납본된 전자책 구성 비율



## ② 전자책 분류 및 메타데이터 구축

전자책의 분류는 인쇄책과 동일하게 한국십진분류법(KDC)으로 분류하고 있다. 목록 데이터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ean MACHine Readable Cataloging, KORMARC)을 적용하는 인쇄책과 달리 전자책은 MODS(Metadata Object Description Schema)를 적용하고 있다. MODS는 웹 시대의 디지털자원에 특화된 국제 표준 메타데이터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메타데이터를 기본으로 국내 환경과 기관 실정을 반영하여 한국형 MODS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 ③ 전자책 이용

납본받은 전자책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동용 전자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전자책은 열람용 1부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며, 동시 접속자 수는 1명으로 제한된다. 전자책은 다운로드 및 저장이 불가하고, 화면 캡처(복사) 및 출력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전자책 열람만 가능하다. 인쇄책은 복사가 가능하나 전자책은 출력을 할 수 없다.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따라 전자책도 인쇄책과 동일하게 도서관 내에서 출력 서비스 제공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파일 유출에 따른 저작권 침해, 전자책 납본 출판사의 우려 등으로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납본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된다. 또한 보안을 위한 방화벽이 구축되어 있으며, 도서관 내 납본 전자책 전용 뷰어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본 전용 뷰어는 열람용 DRM을 적용하여 서비스 중이다. 전자책은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열람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림 3.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디지털열람실



## 전자책 콘텐츠의 속성에 따른 납본 특징

전자책을 납본하기 위해서는 ISBN을 먼저 부여받아야 한다. ISBN 통보 시 전자책의 파일 형식은 EPUB2, EPUB3, PDF, 북앱(iOS), 북앱(안드로이드), 북앱(기타OS), JPG, 기타 등 8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2018년도에 부여된 전자책의 파일 유형을 살펴보면 EPUB이 68.86%, PDF가 17.05%, 기타(jpg, xml 등) 14.01%, 북앱이 0.08% 순으로 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6. 2018년도 ISBN이 부여된 전자책 유형별 통계

구분	EPUB	PDF	북앱	북앱	북앱	기타 (jpg, xml 등)	계
			iOS	기타 OS	안드로이드		
건수	93,012건	23,036건	29건	21건	69건	18,934건	135,101건
비율	68.86%	17.05%	0.02%	0.01%	0.05%	14.01%	100%

전자책 납본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에 전자책을 업로드를 하면 ISBN시스템과 서지정보가 연계되어 있어, ISBN을 국립중앙도서관에 통보하여야 납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전자책 납본은 EPUB과 PDF 파일만 업로드 할 수 있으며, 연재 중인 웹툰 및 웹소설 등은 연재가 완료된 후 단행본 형식으로 제작되어야 납본할 수 있다. 납본된 전자책의 파일 형식은 70.1%가 EPUB이고, PDF가 29.9%를 차지하고 있다.

표 7. 납본된 전자책 유형별 통계

구분	납본책수	EPUB		PDF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6.8.4	1,818건	982건	54.0%	836건	46.0%
2017	16,785건	13,731건	81.8%	3,054건	18.2%
2018	16,998건	9,661건	56.8%	7,337건	43.2%
2019.6.30	5,717건	4,594건	80.4%	1,123건	19.6%
계	41,318건	28,968건	70.1%	12,350건	29.9%

## 전자책 납본 활성화의 걸림돌과 정책

### ① 전자책 납본의 문제점

2016년 8월 4일부터 온라인 자료의 납본이 시행되면서, 상업용 온라인 자료에 한해 납본에 따른 보상금(정가)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출판사의 경우, 온라인 자료의 제작이 쉬운 점을 이용하여 납본용 전자책을 별도로 제작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통상적 거래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고가의 보상금을 청구하는 등 전자책 납본을 보상금 수령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본 악용 사례로 의심되는 전자책은 ‘도

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납본 수집의 타당성 여부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한다.

- 저작권이 만료된 해외 저작물 및 정부기관(특허청, 중소기업청)에서 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등을 다운로드받아 제작한 전자책
- 개정판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주기(월 1회 이내 또는 연 3~6회 이상)로 연속적으로 발행된 전자책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용을 허용한 법률 등을 다운로드받아 제작한 전자책
- 온라인 자료 납본 시행 이후 판매가를 터무니없이 인상하여 납본보상금을 청구(3,000원→20,000원)
- 특정 내용 또는 페이지를 반복적으로 복사하여 전체 분량을 늘린 전자책

### ②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도서관법」제20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 자료 및 법 제20조의2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일반자료분과위원회, 온라인자료분과위원회, 디지털파일자료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위원회별 임무는 <그림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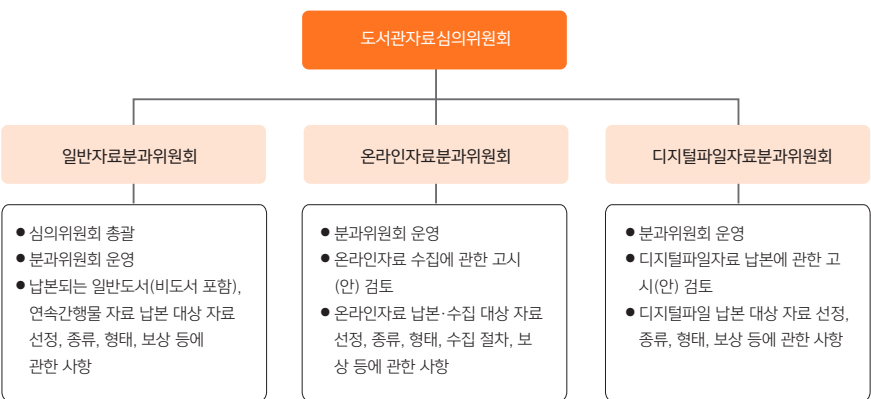
### ③ 온라인자료분과위원회

온라인자료분과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1명,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라인 자료 수집에 관한 고시(안) 검토 및 온라인 자료 납본·수집 대상 자료 선정, 종류, 형태, 수집 절차,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온라인 자료 납본 시행 이후, 납본받은 전자책에 대한 첫 심의 회의가 2016년 12월에 열렸다. 이 심의에서는 20개사 808건 보상청구액 33,410,500원에 대한 심



의가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는 대상 자료 전체가 납본수집 타당성 부적정으로 결정되었다.

그림4.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



2017년에 재심의 회의가 3회 열렸으며, 2개사 280건 보상청구액 3,495,500원에 대한 서면심의가 진행되었으나, 이때에도 모두 납본수집 타당성 부적정으로 결정되었다. 2018년에는 2회의 출석심의 회의가 열렸으며, 서면심의 2회, 서면재심의가 1회 진행되었다. 2019년에는 6월 기준으로 2회의 출석심의 회의에서 납본수집 타당성 등을 심의 결정하였다.

온라인자료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온라인 자료들의 심의 과정을 거쳐 납본제외자료, 납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자료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및 「납본수집지침」에 반영하여 납본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림 5. 2019년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온라인자료분과위원회 회의 장면



## 더 다양한 종류의 전자책 납본을 위한 제언

도서관법상 ISBN이 부여된 모든 온라인 자료가 납본 대상이지만, 현재는 PDF와 EPUB 파일로 된 것만 납본을 받고 있다. 전자책의 파일 형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특정 기기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OS) 등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은 더욱 증가 추세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납본받은 전자책의 보존은 물론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고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전자책의 보존 가치를 따져 납본을 받을 것인지, 도서관은 과연 현재 자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지, 나아가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양한 자료들이 입수되었을 때 그 자료들을 모두 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자책 납본의 미래

전자책 납본제도가 시행된 지 3년여가 경과된 현재에 납본 대상 자료의 10% 정도가 납본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책 납본 시행으로 종이책과 더불어 국

가문화유산과 지식정보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인쇄책 등 오프라인 자료의 납본제도도 1965년 시행된 이래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착되었듯이, 전자책을 포함한 온라인 자료의 납본제도도 안착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전자책 납본을 통한 보존의 중요성은 도서관, 출판계, 유통계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본다. 전자책 납본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출판·유통계의 파일 유출 및 해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적인 협력과 홍보를 통해 능동적, 자발적 납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마치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점에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전자책 납본을 위한 법 제정부 터 시행까지의 과정, 온라인 자료 납본시스템 구축, 전자책 납본 현황 및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전자책 납본 3년을 맞이하여 어깨가 한층 무거워짐을 느낀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전자책 납본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며, 개발하고, 연구하는 등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아갈 것이다.



# 저작권 전자출판과 도서관, 그리고 저작권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1. 서론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책과 더불어 인류 문명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발전해 왔다. 곧 출판 기술의 발달사와 맞물려 도서관의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고대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도서관의 위상이 현대에 와서도 무너지지 않은 배경에는 ‘독서’의 최종 보루라는 사명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책과 독서의 중요성이 디지털 기술의 등장과 함께 퇴색하면서 도서관 또한 변모의 기로에 서 있는 중이다. 그리고 21세기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정보화 시대를 건너기 위한 도서관의 도전과 응전을 더욱 힘겹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이다.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은 도서관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출판(出版; publishing)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하여 온 개념이다. 인류 문명사에 있어 문자의 출현 이후 다양한 필사매체가 등장하고 다양한 문명이 세계 곳곳에서 발흥하는 동안 문자 복제술은 필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동양의 목판인쇄술 및 금속활자 발명에 이어 서양의 구텐베르크에 의한 활판 인쇄술이 상용화됨으로써 15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출판에 의한 대량복제시대가 열리면서 저작물을 복제(copy)할 수 있는 권리(right)로서의 저작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인쇄술을 바탕으로 한 출판의 발전은 인류 문명사뿐만 아니라 문화사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인쇄술을 발명하였다는 것은 오랜 필사의 시대, 즉 사본(寫本) 시대에서 간본(刊本) 시대로 전환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러한 인쇄·출판은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적 대중매체로 기능하여 왔다.<sup>1</sup> 그러나 수 세기에 걸쳐 아날로그 미디어의 대표적인 분야로 군림하여 온 출판은 불

과 20여 년 남짓한 21세기를 지나면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바로 디지털 기술에 의한 뉴미디어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더불어 아날로그 복제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신속한 디지털 복제술이 발달한 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도서관 업무에 있어 저작권 문제는 어떠한가?

과거 종이책만 존재했던 시절에는 사실 도서관과 저작권은 그다지 관련성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저작권자로부터 출판권을 획득한 출판사가 정당한 방법으로 발행한 유형물로서의 ‘책’을 구매하거나 납본을 받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열람 또는 대출하는 과정의 연속이 곧 도서관 업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모든 매체의 산업화 과정은 물론 매체 제작 과정에 적용됨으로써 기존의 매체 구분이 무의미해지는가 하면 기존 매체가 함유하고 있는 본질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이는 결국 오랜 세월 동안 각인된 매체의 개념까지 바꾸어 놓고 있는 중이다. 출판 및 도서관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출판은 단지 종이책만을 뜻하는 좁은 개념에서 디지털 정보를 서비스하는 넓은 개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도서관 또한 종이책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포괄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출판 및 도서관 서비스의 개념 변화는 문화 환경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출판 및 도서관의 형태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까지도 모색해야 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sup>2</sup>

이 논고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자출판 환경과 도서관의 문제를 ‘저작권’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김기태(2010),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 한국출판학회 편, 《한국출판학연구》 제36권 제1호(통권 제58호), 234~235쪽 참조.

2 김기태(2017),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출판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회 편, 《한국출판학연구》 제43권 제4호(통권 제80호), 43쪽 참조.

## 2. 전자책 저작권 쟁점 사례 01 : 과거

저작권법에서는 예전부터 출판을 가리켜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출판권’은 ‘종이책’에만 미치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 이른바 전자책(e-Book)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법제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내용은 같은데 매체 구현 기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남으로써 실무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전자책이 유입되면서 도서관에서의 열람 또는 대출 서비스에도 적잖은 혼란이 야기되기는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미 출판권 설정 계약을 통해 종이책을 발행하고 있었던 출판사에서는 전자책 서비스를 서두르는 신종 플랫폼 사업자 및 유통 업체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배타적 발행권’이 신설됨으로써 이 같은 혼란은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 종이책과 전자책, 아날로그 납본과 디지털 납본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기존의 출판 개념은 ‘종이’와 ‘인쇄’를 바탕으로 ‘책’을 생산하는 행위로 인식되었으며, 이 같은 개념 정의는 출판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와 함께 출판물의 새로운 유형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환경에 비추어볼 때 기존의 출판 개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및 법제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판의 재개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과 함께 출판의 재개념화 논의가 이미 제기된 바 있지만,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sup>3</sup>

연구자는 일찍이 출판의 디지털화 양상에 따른 문제점을 바탕으로 ‘책’, ‘독서’, ‘출판’을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sup>4</sup>

3 김기태(2017). 앞의 논문, 46쪽.

4 김기태(2010). 앞의 논문 참조.

우선 ‘책’은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하였다.

첫째, 책은 특정다수 혹은 불특정 다수인 공중을 대상으로 공표된 것으로서 독자로서의 공중이 구매 혹은 대여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그 이용형식은 반드시 ‘읽기’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보기’와 ‘듣기’ 등을 이용하거나 ‘쓰기’를 동시에 공감각적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책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담고 있어야 한다.

셋째, 책은 인쇄된 것뿐만 아니라 필사한 것을 포함하여 기존의 종이책과 디지털화된 것으로서의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망라하며,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문헌번호센터를 통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을 부여할 수 있는 것들을 특징하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

넷째,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구현하는 단말기 혹은 컴퓨터 화면 그 자체는 책이 아니며, 그러한 단말기 혹은 컴퓨터 화면에 구현된 내용물을 가리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책은 비정기간행물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독서’는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하였다.

독서란 특정다수 혹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공표된 것으로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그 내용으로 하는, 국립중앙도서관 문헌번호센터를 통하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부여된 매체를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혹은 동시에 읽기·보기·듣기를 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끝으로 ‘출판’은 다음과 같이 재개념화하였다.

출판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창의적인 편집활동을 통하여 인쇄술 또는 기계적·화학적·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책의 형태로 다수 복제하거나 각종 전자기에 탑재하여 독자에게 분배함으로써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는 문화적·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아울러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령 개선방안을 내놓은 연구<sup>5</sup>에서도 적극적인 법제 개선을 주장한 바 있다. 먼저, 저작권법에 ‘배타적발행권’이 신설됨에 따라 무의미해진 ‘출판권’을 그대로 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기왕에 ‘배타적발행권’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출판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디지털 출판의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이었더라면 이상적이었겠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적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이 신설된 점을 감안하여 차선책으로 ‘배타적발행권’의 설정계약에 따라 종이책 혹은 비종이책 출판에 관한 배타적 이용 허락의 조건과 범위가 정해져야 함을 제시한 것이다. 곧 기존의 ‘출판권’으로 대변되었던 종이책 출판 관행을 ‘배타적발행권’으로 대체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이로써 ‘출판’의 개념 또한 종이책과 비종이책의 구분 없이 이루어져야 함과 동시에 ‘복제·배포’의 범주에 머물렀던 ‘발행’의 개념을 ‘복제·배포 및 공중송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명백히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있어 ‘출판’의 개념적 정의를 둘러싼 혼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출판’의 정의규정을 확실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동시에 종이책과 비종이책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만큼 이를 망라하여 “출판”이란 이 법에 의

5 김기태(2013),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출판학회 편, 《한국출판학연구》 제39권 제1호(통권 제64호) 참조.

한 출판사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인쇄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및 전자적 방식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 형태의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공중송신에 의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형식의 간행물을 제작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sup>6</sup>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행물’의 정의 또한 “한국문헌번호센터를 통하여 한국문헌번호(ISBN)를 부여받은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3. 전자책 저작권 쟁점 사례 02 : 현재

현행 법, 제도 아래서 전자책을 둘러싼 저작권 쟁점 사례를 살펴보면 관련 법령의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sup>7</sup>

이 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 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먼저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6 김기태(2010), 앞의 논문, 254~255쪽 참조.

7 법률 제14636호, 2017.3.21.에 개정되어 2017.4.22.부터 시행됨.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그리고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결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출판’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이며, 간행물에는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이 해당된다는 점에서 종이책과 비종이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비종이책으로서의 ‘전자출판물’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sup>8</sup> 더욱이 출판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책’이라는 명약관화된 표현이 아닌 ‘간행물’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출판물의 개념적 정의가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저작권법<sup>9</sup>

이 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출판 또한 여기서 밝히고 있는 ‘문화 및 관련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그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은 법률이다.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출판과 관련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의 집합물”을,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또, ‘복제’는 “인쇄·사진촬영

·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배포’는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 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 특히 저작권법 제63조에서는 ‘출판권의 설정’에 대해 규정하면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출판권)를 설정할 수 있다.”,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곧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출판권은 ‘종이책’에만 미치는 권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출판권 관련 조항의 한계를 불식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바로 ‘배타적발행권’이며, 이는 제57조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배타적발행권)를 설정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배타적발행권자)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고 하여 ‘종이책’ 발행에는 기존의 출판권이 미치지만 그 밖의 발행 유형, 즉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등 새로운 출판물 유형에는 신설된 배타적발행권이 미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 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저작물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포함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출판 형식에 대한 저작권법 측면에서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출판권’이라는 명시적 개념에는 기존 개념에 국한된 종이책만이 그 대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즉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멀티

8 물론 종이책의 경우에도 그것이 출판물로 인정받으려면 출판사 신고를 마친 곳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김기태(2013), 35쪽.

9 법률 제14634호, 2017.3.21.에 개정되어 2017.3.21.부터 시행됨.

미디어북 등 새로운 출판물 유형에 대해서는 ‘배타적발행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도서관법<sup>10</sup>

이 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 접근 및 이용의 격차 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직접적으로 ‘책’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책이 없는 도서관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 법 또한 출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하며, 여기서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망라하는 개념이다. 또한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주된 납본 자료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출판물이다. 결국 도서관법에서조차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출판’ 혹은 ‘책’의 개념을 조속히 확립하여 도서관법 개정 시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sup>10</sup> 법률 제13960호, 2016.2.3.에 개정되어 2016.8.4.부터 시행됨.

### 4) 문화산업진흥기본법<sup>11</sup>

이 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문화산업’의 범주에 출판을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 또한 출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조 정의 규정에서는 먼저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임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산업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sup>11</sup> 법률 제14839호, 2017.7.26.에 개정되어 2017.7.26.부터 시행됨.

또,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등)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하며,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디지털콘텐츠”를, 그리고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각각 말한다.

결국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도 출판물 ‘인쇄’ 및 ‘정기간행물’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함으로써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출판물로서의 ‘책’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판물이야말로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유형으로 얼마든지 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을 관련법제 개정의 시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콘텐츠산업진흥법<sup>12</sup>

이 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에서 살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유사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산업적 측면보다는 콘

텐츠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먼저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또,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료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각각 말한다.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출판 형식의 경우 그것이 콘텐츠에 불과한지 아니면 출판 행위인지 애매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이후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은 콘텐츠 플랫폼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소비자들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콘텐츠를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의 스낵컬처형 웹콘텐츠가 등장하며 차세대 길러 콘텐츠로 부상하고 있다.”<sup>13</sup> 는 진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다 보니 “개인들이 작가로서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웹소설을 직접 연재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까지 해서 유통사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지극히 한국적 시스템으로 ‘웹출판’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sup>14</sup> 는 분석처럼 ‘웹소설’이니 ‘웹출판’이니 하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결국 이 법을 출판에 적용한다면 원고(原稿)가 되는 저작물은 콘텐츠에 해당하고, 출판사는 콘텐츠사업자, 편집자는 콘텐츠제작자, 독자는 이용자에 해당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화산업발전기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법

<sup>13</sup> 이용준·최연(2017), 「외국 웹소설의 현황과 특성을 통해 본 국내 웹소설 발전의 시사점」, 한국출판학회 편, 《한국출판학연구》 제43권 제3호(통권 제79호), 115쪽.

<sup>14</sup> 이승환(2017), 「웹출판의 발전과 과제」, 한국출판학회 편, 《한국출판학연구》 제43권 제2호(통권 제78호), 99쪽.

<sup>12</sup> 법률 제14839호, 2017.7.26.에 개정되어 2017.7.26.부터 시행됨.

을 출판 관련 법제 개정에 적극 활용하여 주요 콘텐츠로서의 출판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법률별 출판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법률명	주요 내용	문제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을 직접 거론하고 있는 유일한 법률임. 출판, 출판사, 간행물, 전자출판물 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출판을 종이책과 비종이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으나 ‘책’이 아니라 ‘간행물’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쓰고 있어 출판물의 개념적 정의가 애매함.
저작권법	출판권의 대상인 ‘출판’을 종이책으로 한정함. 배타적발행권을 통해 출판권의 한계를 보완함.	출판권이라는 명시적 개념에 종이책만 포함됨으로써 전자책 등 새로운 출판물 유형은 ‘출판’의 영역이 아니라는 한계를 드러냄.
도서관법	‘도서관자료’에 대해 정의하면서 ‘인쇄자료’ 등을 열거함.	도서관의 주된 자료가 출판에 의한 ‘책’임에도 ‘책’ 또는 ‘출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전혀 없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구체적 산업으로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을 예시함.	출판을 ‘인쇄’ 및 ‘정기간행물’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해서 디지털 출판 유형을 포함하지 않으며, 문화산업의 결과물에 ‘책’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는 한계를 지님.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연계하여 콘텐츠, 콘텐츠산업, 콘텐츠 제작, 콘텐츠제작자, 콘텐츠 사업자 등의 정의규정을 둠.	출판산업에 이를 원용할 경우 유용한 측면도 있으나, 개념별 범주가 애매하여 적용하기 어려움.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제외하고 관련 법률마다 출판 또는 출판에 해당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 및 접근이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출판물의 분야별(출판권,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도서관자료 등) 활용에 있어 연관성이 다르고, 실제 산업과의 충돌 양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도서관 및 출판산업 진흥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도서관법 및 출

판문화산업진흥법의 발전적 개정을 바탕으로 다른 법률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을 이루어 내려는 노력이 관련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책당국의 합치된 의지로써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4. 도서관과 저작권의 미래

### 1) 저작권법과 도서관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에서 저작권과 도서관의 관련성을 담고 있는 유일한 조항이므로 도서관과 저작권의 현재를 살필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곧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이 규정에 따라 각종 도서관 시설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저작물의 복제와 전송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설의 범주와 복제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이 조항은 도서관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의 범위를 조절하는 한편, 전자도서관의 구축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면서도 저작권자에게 상응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거나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권리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이 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가.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에게만 도서관 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제외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개인이 설립한 도서관 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위와 같은 시설들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모두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복제의 원본이 되는 저작물은 도서관 등의 시설에 보관된 자료여야 하므로 시설의 바깥에서 임의로 구해다가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먼저 이 규정에 따르면, 조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을 복제하여 1인 1부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용도가 조사나 연구가 아닌 감상용 혹은 독서용이라면 원칙적으로 복제를 해주어서는 안 되며, 도서의 일부분이 아닌 한 권 분량 전체를 복제해 주거나 한 사람에게 같은 복제물을 여러 부 복제해 주어도 안 된다. 이 경우 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열람 목적으로 복제, 전송받은 도서 등도 포함된다. 다만, 디지털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이는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자료로서의 저작물이 멸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복제를 해서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복제의 방법은 복사뿐만 아니라 사진 또는 영상물로의 복제나 마이크로필름에 의한 복제, 그리고 디지털 복제도 허용된다. 하지만 그 도서 등이 이미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 등이 이를 디지털화할 수 없다. 이는 전자도서관 구축의 일환으로 도서관 등이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을 디

지털화하는 경우에 이미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도서관 등이 이를 직접 디지털화하기보다는 판매되고 있는 도서 등의 이용을 허락받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자도서관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전자출판이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보관용으로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해당 복제물이 절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복제물을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에 의해 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거나 구입하는 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수록되어 있는 매체가 절판되었거나 그 매체를 발행한 곳이 이미 문을 닫아 더 이상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상황 등을 말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디지털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 도서관 등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위해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 전송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시 열람자 수는 그 도서관이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을 허락받은 도서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 등은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위해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도서관 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 전송은 그 다른 도서관에서의 그 도서 등에 대한 구매수요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저작권자나 출판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작권법에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도서 등의 경우에는 복제, 전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디지털 형태의 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앞에서 살펴본 도서관에서의 복제의 경우 일단 디지털 방식의 복제가 허용된다고 했지만, 해당 도서가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면 그것을 똑같이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 사이에 도서 등을 전송하거나 그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출력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학 등을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의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전자도서관의 구축과 운영으로 인해 저작권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저해될 수 있으므로 전자도서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만으로는 당면한 도서관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 2) 도서관을 둘러싼 저작권 이슈

공공기관으로서 도서관이 안고 있는 저작권 문제, 특히 전자책을 둘러싼 저작권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요약컨대, 도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수업 목적을 위한 지원, 도서관에서의 공연,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부딪히는 저작권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 자료의 대량 디지털화만 보더라도 “설령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서관이라고 하더라도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해 이를 이용자에게 무제한으로 제공할 경우 도서 등의 판매량을 떨어뜨려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5</sup>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교사나 교수 및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있어서만큼은 제한을 두지 말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 규정, 예컨대,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서 학교가 수업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이때의 ‘학교’에 ‘도서관’이 포함되는지 분명하지 않

15 정경희·이호신(2017),『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서울:한울아카데미, 188쪽.

다는 점이다. 만일 학교도서관이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국 31조에 따라 교사나 학생이 요구했을 때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1부씩 제공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제25조의 확실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관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영화상영, 동화구연, 음악감상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서비스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공연(저작권법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인지 여부가 애매해지곤 한다.

결국 도서관에서 각종 저작물을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저작권법상 면책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의의 권리자가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안 되지만, 도서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가로막는 권리 보호 또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 5. 결론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감안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작권법 조항은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이 신설된 배경에는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상의 열거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만으로는 제한 규정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의 저작물 이용을 모두 아우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 사유 이외에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필요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저작권의 합리적 보호와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형성을 유도한다는 취지 또한 내포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

지만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여기서 공정이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이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보도·비평·교육·연구’라고 한 것은 저작물 이용 행위의 목적을 예시한 것이지 반드시 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정이용 조문 신설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이용의 대표적 목적의 예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이라는 표현으로 다른 목적의 이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기존 인용규정(제28조)에서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하여 인용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sup>16</sup> 그렇다면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 또한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고려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 가.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나.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다.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라.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결국 특정 저작물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는 규정에 예시된 기준인 영리성 유무,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저작물의 비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나아가 이러한 공정이용 조항은 일정한 범주에 속하는 행위를 저작권 보호의 예외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체적인 행위가 공정행위에 속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각종 디지털 저작물 제작을 포함하여 기존 저작권재산권 제한 규정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웠던 이용 행위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규정에 예시된 기준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서관이 안고 있는 저작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중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규정 중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있어 “보도·비평·교육·연구 및 도서관에서의 이용 등”과 같이 예시 부분에 도서관에서의 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함과 동시에 제25조의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에서 ‘도서관’이 학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제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관한 규정을 정교하게 개선하여 도서관에서의 공연 및 장애인 서비스가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 자료 납본에 관해서도 관련 저작물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경주되기를 바란다.

16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12.14.),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9쪽.

참고문헌

김기태(2010),『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출판’의 재개념화 연구』, 한국출판학회 편,《한국출판학연구》 제36권 제1호(통권 제58호)

김기태(2013),『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출판학회 편,《한국출판학연구》 제39권 제1호(통권 제64호)

김기태(2017),『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출판의 재개념화를 중심으로』, 한국출판학회 편,《한국출판학연구》 제43권 제4호(통권 제80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2011.12.14.),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설명자료』,

이승환(2017),『웹출판의 발전과 과제』, 한국출판학회 편,《한국출판학연구》 제43권 제2호(통권 제78호)

이용준·최연(2017),『외국 웹소설의 현황과 특성을 통해 본 국내 웹소설 발전의 시사점』, 한국출판학회 편,《한국출판학연구》 제43권 제3호(통권 제79호)

정경희·이호신(2017),『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서울:한울아카데미

[참고] 저작권 상담기관 안내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www.copyright.or.kr/business/counsel/index.do)

- 1.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최신 저작권 이슈가 반영된 상담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온라인상에서 24시간 언제든지 간편하게 태그(핵심 키워드) 검색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음.
- 2. 전화상담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관련 문의에 대해 법률상담관이 직접 상담 진행
  - － 저작권 법률 및 제도 상담: 1800-5455
  - － 조정 신청 관련: 02-2669-0042
  - － 법정허락 신청 관련: 055-792-0087
  - － 저작권 등록 서류 보완 관련: 055-792-0264, 0266/02-2669-0024, 0026, 0030, 0048, 0049
- 3. 서신상담 : 저작권과 관련된 사안을 법률상담관이 검토하여 서신(공문 등)으로 답변함.
  - －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층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
- 4. 내방상담: 법률상담관이 직접 대면하여 상담 진행
  - － 담당부서 : 〈진주본원〉 [우: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층 종합민원센터 〈서울사무소〉 [우:04323]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107, 5층 종합민원센터
  - － 상담시간 : 오전 9:00 ~ 오후 6:00(점심시간 12:00~1:00)
  - － 상담예약 :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예약하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상담 가능)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상담

(www.kccpa.or.kr/lay1/program/S1T83C257/copyright/intro.do)

[우.039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서울산업진흥원 4층, 9층, 10층  
대표전화 1588-0190 팩스 02) 3153-2709



## 기획대담

# 전자책 서비스,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논하다

사회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패널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진정훈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주무관

홍영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사무관

2007년 미국 아마존에서 자체 전자책 단말기를 출시하며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한때 전자책으로 인해 종이책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현재 종이책과 전자책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공존하고 있다. 실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전자책의 전망과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답변을 듣기 위해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주제로 한 대담을 기획했다.

**한주리** 이번 대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 전자책 산업의 이모저모를 파악하고, 도서관에서 전자책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깊이 있게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자책 산업의 현황과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이 어떤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 구독형 서비스 대세,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만의 차별화 필요

**장은수** 전 세계 전자책 산업은 2015년부터 정체기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전자책이 출판 시장의 25%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이책을 전환한 순수 전자책이 전체 출판 시장의 3~5%밖에 되지 않는데요. 단, 웹소설과 웹툰을

전자책 범위에 포함시킨다면 시장 규모가 훨씬 큼니다. 저는 웹소설과 웹툰까지 전자책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전자책 트렌드는 '구독형 서비스'입니다. 종이책처럼 단권 구매를 하는 방식을 넘어 월 일정 금액을 내고 무제한으로 책을 이용하는 플랫폼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가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와 비슷한 면이 많다는 점입니다. 유, 무료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호** 공공도서관의 구독형 서비스만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장은수 대표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희 도서관 관계자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요. 서울도서관은 2016년부터 소장형 전자책 서비스 방식에서 벗어나 구독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소장형 서비스의 경우, 전자책 1권 당 이용자 수가 제한되





홍영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사무관 · 진정훈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주무관

어 있어서 대기자가 책을 읽기 위해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또한 트렌드를 다루는 도서는 이용 수명이 짧은데도 도서관은 그것을 소장해야 해서, 도서관 서버에 무리가 오기도 했습니다. 전자책 파일이 보통 1권에 80MB 정도인데, 10,000~20,000권 이상의 책을 소장하니까요.

구독형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자책 파일은 클라우드 서버에 올라가고, 정액제 형식으로 서비스되기에 여럿이 동시에 봐도 서울도서관 입장에서 부담이 줄었어요. 다만 공공도서관에서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 장서 규모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률이 미비합니다.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실무자로서 전자책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는 점은 체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쉽습니다. 통합 뷰어 등 기본적인 기능은 도서관 서비스에 구현되었지만, 유통사와 출판사의 이해관계로 인해 콘텐츠가 아직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홍영미**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8월 4일부터 온라인 자료를 납본받기 시작했습니다. ISBN,

ISSN이 부여된 전자책과 전자저널이 납본 대상입니다. 전자책은 주요 출판사보다 1인 출판사에서 납본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만 일부 출판사에서 납본 보상금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되어, 해당 전자책이 출판 및 유통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료인지 철저하게 판단해 납본받고 있습니다. 납본 악용 사례로 의심되는 전자책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납본 수집의 타당성 여부 및 보상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주리**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자책 수집 목적 및 서비스 대상이 다르므로, 실정에 맞게 구분해 운영 방식과 정책을 세심하게 살펴야겠습니다. 홍영미 사무관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상외로 주요 출판사를 통한 납본이 활발하지 않은데요. 납본 제도 악용으로 인해 납본 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등 행정적인 과정에 과도하게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가치 있는 전자책들이 많이 납본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양한 형태의 전자책 납본 고려해야

**홍영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자료 납본 기준과 방법을 홍보하고 있습니

다. 출판사들도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길러야 하겠지만, 현재 누구나 출판사를 설립하거나 자가 출판 플랫폼을 통해 출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본 관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은수** 가치 있는 납본 대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책 산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스낵 컬처로 구분되는 웹툰과 웹소설을 무조건 납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나중에 중요한 문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오디오북, VR과 AR을 접목시킨 전자책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합니다.

**홍영미**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웹툰작가협회와 함께 회의를 열고 웹툰 아카이브를 논의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도 관련 협조 요청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웹툰은 작가, 플랫폼, 에이전시가 얹여 있고, 플랫폼과 에이전시는 서로 납본 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은 2019년 4월, 보존 가치가 있는 웹툰 수집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웹툰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웹소설도 납본 방안을 차차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은수** 저는 출판사의 정체성이 종이책 생산이 아니라, '읽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읽기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개발해 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출판사는 기존 특성과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형태로 변할 거예요. 그 예로 학술·연구 분야의 글로벌 출판 기업 엘스비어(ELSEVIER)의 경우, 전 세계의 학술 콘텐츠를 디지털 형태로 먼저 생산한 후, 독자의 요구를 받으면 종이책으로 만드는 전략을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도서관계에서는 이런 형태의 콘텐츠 또한 대응할 준비를 해둬야겠죠.

**한주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전자책의 장점과 한계, 이용자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7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자책을 가장 많이 읽는 연령층이 초등학교(30.0%), 고등학교(26.5%) 보다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시나요?

## 전자책 서비스 타깃, 미래 세대로 확장시켜야

**홍영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의 주요 이용 연령층은 50대 이상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60대 이상은 30%, 50대

27%, 40대 22%, 30대 12%, 20대는 9%가 이용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평균 1,272명이 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특성상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진정호** <국민독서실태조사>는 전국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주요 연령층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별 특색에 따라 전자책 이용 연령층이 달라집니다. 서울도서관은 직장을 다니는 30~50대 이용자가 많은 편이고, 주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전자책 주요 이용 연령층이 학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울도서관의 이용률을 보면 종이책이 30만 건, 전자책이 10만 건 정도로 이용률이 높은 분야는 경제, 자기계발, 여학, 여행 분야입니다. 흥미로운 결과는 이용자들이 주로 자정 시간 대에 가장 많이 본다는 통계입니다.

**장은수** 서울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전자책 서비스 회사의 이용자 행태를 보면, 자기 직전 시간에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점심 시간에도 이용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직장인들이 짬을 내서 전자책을 읽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전자책을 읽는 사람도 많이 보았는데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접하며 자랄 미래 세대는 더욱더 모든 콘텐츠



한주리 서울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 장은수 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츠를 전자기기로 읽을 것 같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서울도서관의 현재 전자책 주요 이용자가 10~20대가 아니어도 새로운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를 모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은 외면받을 것입니다.

**한주리**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더 좋은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와 도서관계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 기획 대담에 참여하신 소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전자책 서비스의 발전, 출판계와 도서관계의 협력에 달려 있다

**장은수** 전자책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제프 베조스가 말한 다섯 가지 키워드(언제, 어디서든, 무엇을든, 즉시, 어떤 언어로든)를 고려해야 합니다. 종이책의 접근성이 떨어질 때 대체 수단으로 전자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글은 2025~2030년까지 주요 언어에 대한 자동 번역 서비스를 완성한다는 게

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전자책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역 출판이 사라지죠. 또 TTS 기술로 전자책만 있으면 오디오북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고려하면, 누가 번역했느냐, 누가 읽느냐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겠죠.

현재까진 전자책 때문에 종이책이 사라지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결국 전자책을 읽고, 전자책을 읽고 종이책을 구매하는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종이책과 전자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각 종사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판업계와 도서관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기술 발전으로 인한 변화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대한 협력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정기포럼이나 위원회를 시시각각 열어 관련 이슈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훈** 서울도서관에서 전자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지 약 5년이 되었는데요. 초창기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아 많이 헤맸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과 각 공공도서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책 분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공기관은 무엇보다 이용자의 편의를 우선 생각해야 하며, 전자책 서비스 또한 이용자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상생을 도모하는 대담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홍영미**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서관계와 출판사, 유통사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전자책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후대를 위해 대한민국의 지적 자산을 보존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하는데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획 대담을 통해 패널분들이 주신 의견은 국립중앙도서관 정책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주리** 전자책 서비스에 대한 각 계의 전망과 의견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세 분 모두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자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해 더욱 좋은 방향으로 전자책 서비스가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 부록

# 디지털도서관, 10년을 돌아보다

2009년 5월 25일,

디지털도서관이 개관되었다.

연면적 38,211㎡, 지상 3층, 지하 5층의 규모로,

디지털 콘텐츠 약 1억 1천 600만 건을 제공하며 문을 연

디지털도서관이 어느덧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디지털도서관은 자연과 정보와 인간이 소통하는

디지털복합문화공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고품질 지식정보와

통합 검색 환경을 제공하였다.

현재 약 2,500개 기관과 협력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시대,

시대 흐름에 맞춰 대국민과 만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의 지난 10년을 살펴본다.

## 디지털도서관 연혁

2005.12.26.

디지털도서관 기공식

2009.5.

디지털도서관 개관

디브러리(Dibrary) 포털서비스 오픈

디지털자료운영부 신설

(디지털총괄기획과, 디지털정보이용과, 정보시스템운영과)

2010.8.

한·중·일 디지털도서관

이니셔티브(CJKDLI) 협정 체결

2014.4.

문화체육관광부

‘오픈엑세스코리아(OAK)’ 사업 인수

2015.3.

디브러리 포털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 통합

2016.11.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활용’ 사업 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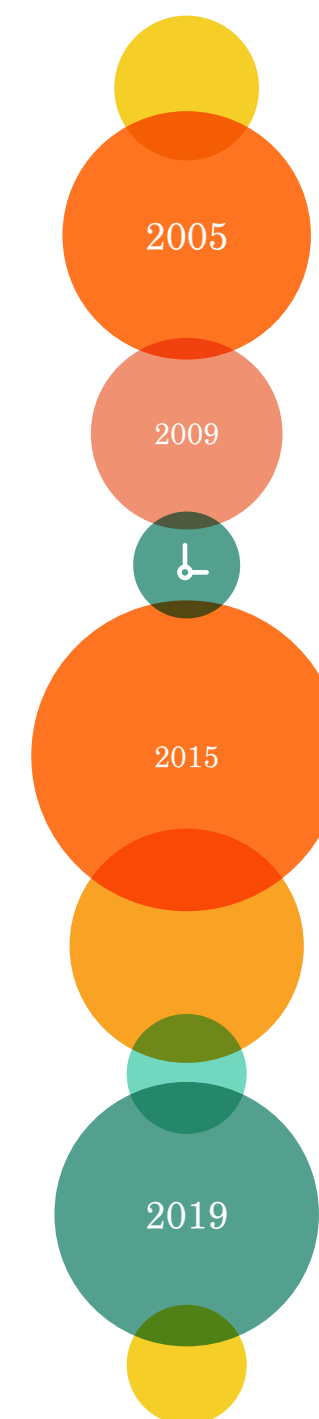
2017.12.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누리집 오픈

디지털컬렉션 누리집 개편

20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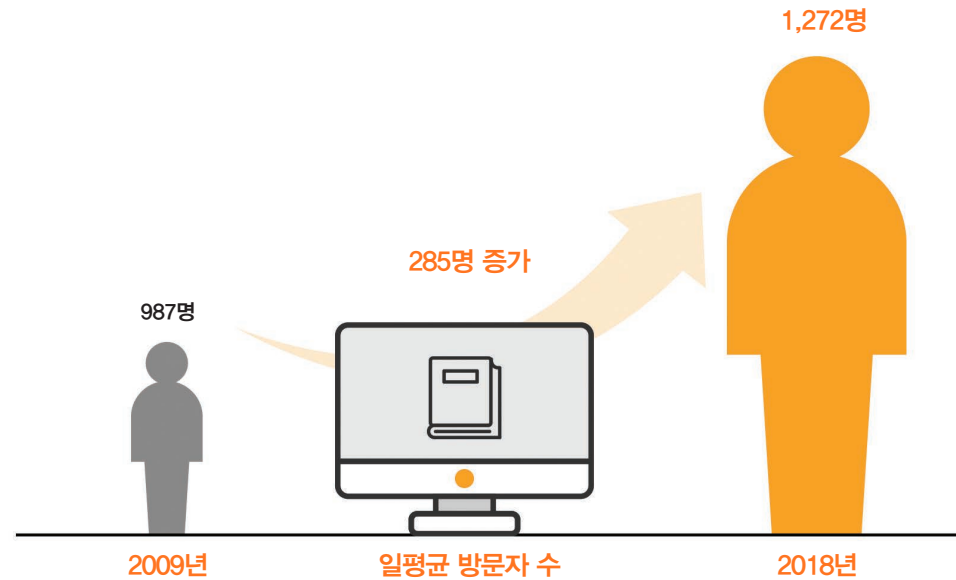
디지털도서관 이용 공간 및 서비스 개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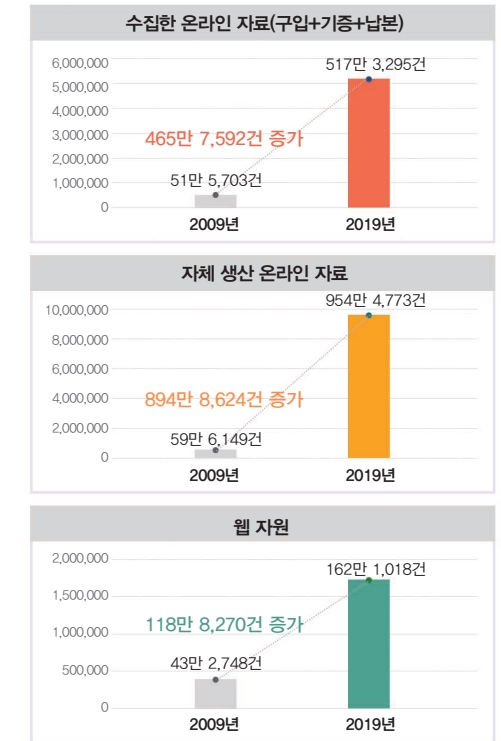
## 디지털도서관 일평균 방문자 수 변화

2009년 12월, 2018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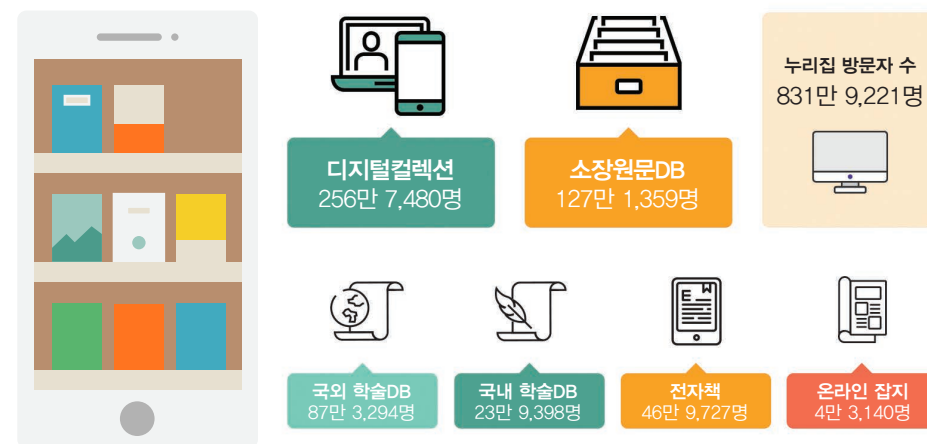
## 온라인 자료 소장 현황 변화

2009년 12월, 2019년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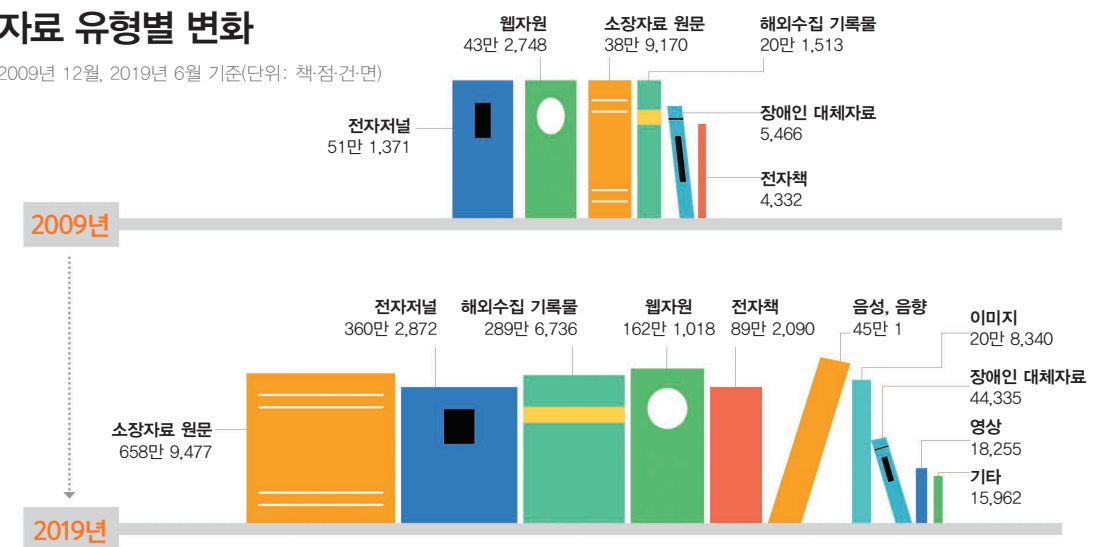
## 온라인 콘텐츠 이용 현황

2018년 1~12월 기준



## 자료 유형별 변화

2009년 12월, 2019년 6월 기준(단위: 책·점·건·면)



통권 제 393 호 | 2019

## 비매품

기획·편집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발행 2019년 9월 30일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 화 (02)590-0799  
팩 스 (02)590-0546  
누리집 [www.nl.go.kr](http://www.nl.go.kr)  
인쇄처 채널원투원

DOSEOGWAN

Vol. 393 | September 2019

## Publishing offic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 Banpo-daero, Seocho-gu, Seoul, Korea  
Tel (02)590-0799 | Fax (02)590-0546